

2021년 기초자료 조사수집 공동학술대회

민간기록유산을 통해 본 고흥의 역사와 문화

목 차

발표 1

조선후기 고흥지역 무반가문 형성과 활동 / 1

이수경(지역유산연구원)

발표2

조선후기 고흥지역 사우의 운영으로 본 선조 현양 / 31

박미선(전남대학교)

발표3

근대 유림의 네트워크와 시사(詩社) / 55

박명희(전남대학교)

토론문 / 75

조선후기 고흥지역 무반가문 형성과 활동

이수경¹⁾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임진왜란 전·후 진무성의 활동
- III. 무열사 소장 고문서의 현황
- IV. 무열사 소장 고문서의 가치

I. 들어가는 말

고흥군 두원면 신송리 무열사(武烈祠)에는 시조 진충후의 11세손 진무성(陳武晟, 1566~1638)이 배향되어 있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호국선열의 유적이다. 1826년(순조 26) 홍양현 대서면 상남마을에 ‘용강사(龍岡祠)’로 창건하여 진무성과 함께 창원박씨 3인 박유원, 박태수, 박홍세를 배향한 것이 시초이다. 용강사는 1868년(고종 5) 서원철폐령에 따라 헐린 뒤 1941년 현 위치에 복설되어 무열사라 하고 진무성만을 모시고 있다.

무열사에는 진무성을 비롯하여 그의 후손의 고문서가 대대로 전해지다가 2019년과 2020년 한국학 호남진흥원에 두 차례의 유물이 기탁되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는 자료 조사·촬영·목록 정리를 수행한 결과 고문서 254점·고서 61점·유물 2점, 총 179종 317점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고문서는 조선 후기 여양진씨(驪陽陳氏) 인물의 관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무열사 소장 고문서에 대한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임진왜란 전·후로 무신 진무성의 활동을 살펴보겠다. 이어서 무열사 소장 고문서의 현황을 살펴면서 인물과 관직을 정리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열사 소장 고문서가 갖는 역사적 가치를 매김하겠다. 본고를 통하여 여양진씨 충절 가문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II. 임진왜란 전·후 진무성의 활동

여양진씨의 시조는 고려 예종 때 고려 중앙군인 2군 6위 중 신호위대장군(神虎衛大將軍)을 지내고, 1126년(인종 4) 이자겸의 난을 진압한 공으로 상장군(上將軍)이 되고 여양현을²⁾ 식읍으로 받고 여양군

1) 지역유산연구원

2) 여양(驪陽)은 고려 시대 청주(靑州)의 여양현(驪陽縣)을 말하며, 여양현은 현재의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일대에 걸쳐있었던 지역이다.

(驪陽君)에 봉해진 진충후(陳寵厚)이다.

그의 아들인 진준(陳俊, ?~1179)은 성품이 질박하고 정직해서 칭송받던 무신으로,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의종이 폐위되는 와중에 무신들이 문신들을 모두 죽이려 하자, “우리가 원한을 가진 자는 이복기, 한뢰 등 4, 5인에 불과한데, 이 많은 무고한 사람을 이같이 살해하고 가산을 몰수함은 부당한 일이므로 중지하라.”라고 하였다. 진준 덕분에 적지 않은 문신과 그들의 가족이 화를 피했는데, 이에 사람들이 “음덕(陰德)이 있으니 후손들이 반드시 창성(昌盛)한다.”라 하였다고 『고려사』에 전한다.³⁾

진준의 다섯 아들과 다섯 손자가 모두 요직에 올라 가문의 토대를 다졌고, 이에 자손들이 진충후를 시조로 하고 봉작을 받았던 여양현을 본관으로 삼은 것이 여양진씨의 시초이다.

여양진씨는 고려·조선 시대에 비교적 많은 인물을 배출하고 있는데, 주요한 인물로는 고려 명종 때 한림학사(翰林學士)를 지낸 식(湜), 고려 신종 때 공주지사(公州知事)를 지낸 당대의 명문장으로 이름났던 화(澣), 조선 세종 때 직제학(直提學)을 지낸 의귀(義貴), 명종 때 대사헌(大司憲)을 지낸 복창(復昌), 부제학을 지낸 식(寔), 선조·인조 때의 무장으로 임진왜란 때 전공을 세운 무성(武晟) 등을 꼽을 수 있다. 여양진씨는 조선시대에 27명의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였다.

진무성은 여양진씨 시조 진충후의 11세손이다. 무열사에 배향된 진무성의 자(字)는 사규(士規),⁴⁾ 호는 송계(松溪)이다. 진무성은 고려조의 문인으로 유명한 화(澣)의 후손이고 참판(參判) 인해(仁海)의 아들로 1566년(명종 21) 고흥에서 출생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진무성의 활동은 이순신(李舜臣, 1545~1598)의 기록 『난중일기(亂中日記)』와 『임진장초(壬辰狀草)』에 전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진무성에 대한 기록은 다음처럼 정리된다.

표1. 이순신의 기록에 나타난 진무성의 활동

문헌	일자	내용 ⁵⁾
임진장초 壬辰狀草	당포에서 왜적을 부순 일을 임금께 보고하는 장계 (唐浦破倭兵狀) 1592년 6월 14일	[1592년 6월 2일] 당포 바다에 이르러 우척후장 사도 첨사 김완과 군관으로 홍양의 보인인 진무성이 머리를 베었습니다. 적의 무리들은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철환에 맞고, 전예(箭) 맞은 놈들이 어지럽게 거꾸러졌습니다. 머리 6급을 베었고, 그 배들을 다 불태운 뒤에 여러 배의 용사와 장수가 육지에 올라가 끝까지 추격해 수색해 머리를 베려할 때, 또 “왜 대선 20여 척이 많은 소선을 이끌고 거제에서 와서 정박하고 있다”라고 적을 정탐하고 감시하는 배가 나와서 보고했습니다. (중략) [1592년 6월 7일] 울포 바다에 이르러 사도 첨사 김완은 왜 대선 1척을 바다 가운데서 완전히 불

3) 『고려사』 권100, 「열전」 권13, 진준: 성품이 소박하고 정직하여 당시에 자못 많은 칭송을 받았고, 왕도 그의 인품을 소중하게 여겼다. 경인년(1170)과 계사년(1173)의 변란 당시 문신(文臣)의 집안으로 진준 덕분에 목숨을 부지했던 사람들이 매우 많았기에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음덕(陰德)이 있으니 뒷날 반드시 번창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그의 손자 진식(陳湜)·진화(陳澣)·진온(陳溫)이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문장으로 이름을 날렸다. 진식은 관직이 어사대부(御史大夫)까지 이르렀고, 진화는 직한림원(直翰林院)으로 선발되어 우사간 지제고(右司諫 知制誥)를 지냈으며 지공주사(知公州事)로 나갔다가 죽었다. 시를 잘 지었으며, 시에 쓴 단어가 맑고 아름다웠다. 젊어서 이규보(李奎報)와 나란히 이름을 떨치니, 당시에 ‘이정언(李正言)·진한림(陳翰林)’이라 불렸다.

4) 『기해추별시방목(己亥秋別試榜目)』(개인 소장)에는 진무성의 자는 ‘규중(圭仲)’로 기록되어 있다. 진무성은 기해년 별시(別試)에서 을과 15위를 하였다. 선발인원 152명 [甲1·乙32·丙119] 중 16등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급제하였다.

		<p>잡고 머리 20급을 빼었습니다. 그러므로 무릇 네 번 맞붙어 싸울 때[5월 29일 사천해전, 6월 2일 당포해전, 6월 5일 당항포해전, 6월 7일 울포해전] 전(箭)에 맞아 죽은 왜가 아주 많았지만, 머리를 벤 것은 많지 않습니다.</p> <p>사도 1호선 군관 진무성, 임홍남(林弘楠), 사부 수군 김억수(金億水), 진언량(陳彦良), 신선 허복남(許福男), 조방 전광례(田光禮), 방포장 허원종(許元宗), 토병 정엇금(鄭於叱金), 여도선의 사부 석천개(石千介), 류수(柳水), 선유석(宣有石) 등은 전(箭)에 맞았으나 중상은 아닙니다. 위의 사람들은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죽을 결심을 하고 나아가 싸웠기에 혹은 죽었고, 혹은 다쳤기에, 죽은 사람의 시신은 각각 그 장수에게 명령해 별도로 소선에 실어 고향에 돌아가게 해 장례를 치르게 했으므로,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다른 구제를 위한 특전恤典(홀전)처럼 베풀어주소서.”</p>
난중 일기 亂中日記	1594년 6월 28일 [한산도 통제영]	맡았다. 뜨겁기가 찌는 듯했다. 나라 제삿날이라 내내 홀로 앉아 있었다. 진무성이 벽방의 높은 곳에서 적을 감시하고 살펴보고 돌아와, “적선이 없다.”라고 보고했다.
	1596년 2월 4일 [한산도 통제영]	맡았다. 아침에 「임금님께 보고하는 글」을 ⁶⁾ 봉해 사도 사람 진무성을 통해 보냈다. 영의정(류성룡)과 신식의 두 집안에 안부를 여주는 편지도 부쳐 보냈다(하략).
	1596년 윤8월 10일 [한산도 통제영]	맡았다. 이날 새벽에 과거 시험장을 열었다. “늦게, 면이 활을 쏜 것은 모두 55보, 봉이 활을 쏜 것은 모두 35보, 해가 활을 쏜 것은 모두 30보, 회가 활을 쏜 것은 모두 35보, 완이 활을 쏜 것은 25보였다”라고 했다. 진무성이 활을 쏜 것은 모두 55보였다. 합격했다. 어두울 무렵 우수사(이억기)와 경상수사(권준), 배조방(조방장 배홍립)이 같이 왔다. 밤 10시에 파하고 돌아갔다.
	1596년 10월 11일 일기 뒤 [한산도 통제영]	10월 9일. 진무성이 청어 4,400 두름을 싣고 왔다.

임진왜란 당시 26세 진무성은 흥양현 사도진(蛇渡鎭)의 군관(軍官)으로 임진년 해전 2차 출전인 1592년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있었던 사천·당포·당항포·울포해전에 참전하여 전공을 세웠다. 1차 출전인 5월 초의 옥포·합포·적진포해전에서 사도첨사(蛇渡僉使) 김완이 일본 대선 1척을 분멸하는 공을 세운 기록으로 보아 사도군관 진무성도 사도첨사와 함께 1차 출전부터 참전하였을 것이다.

2차 해전을 조정에 보고하는 이순신의 「당포에서 왜적을 쳐부순 일을 임금님께 보고하는 장계」(1592년 6월 14일)에 따르면, 진무성은 사도 1호선의 군관으로 참전하여 왜적의 목을 베고 적선을 불태우는 등 이순신이 장계에 기록할 만큼 큰 공을 세웠다. 이날의 전투는 전라좌수군 중 전사자 13명, 부상자 37명을 낼 만큼 치열한 접전이였다. 그 중 사도전선에서 전사자 2명, 부상자 8명이 발생하였고, 진무성도 화살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5) 박종평, 『(국역) 난중일기』, 글항아리, 2018 참조.

6) 그러나 1596년 2월 4일에 이순신이 조정에 올린 장계는 『임진장초』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는 망실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포해전에서 전공을 세운 진무성에 대해 안방준은 ‘적장 축전수(竺前守)를 사살하여 그의 머리를 벤 자가 흥양의 무인 진무성인데, 권준은 중군장(中軍將)의 신분으로 이를 빼앗아 자신의 공으로 삼았다.’라고 『은봉전서(隱峯全書)』(1773년 刊)에 기록하였다.⁷⁾

그리고 임진년의 7월 한산해전, 9월 부산포해전 등에서 진무성의 기록은 없지만, 사도첨사 김완의 전공 기록으로⁸⁾ 보아 진무성도 사도군관으로 함께 참전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산해전 당시 사도진의 전사자는 1명, 부상자는 14명이 기록되어 있다.⁹⁾ 부산포해전에서 고흥 출신 사도군관 김봉만이 부상을 당한다.¹⁰⁾

군관은 진장(鎭將) 만호 휘하에서 여러 군사적 직임을 수행하던 장교급의 무관을 칭한다. 1593년 9월 부터는 삼도(三道, 전라도·경상도·충청도)의 수군을 통합 지휘하는 삼도수군통제사직이 신설되어 수군 상위 조직의 지휘체계는 통제사(종2품)-수사(정3품)-첨사(종3품)-만호(종4품) 체제로 유지되었다. 진무성은 사도첨사 김완의 군관으로 이순신과 함께 임진왜란 초기해전에서 연전연승을 거두었던 전라좌수군의 지휘부 인사였다. 진무성 외 흥양 출신 전라좌수영 군관 송희립, 사도군관 김봉만도 임진왜란 초기 해전에서 큰 활약을 한 인물이다.

다음은 이순신의 기록 『난중일기』에 의하면, 1594년부터 1596년 사이에 진무성은 경상도 한산도 통제영에서 해상 방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1594년 6월 28일, ‘진무성이 벽방의 높은 곳에서 적을 감시하고 살펴보고 돌아와, “적선이 없다.”라고 보고했다.’라는 기사로 보아 진무성은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의 휘하에서 한산도 견내량 해역에서 방비하고 있다. 이 시기는 삼도의 전선이 경상도 견내량에 모여 일본군에 맞서 해상을 방위할 때이다.

그리고 진무성은 난중일기에 계속 기록되고 있다. 이것은 군관 진무성이 전라좌수군으로 임진왜란 동안 직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1596년에는 진무성은 통제사 이순신의 장계를 조정에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통제사의 장계를 한성 임금에게 올리는 것은 군관의 직무이기도 하다. 장계란 한산도 통제영에서 삼도의 수군을 운영, 유지하는 일과 전투에 대비하여 통제사의 계획과 그 실천을 보고하는 글로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다. 단순한 편지글이 아니다.

같은 해 윤8월 한산도에서 주사[수군]를 위한 별시(別試)가 있었다.¹¹⁾ 이때 진무성은 활쏘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어 합격하였다.

그럼 이러한 내용이 조선 후기에 이르러 어떻게 정리되는지 살펴보겠다.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1795년 刊)의 「흥양현지(興陽縣志)」에는,

7) 況射殺賊將竺前守。手斬其頭者。興陽武人陳武晟也。而後以中軍將。奪爲己功(안방준, 『은봉전서(隱峯全書)』 권8. 記事 白沙論壬辰諸將士辨, 1773). 안동교, 「백사가 논한 임진년의 여러 장사에 대한 변론」, 『국역 은봉전서(1)』, 보성문화원, 2002, 408쪽.

8) 『李忠武公全書』卷之二, 「狀啓一」 ‘見乃梁破倭兵狀’.

9) 『李忠武公全書』卷之二, 「狀啓一」 ‘見乃梁破倭兵狀’.

10) 『李忠武公全書』卷之二, 「狀啓一」 ‘釜山浦破倭兵狀’.

11) 주사별시(舟師別試)에 대한 글은 필자의 「신여량의 주사선연지도 제작배경 검토」(2018, 국립중앙박물관)를 참고.

- 진무성은 고려 병부상조 광현(光賢)의 후손으로 활을 잘 쏘아 특이한 공을 세웠다. 진주가 포위를 당했을 적에 충무공이 사정을 탐지하고자 했으나 갈 사람이 없었다. 무성은 분히 여겨 자기가 가겠다고 청하므로 공은 편지를 써서 주었다. 무성은 왜복(倭服)으로 변장하고 성 아래 이르러 줄을 타고 올라가 편지를 전하고 또 사정을 자세히 알고 돌아왔다. 그 공으로 선무(宣武)의 녹훈을 받았다.'라고 하였다.¹²⁾ 진무성은 이순신의 명령을 받고 일본군의 포위를 뚫고 진주성에 들어가, 진주성의 상황을 파악하고 돌아올 정도로 기민하고 담력이 센 장수였다.¹³⁾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1797년 刊)에는,

- 진무성은 임진왜란 때 이충무공의 막하에 나아가 옥포·적진포 해전에서 많은 적을 참획하는 공을 세웠다. 당포해전에서 3층의 붉은 비단 장막을 올린 왜선을 보고 공이 돌입하여 그 장수를 죽이고 아울러 6명을 목 베었다. 노랑의 소강(所江) 싸움에서 힘써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다. 계사년(1593) 진주성이 포위되어 형세가 급하게 되자 충무공이 여러 제장들을 보고 “누가 가서 정세를 알아보고 올 것인가.”하고 묻자 공이 갈 것을 청하였다. 마침 바로 왜장 유강남(劉江南)의 이름을 아는지라 죽은 왜장의 옷을 입고 유강남이라 칭하면서 바로 진주성에 이르렀다. 성에 들어가 명령을 전하니 창의사(倡義使)와 여러 장수들이 손을 잡으며 크게 기뻐하였다. 성을 나올 때 10여 명의 왜를 죽이고 돌아오니 충무공이 맞이하여 이르길 “이 사람이 맹장(猛將)이로다.”라 하였다. 경흥부사(慶興府使)에 제수되었고 정묘란(1627) 때 구성부사(龜城府使)가 되었다. 호조판서(戶曹判書)를 증직(贈職) 받았으며 선무원종공신에 녹훈(錄勳)되었다.¹⁴⁾

윤휴(尹鑣)의 「제장전(諸將傳)」(1927년 刊)에는,

- 진무성은 흥양 사람으로 용력이 뛰어났다. 이순신이 전라도에 부임하여 그의 기개를 높이 사 패장(牌將)으로 발탁했으며, 당진(唐津)의 싸움에서 일본군의 적장을 앞쪽에서 지키는 일본군을 쏘아 죽였다. 진주가 위급하자 자진하여 이순신의 편지를 받들고 가서 진주성에 전달했으며, 돌아오는 길에 일본군 수십 명을 베고 복명하자 이순신이 장하게 여겼다. 뒤에 부사가 되었다.¹⁵⁾

『이충무공전서』, 『호남절의록』, 「제장전」의 진무성 기록은 1592년 당포해전 전공과 1593년 6월 2차 진주성전투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당시의 이순신의 장계와 일기에는 진무성이 진주성에 이순신의 편지를 갖고 갔다는 기록은 없다. 오히려 군관 진무성이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의 장계를 갖고 조정 임금에게 갔다는 내용이 있으며, 그 시기는 1596년 2월이다.

12) 『李忠武公全書』卷之十四, 附錄六, 紀實[下] [興陽縣志]-陳武晟. 高麗兵部尙書光賢之後. 善射藝. 壬辰亂. 佐忠武公李舜臣幕. 唐浦之戰. 累立奇功. 及晉州被圍. 忠武公欲探事實. 無人敢往. 武晟憤慨請往. 公修書付之. 武晟變着倭服. 至城下縋上以達. 竟悉事機而還. 以功錄宣武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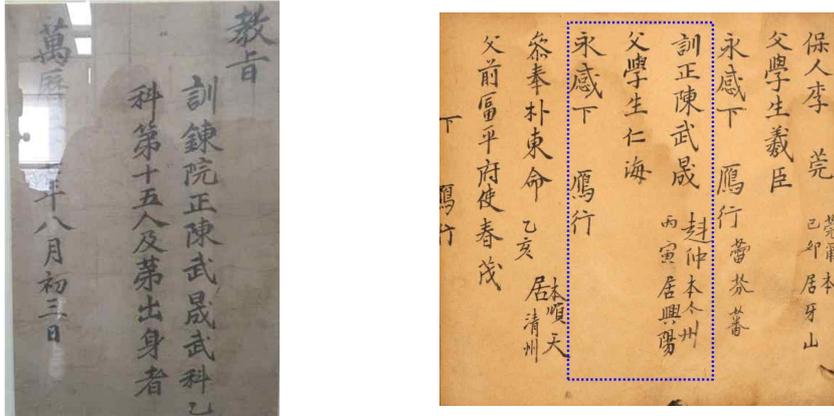
13) 이은상 국역 주해, 『이충무공전서』(하), 충무공사협회, 1960, 426쪽.

14) 김동수 교감 역주, 「이순신의 참좌 제공의 사실」, 『호남절의록』, 경인문화사, 2010, 266쪽.

15) 윤휴, 『백호집(白湖集)』 권21, 事實 「諸將傳」; 제장이란 장수라는 의미이며 총 10명을 수록하였다. 그 주인공은 정운, 송희립, 이익기, 류형, 정사립, 이완, 진무성, 안위, 김대인, 원균이다.

진무성은 임진왜란 당시에는 사도군관, 1599년(선조 32) 8월에는 훈련원정(訓練院正)으로 당시 34세로 기해년 별시 을과에 급제하였다.¹⁶⁾

그림 1 무과급제 교지(무열사 소장), 『기해추별시방목(己亥秋別試榜目)』(개인 소장)



진무성은 1605년(선조 38)에는 부정(副正)¹⁷⁾ 관직을 지냈다.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록 1등으로 녹훈될 당시의 관직이다. 이듬해 1606년(선조 39) 7월에는 북방 함경도 유원진첨사(柔遠鎭僉使)를 역임하였다. 진무성은 야인 흘랄온(忽刺溫)이 함경도 훈용현(訓戎縣)에 침입한 것을 미리 막지 못하여 해임되기도 하였다.¹⁸⁾ 진무성은 1614년(광해군 6) 4월 5일에 절충장군(折衝將軍, 정3품) 행충무위부사용(行忠武衛副司勇)으로 임명되었다. 1623년(인조 1) 5월 29일에는 통정대부(通政大夫, 정3품 당상관) 행경흥도호부사(行慶興都護府使, 종3품)로 제수되었다.

그림2
선무원종공신록권에서
副正 진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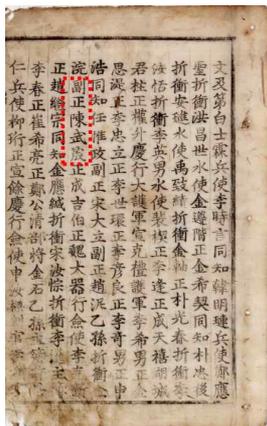


그림3. 1614년 고신



그림4. 1623년 고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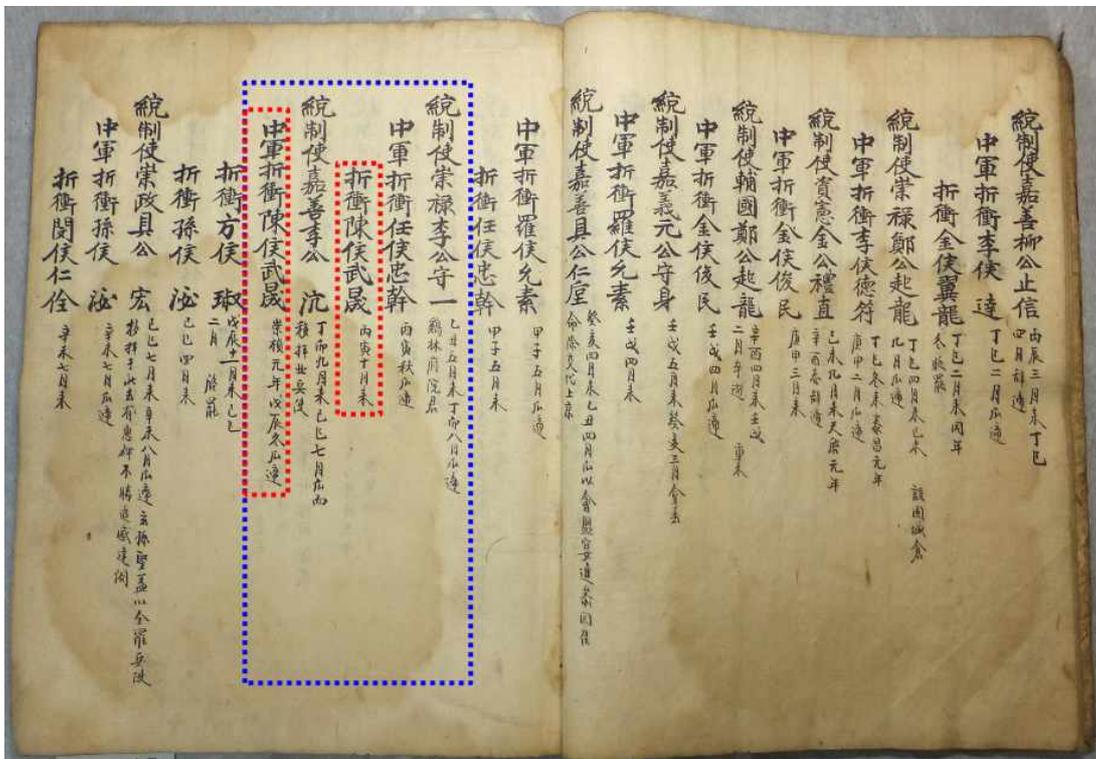
16) 훈련원정은 조선시대 훈련원(訓練院) 정3품 무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 조선 시대 군사의 시재, 무예 훈련, 병서 습득을 관장하였다(관직명 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7) 부정은 조선시대 종친부(宗親府)·돈녕부(敦寧府)·훈련원(訓練院) 등에 소속된 종3품 관직.

18) 『선조실록』 권201, 선조 39년 7월 8일 乙亥-柔遠僉使陳武晟, 雖有弓馬之才, 嗜酒爲事, 且無計慮. 以容接(胡沙)〔沙胡〕之事見, 其不合於巨鎮可知. 依狀啓差.

「경상우수영도선생안(慶尙右水營道先生案)」(1851년)에 의하면,¹⁹⁾ 진무성은 제20대 삼도수군통제사 이수일(李守一, 1625.5~1627.8 재임)과 제21대 삼도수군통제사 이항(李沆, 1627.08~1629.07 재임)의 우후(虞侯, 정3품)로 재임하였다. 일반적으로 우후(정 4품)는 수군 주진의 부지휘관으로 수사의 지휘 아래 제포(諸浦)를 통제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1607년(선조 40) 통제사(중2품)의 직책이 경상우수사의 겸직에서 본직으로 전환되면서 삼도수군통제영의 통제영 우후는 정3품으로 격상되었다. 진무성이 통제영의 우후로 재임한 시기가 병인년(1626, 인조 4) 10월에 도입하여 무진년(1628, 인조 6) 겨울에 임기를 마쳤으므로, 통제사 다음으로 막강한 직책을 역임한 인물이다. 고흥출신 신여량도 임진왜란 직후 경상우수영의 우후를 맡았으나 진무성의 품계와 다르다.

그림5. 경상우수영도선생안(해군사관학교박물관소장품)



다음은 이괄의 난, 정묘호란이 있었던 북방 함경도의 상황이다.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이 좌천되어 부원수 겸 평안병사로 구성에 머물러 있다가 불만을 품고 구성부사 한명련(韓明璉)과 공모하여 반란을 일으켜 한때 한성까지 점령하였으나, 무학재에서 관군에게 크게 패하여 난은 평정되었다. 이에 선천·곽산의 진관을 폐하고 도호부만 존속시켰다.²⁰⁾

1627년(인조 5) 정묘호란이 일어나 후금이 일주일 만에 청북(淸北) 지방을 석권하자 구성부사 전상의

19) 『경상우수영도선생안』(해군사관학교 박물관 소장 중, 유물번호 71-0877). 이 유물에는 역대 삼도수군통제사 20명과 종사관, 우후가 함께 기록되어 있으며 부임 일자, 임무를 마친 일자, 재임 시 특이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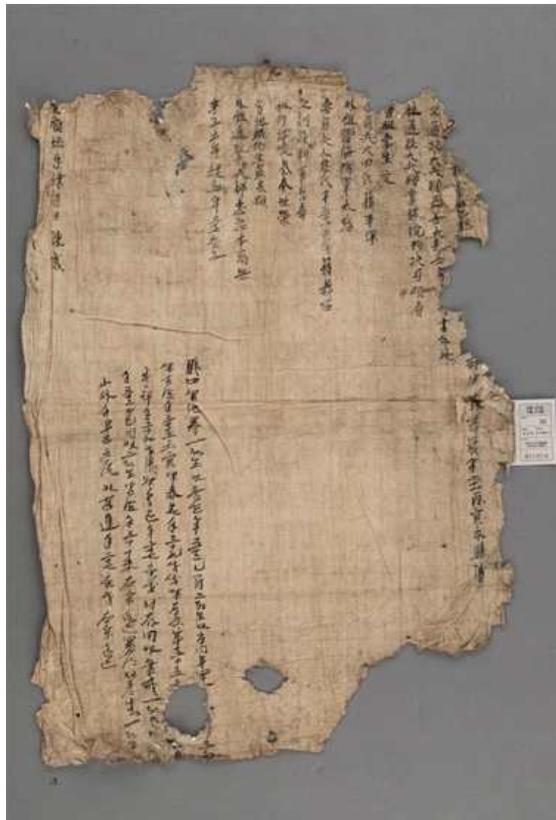
20) 『인조실록』 권4, 인조 2년 1월 29일 甲申.

(全尙毅)는 급히 부하 병사를 동원하여 안주를 방어하다가, 안주목사 김준(金浚), 평안병사 남이흥(南以興)과 같이 다 전사하고 성이 함락되었다.²¹⁾

정묘호란이 끝나고 1630년(인조 8) 3월 진무성에게 평안도 구성도호부사(龜城都護府使) 관직이 제수되었다.²²⁾ 일부 기록에는 진무성이 정묘호란에 참전하여 전공을 세웠다고 하나,²³⁾ 1627년 당시 진무성은 경상도 통제영의 우후로 활동하였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구성도호부사 이후로 진무성의 관직은 검토되지 않는다. 진무성은 1638년(인조 16) 73세로 세상을 떠나 두원면에 안장되었다. 마지막으로 1636년(인조 14) 71세 진무성의 호구단자(戶口單子)를 소개한다. 부(父)는 통정대부증가선대부병조판서 인해(仁海), 조부는 통정대부증장례원판결사(掌隸院判決事) 석口(碩口), 증조부는 학생 문(文)이다.²⁴⁾ 처(妻)는 정부인 박씨로 51세로 병술년생이다. 슬자(牽子)는 계립, 37세이다.

그림6. 1636년 진무성(71세)의 호구단자



진무성 사후에 발급되는 추증교지와 진무성 후손과 관련된 분재기 등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21) 『인조실록』 권16, 인조 5년 4월 22일 戊午.

22) 『승정원일기』 2책 (탈초본 29책), 인조 8년 3월 26일 丙午; 陳武晟爲龜城都護府使者.

23) 김동수 교감 역주, 「이순신의 참좌 제공의 사실」, 『호남절의록』, 경인문화사, 2010, 266쪽.

24) 진무성의 증조는 호구단자에는 문(文)이나, 『여양진씨송계공파 족보』(1988년 刊, 3쪽)에는 문(汶)이다. 본 글에서는 문(文)으로 기록한다.

Ⅲ. 무열사 소장 고문서의 현황

본 장에서는 무열사에 소장된 고문서의 종류와 그 가치에 대해 서술해보겠다. 다음은 고문서의 전체 현황이다.

표 2. 고흥 여양진씨 무열사 고문서의 전체 현황

자료유형		수량		
		종수	점수	
古文書	教令類	紅牌	4	4
		告身	29	29
		追贈教旨 (진무성)	2	2
		差帖	2	2
	疏筭啓狀類	所志 계사년 2점 계축년 1점 무진년 1점 임자년 1점 정묘년 1점	10	10
	證憑類	招辭 계사년 1점	1	1
		地契 1897~1906년 사이 진상조 토지소유권 증명	1	1
		戶口單子 1636년 진무성	1	1
		準戶口 1819년 하동부 진중휘(1819, 1822, 1825, 1828, 1831, 1834, 1837) 진천록(1840) 진달우(1843, 1846, 1849, 1852, 1855, 1858, 1861, 1864, 1867) 진달인(1840, 1843) 진두성(1870, 1873)	24	24
		戶籍表 진행조(1898, 1899, 1900) 진상조(1908)	5	5
		立後成文 1807년 진방석을 진방일의 양자로 증	1	1
	明文文記類	分財記 1671년 진후평 3형제 분재기 1680년 진후평 처 하동정씨 분재기 1706년 진필한 처 류씨 1717년 김석지가 생질 김만동에게 분배 미상년 영양진씨 분재기	5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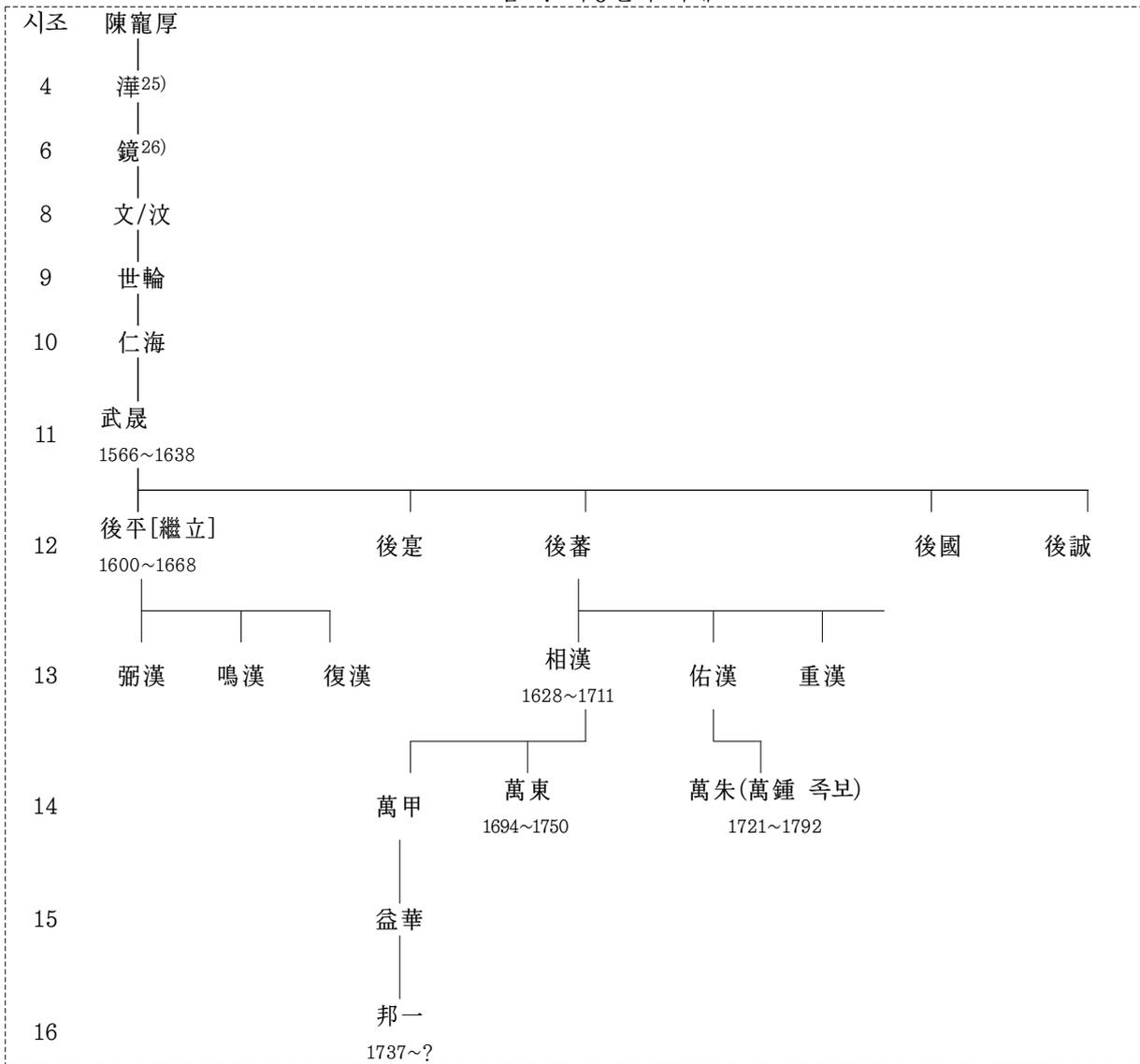
	書簡通告類	通文	14	14
		婚書 1680년 진후변 아들 진상한	1	1
	置簿記錄類	門中記錄	1	1
		講案	1	1
		名單(1968년 남원향교 명단)	1	5
	詩文類	詩(1966~1968, 1977~1987)	17	69
		詩皮封	1	61
	기타	肖像畫	1	1
		書畫(병진년)	1	1
	근현대문서	案内狀(1970년대)	8	8
		住所(1948년)	1	1
建物平面圖		1	1	
文書綴		5	5	
古書	經	四書類	1	1
	史	傳記類	5	8
		地理類	6	10
	集	總集類	2	3
別集類		26	39	
遺物		日傘	1	2
총			179	317

고문서 자료유형을 보면, 교령류(敎令類) 37점, 소지(所志) 10점, 증빙류(證憑類) 33점이 있다. 증빙류에는 진무성의 호구단자(戶口單子)와 진방석을 진방일의 양자로 주는 것을 증빙한 입후성문(立後成文)이 있다. 그 외 1819년부터 1873년 경상도 하동부의 준호구(準戶口) 24점, 1898년부터 1908년 사이의 호적표(戶籍表) 5점이 있다. 이 증빙류는 하동에 거주하는 여양진씨가 무열사에 보낸 문서이다. 진무성 부인이 삼형제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문서 등 5점의 분재기(分財記)가 있다. 진상한의 혼서(婚書)지도 있다. 통문(通文) 14점은 무열사와 관련된 문서이다.

그리고 현대자료로 문중기록, 시 69점, 남원향교 명단 5점, 안내장, 무열사 건물평면도가 있다. 고서에는 지리지(地理類), 타 문중에서 발간한 별집(別集)이 다수 있다. 유물로는 일산(日傘) 대 2점과 진방일 초상화(肖像畫) 1점이 있다.

고문서 현황에서 여양진씨 인물 진계립[진후평], 진필한, 진상한, 진만동, 진만주, 진방일 등이 보인다. 모두 진무성의 후손이다. 고흥에 최초로 입향한 여양진씨는 진무성의 증조부인 문(文) 시기로 이후 진씨 문중은 자작 일촌을 이루면서 터전을 마련하였고, 진무성 대에 이르러 크게 성장한 가문이다. 여양진씨 가계도를 다음처럼 간략히 정리하였다.

그림 7. 여양진씨 가계도



1. 고문서에 나타난 인물

1) 진계립(陳繼立)[진후평(陳後平)](1600~1668)

진무성은 5명의 아들 후평(後平), 후식(後寔), 후번(後蕃), 후국(後國), 후성(後誠)을 두었다. 장남 후평은 부친의 뒤를 이어 무과에 급제한 후 병자호란 때 부친과 함께 크게 공을 세워 벼슬이 흥양감목관(興陽監牧官)에 이르렀다. 차남 후식은 훈련원판관, 삼남 후번은 훈련원주부에 각각 제수되었다.

25) 화(滙)의 형 어사대부(御史大夫) 식(湜)과 아우인 예빈시경(禮賓寺卿) 온(溫)이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시로써 명성이 있었다(고려 시대 활동한 진화의 문집 『매호유고(梅湖遺稿)』 해제(解題) 참조(한국고전종합DB)).

26) 화(滙)의 장남 석(錫)은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냈고, 차남은 경(鏡)이다. 삼남 번(蕃)은 호부상서(戶部尙書)를 지냈으며 사남 보(普)는 소감(少監)을 지냈다(고려 시대 활동한 진화의 문집 『매호유고(梅湖遺稿)』 해제(解題) 참조(한국고전종합DB)).

무열사에는 진계립과 진후평의 고서가 전하고 있다. 족보를 확인하니 진계립은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진계립의 기록은 『호남절의록』에 있다. 병자호란 중 어가를 호종한 인물에 수록되어 있다.

- 진계립의 자(字)는 현백(賢白), 본관은 여양, 증판서(贈判書) 무성(武晟)의 아들이다. 병자호란(1636) 때 훈련판관으로 임금을 남한산성으로 호가(扈駕)하였다. 원두표(元斗杓)와 이시백(李時白)과 함께 성문을 나누어 맡아 지켰다. 적장의 칠성보검(七星寶劍)을 빼앗고 죽인 적이 매우 많았다. 공로로써 흥양(興陽) 감목관(監牧官)을 제수받았다. 참판(參判)에 증직되었다.

무열사에는 진후평의 흥양 감목관 고신이 있다. 따라서 진계립은 어느 시기인지 알 수 없으나, 1630년에서 1655년 사이 진후평으로 개명(改名)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계립[진후평]은 1630년 10월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여절교위(勵節校尉) 훈련원판관(訓練院判官)으로 임명하였다. 진계립은 군공을 세워 여절교위 훈련원판관에 임명되었다.

진후평[진계립]은 1655년(효종 6) 1월 어모장군(禦侮將軍, 정3품) 행충무위부호군(行忠武衛副護軍, 종4품)으로 제수되었다. 1658년(효종 9)에는 습독한위(習讀韓緯)에 재직하였다.²⁷⁾ 1666년 7월 5일에 진후평은 어모장군(禦侮將軍) 흥양감목관(興陽監牧官, 종6품)으로 임명되었다. 1655년 품계가 정3품인 그가 1666년 종6품의 흥양감목관에 임명되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고신의 모습이다.

그림8. 1630년 진계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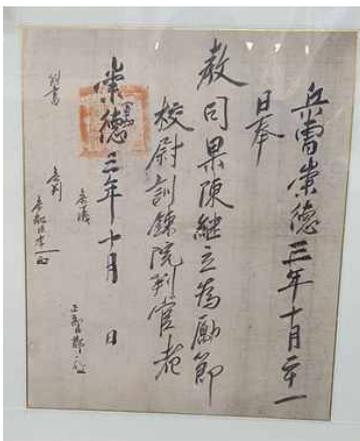


그림9. 1655년 진후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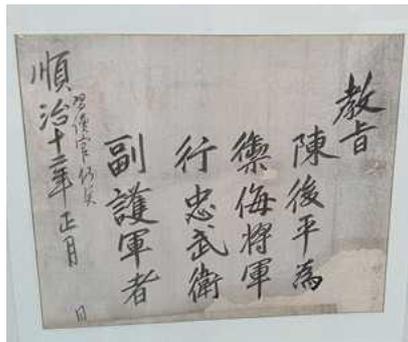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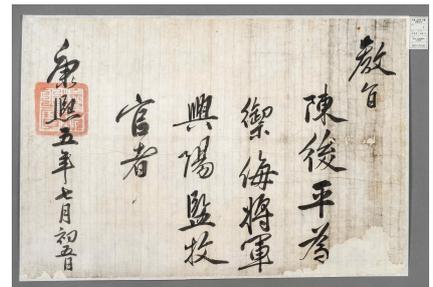


그림10. 1666년 진후평



흥양감목관은 흥양의 목장(牧場)을 관리하는 직이다. 흥양의 목장은 도양목장(道陽牧場)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1432) 전라도 장흥도호부에는 '목장이 2개소 있다. 도양곶(道陽串)은 국마(國馬) 421필이 있다. 우슬곶(弓瑟串)의 말은 134필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 시기에는 이 일대가 장흥부에 소속되어 있었다. 1441년(세종 23)에 흥양현이 되면서 도양곶과 우슬곶은 흥양현에 이속되었다.

27) 『승정원일기』 148책(탈초본 8책), 효종 9년 1월 7일 甲辰.

조선시대 국가 중요 정책의 하나인 마정(馬政)을 원활하게 지원해주었던 지역이 고흥이었다.²⁸⁾

홍양목장은 1436년(세종 18)에 설치되어 성종 때에는 1천 필이 넘는 말을 관리하던 곳으로 큰 목장이었다. 목장은 말을 키우는 것 이외에 전시(戰時)가 되면 둔전(屯田)이 설치되어 군량미(軍糧米)를 생산 조달하던 곳으로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보면 체찰사 이원익이 도양둔전의 작황을 보고 감격하였다는 내용이 나오기도 한다. 조선후기까지 고흥의 국영목장은 본장(本場) 도양과 속장(屬場) 절이도, 소록도, 득량도, 외나로도, 내나로도 등 곳곳에서 목장이 운영되었다. 진후평이 고흥전체의 목장을 관리하는 홍양감목관이었다.

『여지도서』(1759)에는 ‘도양목장은 둘레가 15리이다. 말은 65마리이며, 곡초는 3천 속이다. 소록도목장은 둘레가 5리이다. 말은 37마리, 곡초는 3천 속이다. 감목관은 음식으로 무관 6품이다. 군관 5명, 목리 27명, 지인 6명, 사령 12명, 목자 472명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²⁹⁾

목장은 지방에 주재하는 감목관으로 하여금 수개 소씩 관할, 감독하도록 하였다. 홍양의 목장을 관할 하여 말의 번식·개량·관리·조달 등의 일을 책임 감독하는 자는 감목관이다. 목장에 전임 감목관이 배치된 것은 목장의 설치 시기와 일치한다. 한때 지방의 수령에게 목장 관리를 맡겼으나 이들이 실무에 어두워 마정에 차질을 가져왔기 때문에 전임 감목관이 임명되었다.³⁰⁾

다음 1872년 홍양현지도를 보면 녹도진과 가까운 장기산 위쪽으로 목장이 표기되어 있으면서 목장에 관청이나 이에 딸린 관아가 있다. 도양장 대신 목장으로 표기되었다.

그림11. 1872년 홍양현의 목장 관청



그림12. 감목관 정청애민선정비 (1702년)³¹⁾



그림13. 감목관 조중대영세불망비 (1835년)³²⁾



28) 조선시대에는 말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다. 전마(戰馬)는 군사, 역마(驛馬)는 교통, 파발마(擺撥馬)는 통신, 타마(馱馬)·만마(輓馬)는 운반, 농마(農馬)는 농경, 구마(臼馬)는 제분, 교역마(交易馬)는 무역, 진헌마(進獻馬)는 외교에 각각 사용되었다. 따라서 마정은 다양한 용도의 말을 원활하게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29) 『여지도서』(1757)에는 목장조-도양장(道陽場) 서남쪽으로 40리에 있다. 감목관(監牧官) 1인. 속장 소록도장(小鹿島場)·절이도장(折爾島場)·시산도장(時山島場)·나로도장(羅老島場).

30) 남도영, 『한국마정사』,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1996, 220쪽.

31) 정청(鄭聽)은 홍양감목관으로 1700년 부임한다. 감목관정청애민선정비이다. 「監牧官鄭公聽愛民善政碑」[음기]「康熙四十一年壬午 月 日」(1702년)

32) 조중대는 홍양감목관으로 1776년 부임하여 1779년 이전에 임기가 끝난다. 이 비는 1835년 후 건립되었다. 감목관 조공중대영세불망비이다. 「監牧官趙公重垚永世不忘碑」[음기]「道光十五年乙未正月 日」(1835년)

현재 고흥군 도양읍 관리 관중마을 입구에 소재한 흥양목장 감목관 첩비 2기는 2019년 고흥군 향토 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다. 진후평의 흥양감목관 임명교지는 유일한 감목관 교지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학계와 문화재계에 소개된 감목관 교지로 유일한 사례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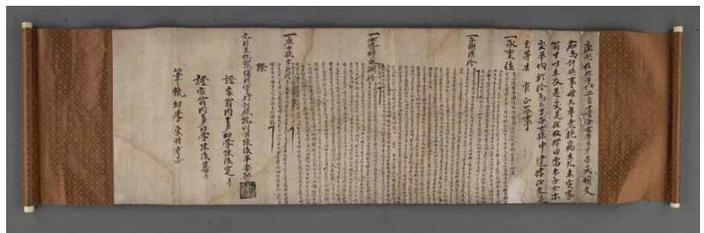
1671년(현종 12) 진무성의 아들 3형제 후평, 후식, 후변이 모여 재산을 분할하였다. 후국, 후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분재기(分財記)는 화회문기(和會文記)로 이미 진무성과 그의 부인이 사망한 후에 형제가 합의하여 재산을 분배한 내용이다.

1680년(숙종 6)의 분재기는 허여문기(許與文記)로 재주가 살아생전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것으로 진후평의 죽음 후 재주 하동정씨 부인이 필한(彌漢) 등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이다.

그림14. 1671년 진후평 3형제 분재기



그림15. 1680년 진후평 처 정씨 분재기



2) 진상한(陳相漢, 1628~1711)

진상한은 진후변(陳後蕃)의 아들, 진무성의 손자이다. 진상한의 교지, 고신, 혼서지 등 6점이 있다. 1676년(숙종 2) 과거에 급제한 진상한의 관직은 1681년(숙종 7) 1월 수문장(守門將)이다.³³⁾ 무열사 소장 고문서에도 진상한은 같은 해 1월에 선략장군(宣略將軍) 수문장, 12월에 소위장군(昭威將軍) 수문장에 임명되었다. 1680년(庚申)에 진후변은 장남 진상한의 혼인을 위해 사돈택에 보낸 혼서이다.

33) 『승정원일기』 281책(탈초본 14책), 숙종 7년 1월 27일 辛巳.

그림16. 1676년 흥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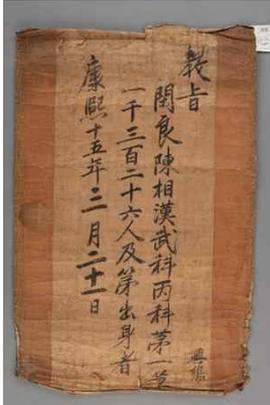


그림17. 1680년 혼서



그림18.
1681년 정월 고신



그림19.
1681년 12월 고신



이어 진상한은 1682년 3월 보공장군(保功將軍) 수문장, 6월 보공장군 행용양위부사과 무신검선전관(行龍驤衛副司果 武臣兼宣傳官)에 임명되었다.

그림20. 1682년 3월 고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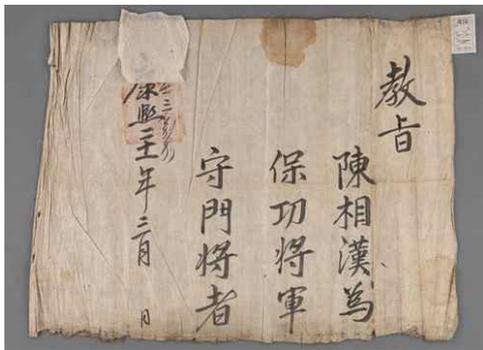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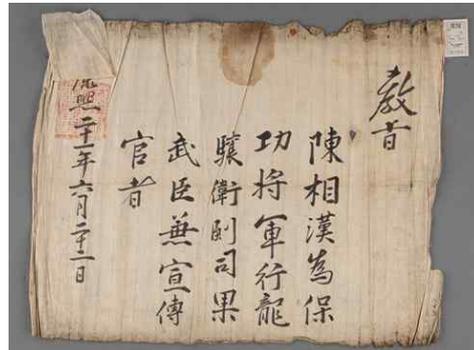


그림21. 1682년 6월 고신



1687년(숙종 13) 12월 진상한은 과영동권관(果永洞權管)의 관직에 제수되었다.³⁴⁾

3) 진만동(陳萬東, 1694~1750)³⁵⁾

진만동은 진상한의 아들로 교지, 고신, 분재기 등 9점이 전한다. 『호남절의록』에는 진익동(陳益東)으로 수록되어 있다. 자(字)는 인숙(仁淑), 한림(翰林) 화의 후손이고 증판서(贈判書) 무성(武晟)의 현손이다. 힘이 매우 셧다. 무신란(영조 4, 1728) 때 송팔응(宋八應)과 함께 창의하여 병사를 이끌고 운봉(雲峯)에 나아갔다. 적이 평정됨에 돌아왔다.³⁶⁾

진만동은 아버지를 이어 1723년(경종 3) 30세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진만동의 자(字)는 숙장(淑章), 아버지는 진상한은 고인으로 어모장군(정3품) 무신검선전관이다. 진만동의 형 진만갑(陳萬甲)이 있다.³⁷⁾

34) 『승정원일기』 326책(탈초본 17책), 숙종 13년 12월 26일 庚午.

35) 『여양진씨송계공파족보』에서 생몰년을 확인함.

36) 김동수 교감 역주, 「무신란(이인좌의 난)때의 의적」, 『호남절의록』, 경인문화사, 2010, 482쪽.

37) 『상지3년계묘토역정시별시문무과방목(上之三年癸卯討逆庭試別試文武科榜目)』(국립중앙도서관[古朝26-28-34]).

진상한의 고신 중 어모장군에 대한 것은 전한 것이 없다.

그림22. 上之三年癸卯討逆庭試別試文武科榜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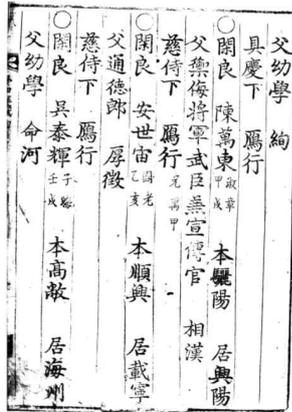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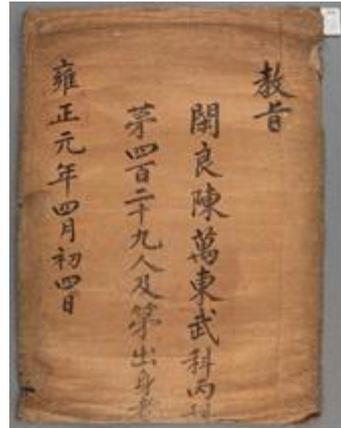


그림23. 1723년 진만동 홍패



1742년 진만동은 선략장군(宣略將軍) 행용양위부사과(行龍驤衛副司果), 1743년 어모장군(禦侮將軍) 행충무위부사용(行忠武衛副司勇), 1745년 어모장군 행충무위부사용, 1746년 어모장군 행충무위부사용, 1747년 어모장군 행훈련원주부(行訓練院主簿), 1748년 어모장군 행훈련원판관(行訓練院判官), 1750년 어모장군 위도진관(蝟島鎮管) 군산포수군첨절제사(群山浦水軍僉節制使)에 각각 임명되었다. 진만동이 수군진 군산진 첨사로 재임한 것은 증조부 진무성을 잇고 있다. 진만동에 관한 고신은 모두 7점이 전하고 있다. 그 외 1717년에 김석지(金碩砥)가 생질(生姪) 진만동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한 분재기가 있다.

그림24. 진만동 고신, 분재기

1742년 고신



1743년 고신



1745년 고신



1746년 고신



1747년 고신



1748년 고신



1750년 고신



1717년 분재기



4) 진만주(陳萬朱, 1721~1792)

진만주는 진후한의 아들, 진만동과는 사촌으로 족보에는 만중(萬鍾)으로 수록되어 있다.³⁸⁾ 1773년(영조 49) 2월 진만주를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임명, 같은 해 3월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6월 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行龍驤衛副護軍)에 임명되었다.

그림25. 1773년 고신



5) 진방일(陳邦一, 1737~?)

진방일은 진만갑의 손자, 진익화(陳益華)의 아들이다. 진방일의 무과 교지는 전하지 않으나, 당시 27세인 진방일은 1763년(영조 39) 계미(癸未) 증광시(增廣試)에서 병과(丙科) 97위(109/318)로 합격하였다.³⁹⁾ 진방일 초상화 초본과 관련 고신 10점이 전한다.

그림26. 계미대증광별시문무과방목

父幼學 益華	父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聖根
父納粟通政 興奎	父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聖根
父學生 命謙	父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聖根
父感下 鴈行	父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聖根
父良陳邦一 丁巳 本驪陽居興陽 元一所	父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聖根
	父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聖根

그림27. 진방일 초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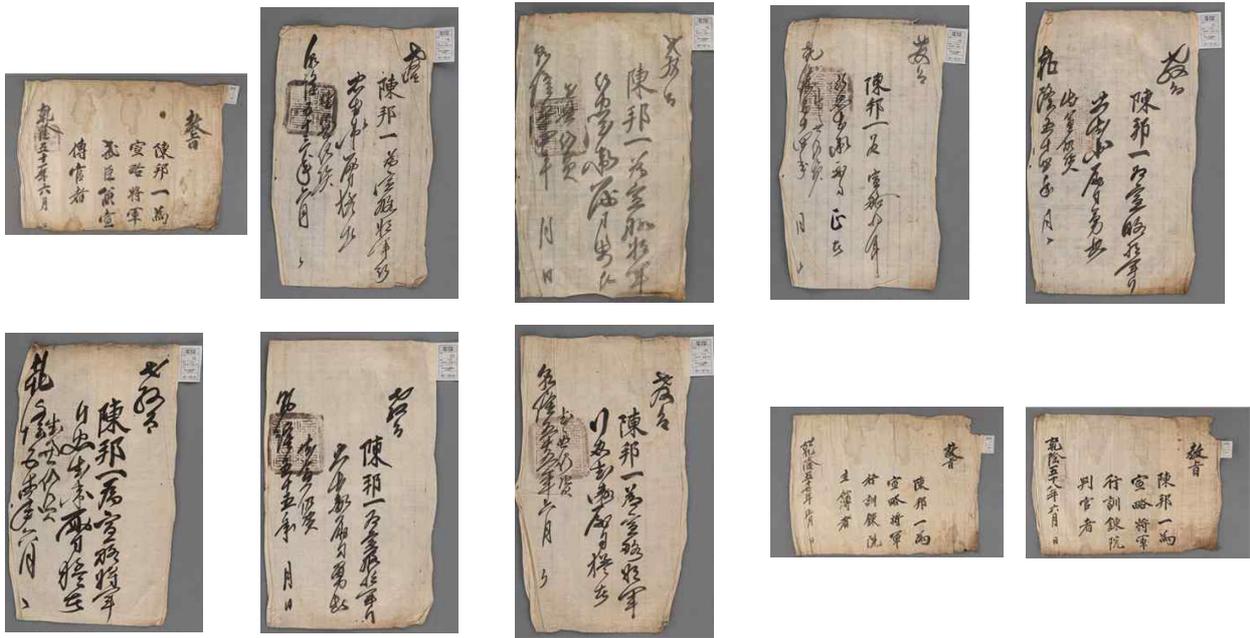


38) 『여양진씨송계공파족보』, 1988, 39쪽.

39) 『계미대증광별시문무과방목(癸未大增廣別試文武科榜目)』(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75]).

1786년(현종 47) 진방일은 선략장군 무신겸선전관,⁴⁰⁾ 1788년 선략장군 행충무위부사맹(行忠武衛副司猛), 1789년 선략장군 행충무위부사용(行忠武衛副司勇), 선략장군 행충무위부사정(行忠武衛副司正), 선략장군 행충무위부사용, 선략장군 행충무위부사맹, 1790년 선략장군 행충무위부사용, 선략장군 행충무위부사맹, 1792년 선략장군 행훈련원주부(行訓練院主簿), 1793년 선략장군 행훈련원판관(行訓練院判官)에⁴¹⁾ 임명되었다.

그림28. 진방일 고신 10점



1795년(정조 19) 8월 59세 진방일은 경상좌수영[울산]의 우후 관직에 제수되었다.⁴²⁾ 관련 고신은 무열사에 전한 것이 없으나, 『승정원일기』에 전한다.

고신 외에도 정조 임금의 진방일에게 내린 은사문(恩賜文) 2점이 전한다. 1786년(정조 10) 4월 정조는 수문장 진방일에게 소어(蘇魚, 밴댕이) 2급(級)을 내리며, 이듬해 1787년 3월 정조는 무신겸선전관 진방일에게 위어염(葦魚鹽, 웅어젓) 1급과 소어염(蘇魚鹽, 밴댕이젓) 1급을 하사하였다.

40) 朴天衡, 以兵曹言啓曰, …武臣兼宣傳官陳邦一(『승정원일기』 1612책(탈초본 86책), 정조 10년 10월 4일 甲辰).

41) 陳邦一爲判官(『승정원일기』 1718책(탈초본 91책), 정조 17년 6월 25일 丙戌).

42) 陳邦一爲慶尙左水虞候(『승정원일기』 1749책(탈초본 92책), 정조 19년 8월 10일 戊子).

그림29. 진방일 은사문

1786년 은사문



1787년 은사문



2. 고문서로 본 진무성의 현창

본 절에서는 진무성 사후 후손들의 현창 과정을 추증고지 2점과 통문(通文) 14점을 통해 정리해 보겠다. 무열사에는 다수의 통문과 『송계공실기(松溪公實記)』, 『무열사지(武烈祠誌)』가 소장되어 있으므로, 당시 고흥 내 유림과 후손들이 주력한 현창 내용을 살필 수 있다.

충신열사에 대한 현창은 제일 먼저 충신열사의 가족들을 돌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다음으로는 관직을 추증(追贈)하고 정려(旌閭)를 내리는 것이다. 충신열사를 현창하는데 증직(贈職) 다음 단계가 증시(贈諡)이다.

선조 때에는 임진왜란 충신 순절자를 우선 증직하였다. 사당 건립과 시호 추증은 인조·효종·현종 대에 이루어졌다. 1704년(숙종 30) 만동묘(萬東廟)가 인정되고 대보단(大報壇)이 건립되면서 충신열사에 대한 현창은 더욱 활발해졌다.

이러한 충신열사 현창은 1754년(영조 30) 훈신에게만 내리던 부조지전(不祧之典)을 절의지사에게도 내리면서 절정을 이루게 된다. 이는 정조·순조로 이어지면서 의정(議政)으로 증직하여 임금이 치제하고 부조지전으로 정하고 봉사손을 녹용하는 단계로 올라가면서 충신열사 현창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가 되었다.⁴³⁾

임진왜란 충신열사의 현창 과정에 비추어볼 때 진무성도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진무성은 1638년(인조 16) 운명을 달리한 후, 1647년(인조 25) 3월 6일 가선대부(嘉善大夫, 종2품) 호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오위도총부부총관(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 가증(加贈)되었다. 바로 이어 5월 15일 자헌대부(資憲大夫, 정2품)⁴⁴⁾ 호조판서겸지의금부사오위도총부부총관(戶曹判書兼知義禁府事五衛

43) 지두환, 「조선 임진왜란 충신열사에 대한 현창정책」, 『사학연구』 제100호, 한국사학회, 2010, 331~332쪽.

44) 정2품 이상은 시호를 청할 수 있는 품계이다.

都總府都總管)에 추증되었다. 무관으로서 최고의 증직이다.

진무성의 장남 진후평이 1655년에 어모장군의 품계에 있으므로, 진후평의 주도하에 문중의 열의로 진무성의 증직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림30. 1647년 3월 추증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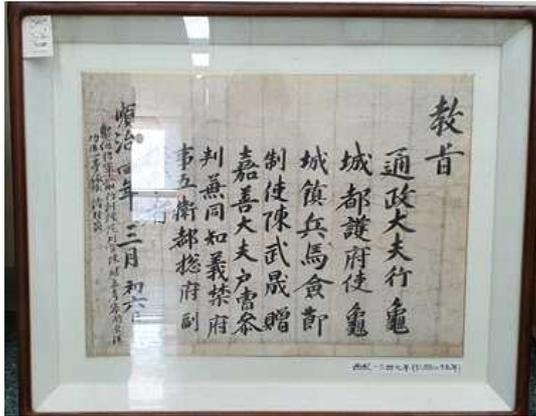


그림31. 1647년 5월 추증교지



진무성이 증직됨에 따라 정려 명정과 사당 건립, 시호를 청하는 것이 논의되었을 것이다. 무열사 소장 자료를 통해 정려 건과 관련된 내용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1826년(순조 26) 홍양현 대서면 상남마을에 용강사(龍岡祠)를 창건하여 진무성과 함께 창원박씨 박유원, 박태수, 박홍세 및 진무성을 배향하였다.⁴⁵⁾ 박태수(朴台首)는 진무성의 장인이다.⁴⁶⁾ 진무성 외에 창원박씨 문중의 인물들이 함께 배향되고 있었는데, 그간 양 문중의 위치 분쟁도 없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아마 복설과 동시에 분사(分祠)·추향한 것으로 추측된다.⁴⁷⁾

당시 호남 유생들의 통문은 정해년 4점, 경인년 3점, 신묘년 5점, 기묘년 1점, 시기를 알 수 없는 1점이 있다. 정덕선이 진주 충렬서원(忠烈書院)에서 활동한 시기를 근거로⁴⁸⁾ 통문이 발급된 정해년은 1827년, 경인년은 1830년, 신묘년은 1831년이다. 1826년에 용강사가 창건되었으니 이 무렵에 발급된 것이다. 통문을 발급한 곳은 나주·광주·남원·순천·진주 충렬사·진주 경림사·진주 은렬사·진주 신당사·홍양 윤곡사·홍양 제동사이며, 수취자는 홍양향교·홍양의 윤곡사와 제동사이다. 다음은 통문의 현황이다.

45) 『전고대방(典故大方)』 권4, 『서원향사록(書院享祠錄)』(1924).

46) 『여양진씨송계공파족보』에서 확인함.

47) 전라남도·목포대학박물관, 『전남의 書院·祠宇Ⅱ』, 1989, 28쪽.

48) 충렬서원은 임진왜란 때 진주성전투에 참가한 김시민(1554~1592), 김천일(1537~1593) 등 충의열사의 사우이다. 정덕선(鄭德善) 등 찬한 『충렬실록(忠烈實錄)』(1831)이 있다. 권1에는 1592년과 1593년의 두 차례에 걸친 진주성 전투에 관한 사적이 가장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 자료는 「수성기(守城記)」, 「함성기(陷城記)」와 계문이다. 이 중 「수성기」는 1차 진주전에 관한 내용으로 1592년 김시민이 경상우병사가 되어 7일간의 공방전으로 진주성을 사수한 사실을 「전성극적비명(全城卻敵碑銘)」과 『용사일록(龍蛇日錄)』, 『중흥지(中興志)』, 『정사천가승(鄭泗川家乘)』에서 해당 사료를 전거로 하였다. 「청증직소(請贈職疏)」에는 순절한 제장(諸將) 중에서 추증받지 못한 거제현령 김준민(金俊民) 등 21인에 대한 증직을 청하고 관기(官妓) 논개(論介)의 정표(旌表)를 청하는 소(疏)와 이들이 제향되던 사우의 사액을 청하는 병사(兵使) 최진한(崔鎭漢) 등의 12개 소가 수록되어 있다. 권2의 말미에는 정덕선이 찬하고 윤태권(尹台權)이 썼다고 밝힌 「사적간록기(事蹟刊錄記)」가 있어 1831년(순조 31) 1차 수집 자료의 편집 및 필사 주체를 알 수 있다(장서각 소장 『忠烈實錄』(K2-473) 해제 인용).

표 3. 무열사 소장 통문 현황

번호	발급시기	발급자본문	수취자본문	내용	인장	세로	가로	자료명
1	丁亥四月二十四日	發文 羅州 幼學 金科 等 17人	興陽鄉校	정해년 4월 24일에 金科 等 17인이 興陽鄉校에 보낸 통문 *형태사항:배접	羅州儒林 1顆 (흑약 70x50)	101.5	57.8	정해년 김두(金科) 등 통문(通文)
2	丁亥四月二十六日	光州 發文 幼學 柳在洪 等 9人	興陽鄉校	정해년 4월 26일에 柳在洪 等 9인이 興陽鄉校에 보낸 통문 *형태사항:배접	光州口口 1顆 (흑약 45x30)	104.1	68.8	정해년 류재홍(柳在洪) 등 통문(通文)
3	丁亥午月一日	南原 發文 幼學 安思訥 等 13人	興陽鄉校	정해년 5월 1일에 安思訥 等 13인이 興陽鄉校에 보낸 통문 *형태사항:배접		104.8	70.5	정해년 안사눌(安思訥) 등 통문(通文)
4	丁亥五月初四日	發文 順天 幼學 申義源 等 15人	興陽鄉校	정해년 5월 4일에 申義源 等 15인이 興陽鄉校에 보낸 통문 *형태사항:배접		109.4	67.1	정해년 신의원(申義源) 등 통문(通文)
5	庚 卍 (寅) 卍 (十)二月十五日	忠烈書院 發文 鄭德善 等 10人	鄉校	경인년 12월 15일에 忠烈書院 鄭德善 等 10인이 鄉校에 보낸 통문 *형태사항:배접		91.9	67.2	경인년 장덕선(鄭德善) 등 통문(通文)
6	庚寅十二月十日 卍(七日)	慶林書院 院任 柳旭 等 5人	鄉校	경인년 12월 17일에 慶林書院 院任 柳旭 等 5인이 鄉校에 보낸 통문 *형태사항:배접		105.4	66.4	경인년 류욱(柳旭) 등 통문(通文)
7	庚寅十二月十八日	殷烈書院 院任 尹弼大 等 7人	鄉校	경인년 12월 18일에 殷烈書院 院任 尹弼大 等 7인이 鄉校에 보낸 통문 *형태사항:배접		92.0	59.7	경인년 윤필대(尹弼大) 등 통문(通文)
8	辛卯二月十三日	雲院 發文 柳煥斗 等 11人	星院	신묘년 2월 13일에 柳煥斗 等 11인이 星院에 보낸 통문 *형태사항:배접		74.0	45.5	신묘년 류환두(柳煥斗) 등 통문(通文) 1
9	辛卯二月十三日	雲谷院 發文 柳煥斗 等 11人	齋院	신묘년 2월 13일에 柳煥斗 等 11인이 齋院에 보낸 통문 *형태사항:배접		73.3	46.1	신묘년 류환두(柳煥斗) 등 통문(通文) 2
10	辛卯二月十四日	齋院 發文 宋銓玉 等 17人	雲院	신묘년 2월 14일에 宋銓玉 等 17인이 雲院에 보낸 통문 *형태사항:배접		97.3	56.7	신묘년 송전옥(宋銓玉) 등 통문(通文)
11	辛卯二月日	申師泰 等 15人	雲院	신묘년 2월에 申師泰 等 15인이 雲院에 보낸 통문 *형태사항:배접		71.5	41.6	신묘년 신사태(申師泰) 등 통문(通文)
12		新塘書院 鄭昌善 等 5人	卍(鄉)校	통문 *형태사항:상단부외하단부일부훼손		86.0	63.2	정창선(鄭昌善) 등 통문(通文)
13	己未 卍 [三] 月日	松廣道會所 光州 幼學 朴必大 等 47名	松廣道會所	기미년 3월에 松廣道會所에서 興陽鄉校에 보낸 通文		105.7	84	기미년 송광도회소(松廣道會所) 통문(通文)
14	辛卯正月二十一日	校任 柳之燦 等 6名	忠烈書院, 卍 [新] 塘書院 卍 [慶] 林書院, 卍 [殷] 烈書院	신묘년 1월 21일에 柳之燦 等이 忠烈書院 等に 보낸 通文		94.7	66.8	신묘년 류지찬(柳之燦) 등 통문(通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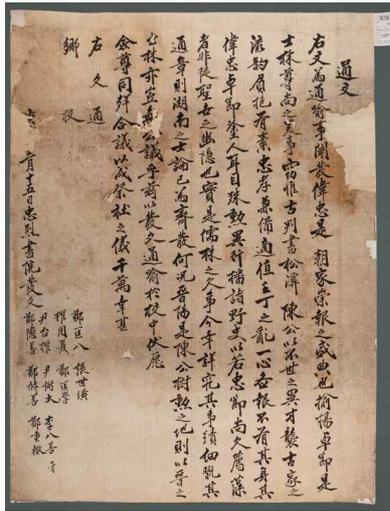
通文

통문 중 5번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렇다.

경인년(1830) 12월 15일에 충렬서원에서 향교에 보낸 통문⁴⁹⁾

그림32. 경인년통문

유물번호 73



通文.

右文爲通諭事. 闡發偉忠是朝家崇報之盛典也, 揄揚卓節是士林尊尚之美事. 竊惟古判書松溪陳公, 以不世之異才, 襲古家之流韻, 負抱有素, 忠孝兼備. 適值壬丁之亂, 一心圖報, 不有其身, 其偉忠卓節, 塗人耳目, 殊勳異行, 播諸野史. 以若忠節, 欠薦藻者, 非徒聖世之幽隱也, 實是儒林之欠事. 今幸詳究其事蹟, 細甄其通章, 則湖南之士論, 已爲齊發. 何況晉陽是陳公樹勳之地, 則以晉之士林亦豈非公議乎. 茲以發文, 通諭於校中, 伏願僉尊同聲, 合議以成祭社之儀, 千萬幸甚.

右文通

鄉校

庚寅[寅]二月十五日 忠烈書院 發文

鄭德善 尹台權 權用夏 鄭匡八 張世璜 鄭匡學 尹弼大 鄭赫善 鄭重轍 李八善 等

통문

다음은 통유(通諭)하는 일입니다. 큰 충절을 드러내 밝히는 것은 조정이 은덕을 갚는 성대한 의식이고, 높은 절개를 기리며 드러내는 것은 사람이 숭상하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고(故) 판서 송계 진 공(진무성)은 세상에 없는 남다른 재주로 오래된 가문에 전해지는 기품을 따랐으며 본래 포부를 가지고 충효를 겸비하였습니다.

때마침 임진·정유란이 일어나자 한마음으로 보답하기를 도모하여 자신의 몸을 생각하지 않았으니, 큰 충절과 높은 절개는 길 가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뛰어난 공과 남다른 행동은 야사에 퍼졌습니다. 이와 같은 충절이 있는데도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성세(聖世)가 숨어서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유림의 흠이 되는 일입니다.

지금 다행히 그 사적을 상세히 따지고 통장(通章)을 세세히 익혀서 호남의 사론이 이미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하물며 진양(진주)은 진 공이 공을 세운 곳이니 진주의 사림도 어찌 공의가 없겠습니까. 이에 통문을 보내 교중에 통유하니 삼가 바라건대 여러분께서 한 목소리를 내어 제사 의식을 갖추는 것에 합의하기를 천만 번 바랍니다.

향교에 통문을 보냄.

경[인] [1]2월 15일 충렬서원에서 통문을 보냄

정덕선 윤래권 권용하 정광팔 장세황 정광학 윤필대 정혁선 정중철 이팔선 등

앞의 통문은 영남의 유림들이 진무성의 애국충절을 기리기 위해서 돌린 통문이다. 공의 애국충정을 드러내어 제사하고 대대로 이어가자는 뜻, 임진왜란 때 공이 창의하여 의병들을 모아서 왜적들을 크게

49) 탈초와 국역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전 연구위원 이은진님.

물리친 전공, 공이 진주성에서 생사를 무릅쓰고 왜적들과 싸운 일, 진주 충렬사(忠烈祠)에⁵⁰⁾ 배향하고자 하는 뜻 등을 언급하였다. 후손들은 이 통문을 「서원통장」, 「영남유림급서원통문」으로 명명하고 진무성의 문집에 수록하였다.

다수의 통문은 1849년에 간행된 『송계공행적(松溪公行蹟)』에 실려있다.⁵¹⁾ 『송계공행적』은 모두 9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가승(家乘)」,⁵²⁾ 「행장(行狀)」, 「용사일기(龍蛇日記)」, 「칠성검운(七星劍韻)」, 「사장통문(四長通文)」, 「도통(道通)」, 「서원통장(書院通章)」, 「향교답통(鄕校答通)」, 「발(跋)」 순서이다. 서문은 1849년 경상좌수사 덕수이씨 이인희(李寅熙)가 짓고, 발문은 같은 해 후손 진종탁(陳宗鐸)·진달신(陳達臣)이 지었다. 「사장통문」, 「도통」, 「서원통장」, 「향교답통」이 그것이다.

1850년에 『송계공용사일기(松溪公龍蛇日記)』가 간행되었다.⁵³⁾ 「송계공행적서(松溪公行蹟序)」, 「행장」, 「송계공용사일기(松溪公龍蛇日記)」, 「칠성검운」, 「사장통문」, 「도통장(道通章)」 「영남유림급서원통문(嶺南儒林及書院通文)」, 「향교답통」, 「발」 순서이다. 『송계공행적』과 『송계공용사일기』의 서문과 발문의 찬자가 같은 것으로 보아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진무성의 행적과 소장 자료를 알 수 있어서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송계공용사일기』의 「송계공행적서」는 1849년 충무공 이순신의 후손인 경상좌수사 이인희가 썼다. 고려조의 호위대장군이었던 진충후로부터 내려오는 가계, 임진왜란 때 백의로서 이충무공을 곁에서 도우면서 함께 왜적을 토벌한 일, 선무일등공신에 훈록된 일, 병조판서에 추증된 일, 송계공의 7대손인 종순(宗淳)이⁵⁴⁾ 종탁과 유근 등의 사람을 보내어 서문을 부탁하여 써 주게 된 일 등을 적어 놓았다.

「행장」은 이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박명현(朴名賢)이 썼다. 제일 먼저 시조인 진충후, 예종 때 여양군으로 봉해진 12세조 진화, 한림학사를 지낸 6세조 진시우, 증장례원판결사인 아버지 진인해 등으로 이어진 가계 등을 언급하였다.

임진년 27세 4월 16일 왜적들이 쳐들어와 부산 동래를 함락할 때 이순신의 막하에서 백의로 막비(幕裨)가 된 일, 5월 4일 당포로 출격하고, 5월 7일 옥포로 출격, 5월 8일 월명포로 출격, 5월 29일 사천으로 출격하여 싸우면서 많은 왜적들의 목을 벤 일, 6월 1일 사랑으로 진격했다가 6월 2일 당포 앞바다에 이르러 적선 20여 척과 맞붙어서 누선(樓船)에 앉아 있던 왜장을 활로 쏘아 죽인 일, 6월 5일 우수사 이익기와 만나서 함께 고성에 이르러 왜선 26척을 만나서 왜장을 죽이고 적수 200여 급을 베고 왜적들을 익사시키고 일부의 왜적들을 육지 쪽으로 몰아낸 일, 6월 7일 영등포, 울포, 노랑포 등지로 출격하여 크게 이겼는데, 진주성이 함락된다는 소식을 대장 이순신이 알고 탄식하자 공이 분연히 일어나 죽음을 무릅쓰고 진주성으로 찾아 들어가서 이순신의 전령을 전하고 왜적들의 정세를 염탐하고 돌아온 일, 공이 진주성으로 들어갔을 때 의병장 김천일, 고종후, 최경희 등이 공과 악수하고 통곡하면서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갚아달라고 부탁한 일, 공이 진주성에서 돌아올 때 왜적 20여 명의 수급을 베서

50) 진주 창렬사(彰烈祠)를 이른 것 같다.

51)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신촌국학자료실 소장(청구기호 고서(II) 921.1 진무성), 1冊(20張).

52) 여양진씨 족보가 수록됨.

53)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신촌국학자료실 소장(청구기호 고서(I) 951.61 진무성 용-목).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https://library.yonsei.ac.kr>)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1冊(21張).

54) 진상한의 후손이다.

이순신이 있는 군막으로 돌아온 일 등을 언급하였다. 이는 임진왜란 당시의 기록을 근거로 보아 진무성의 행적이 1593년 6월 제2차 진주성전투에 집중되었다. 이것은 『이충무공전서』의 「홍양현지」, 『호남절의록』에서 비롯된다.

진무성은 1599년 무과에 급제하고 1605년 이순신 등 18인과 함께 일등공신이 되고,⁵⁵⁾ 특별히 경흥도 호부사로 임명되어 간 일, 1627년 정묘호란 때 대가(大駕)가 실수를 하여 강화도로 가려 했을 때 통제사 원균으로 하여금 그곳으로 급파하려 했으나 원균의 병이 위독하여 대신 공이 삼도의 전함을 이끌고 간 일,⁵⁶⁾ 강화도로 갈 때 바람이 심하여 미쳐 기회를 잡지 못하고 한밤이 되어서야 강구(江口)에 배를 댄 일, 이때 조정에서 공을 체포하라는 명이 장차 내려오자 공이 체포의 명이 내렸다면 반드시 가장이 왔을 것이라고 하면서 가장이 왔는지를 묻자 가장이 오지 않았다고 하자 위급한 때 거짓 사자(使者)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명을 들고 온 사람들의 목을 베려 한 일, 이 일을 임금이 뒤에 전해 듣고 그의 행동에 감탄한 일, 구성도호부사가 되었다가 고향인 송계(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로 돌아와 자호(自號)하고 은거한 일 등을 기록하였다.

「송계공용사일기」에 실려 있는 기록들은 주로 이항복과 김유의 『남관지(南關誌)』, 이순신의 『용사일기』 등에서 발췌한 것이다. 송계공의 휘는 무성, 자는 사규로 여양 사람이라고 했다. 어려서부터 지기가 뛰어나서 전진(戰陣)의 그림을 그리며 놀아서 아버지가 기특하게 여겨서 나무칼을 만들어준 일, 자라서 독서를 좋아하고 무예에 통하고 부모의 상을 당하여 3년 동안 곡을 하여 향리 사람들이 감탄한 일, 활 쏘기에 능통하여 마을에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가서 활을 쏘아 잡은 일, 팔영산에 올랐다가 한 노인을 만나서 장래에 크게 공을 세울 것이라는 말을 들은 일, 27세 되던 해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그해 4월 16일 왜적이 동래를 함락하자 백의로서 이순신 등이 출전하는 곳으로 가서 이순신의 막비가 되어 싸운 일, 사도첨사 김완과 발포만호 송희립⁵⁷⁾ 등이 5월 4일 당포로 출전했을 때 함께 싸운 일, 7월 7일 첨사 김완과 우후 이몽구, 만호 정운 등과 함께 왜적을 추격하여 영등포와 울포까지 갔다가 왜적 36명의 목을 베어 돌아온 일 등을 기록하였다.

1593년 2월 8일 좌별장 이엽과 우별장 이연량 등과 함께 선구가 되어 왜선 3척을 쫓아갔다 활을 쏘아 왜장을 죽인 일, 진주성을 돕기 위해 그곳에 갔을 때, 그곳에 있던 황진 등이 전사하여 아군의 사기가 떨어지자 몰래 성문으로 들어가서 김천일, 최경회 등을 만나서 결사투전하기로 한 일, 진주성이 함락되어 죽은 사람이 6만에 이르고 원균이 한산도에서 패전하고 이억기가 전사하게 되었을 무렵 공이 고금도로 가서 해로를 구축한 일, 이순신이 12척의 배로 벽파정 아래에서 왜적들을 크게 물리친 이리다시 고금도로 남하하여 이순신과 함께 녹도 앞에서 왜적들의 목 40급을 벤 일을 천조의 수군제독 진린이 알고 통제사 이순신에게는 경천위지의 재주가 있다고 하면서 심복인 진무성도 함께 칭찬한 일 등을 기록하였다.⁵⁸⁾

55) 필자는 2장에서 진무성은 선무원종공신 1등으로 책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56) 통제사 원균은 임진왜란 중인 1597년에 사망하였다. 1627년 정묘호란 당시의 통제사는 이수일, 우후 진무성임을 전술하였다.

57) 임진왜란 1592년 발포권관은 나대용이며, 송희립은 전라좌수사 이순신의 군관이다.

58) 임진왜란 1593년 진주성전투, 1597년 칠천량해전, 명량해전, 1598년 절이도해전 등이 섞여 기록되어 있다.

1597년 9월 16일 공과 첨사 김응함, 정운⁵⁹⁾ 등이 왜적들의 목 7급을 벤 일, 9월 20일 남해현령 류형⁶⁰⁾ 등이 공과 함께 당포에서 왜적들과 싸워 적장의 목을 벤 일, 10월에 적장 평행장이 대병을 이끌고 한산도를 지날 때 이순신과 함께 공격하여 적선 200여 척을 불태워 버린 일, 11월에 노량에서 이순신이 왜적들의 비탄(飛彈)에 맞고 쓰러지자 옆에 있던 공이 부축하여 장중(帳中)으로 들어갔는데 이순신이 지금은 전황이 급하니 자신의 목숨을 알리지 말도록 해서 조카인 완이 그 사실을 비밀로 했다가 왜적들이 물러난 뒤에야 그 일을 알고 일군(一軍)이 통곡한 일, 이순신의 죽음을 전해들은 진린 등이 곡을 한 일 등을 기록하였다.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 통제사 원균에게 군병을 통솔하도록 했을 때, 공이 중군통제사로 삼도의 전함을 이끌고 강화도로 나가 싸운 일, 구성도호부사겸 방어사로 삼은 일, 송계로 돌아와 산 일, 병조판서에 추증되고 홍양 용강사에 제향된 일 등을 기록하였다.

「칠성검운」은 진무성이 지은 7언 율시로 자신의 위국충절을 칠성검에 비유하여 읊었다.⁶¹⁾ 더불어 제현(諸賢)들의 차운 시 4편이 실려 있는데, 경양재 박기구(朴基珣), 박민수(朴民秀), 방손 진석민(陳錫民) 등이 지었다. 무열사에 칠성검이 전하였다.

「사장통문(四長通文)」은 진무성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서 나주, 남원, 광주, 순천의 사림 등이 올린 통문이다. 송계공 진무성이 부모의 상을 당하여 3년 동안 피를 토하여 여모살이를 한 일, 임진왜란 때 두 번이나 의병을 일으켜서 바다와 땅에서 크게 왜적을 물리친 일, 공의 공적을 공훈록에 실어서 천추토록 전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언급하였다.

「도통장(道通章)」은 전라도 송광도회소(松廣道會所)에서 돌린 통문이다. 여기에 서명한 유림은 다수이다. 진무성을 기리기 위해서 사당을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 때마다 제사를 올려서 백세의 공의(公儀)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 호남의 51개 마을의 유림 751명이 모여 공에 대한 경모의 마음을 기리게 된 뜻 등을 언급하였다.⁶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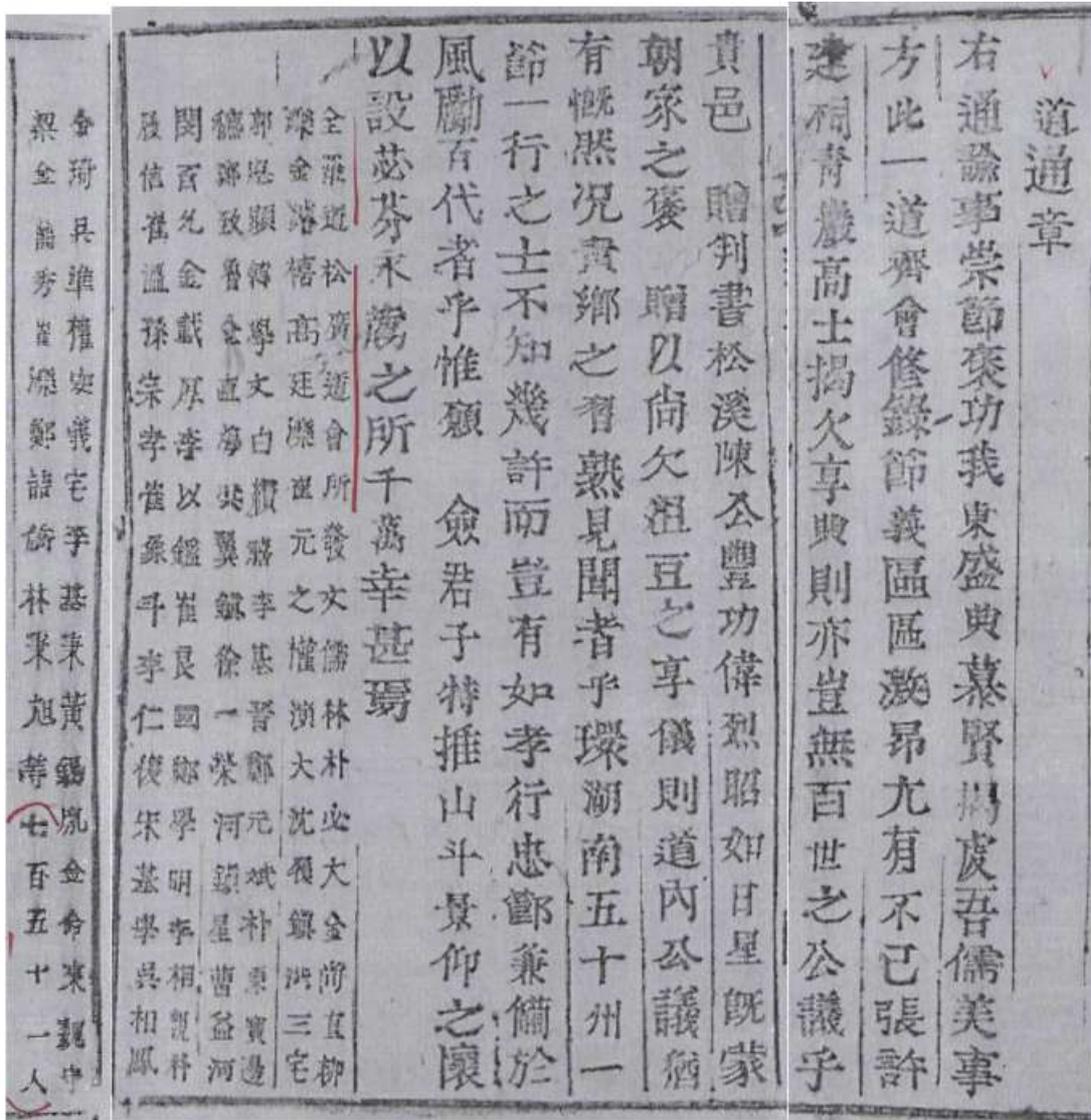
59) 녹도만호 정운은 1592년 9월 부산포해전에서 전사하였으므로 1597년 명량해전에 참전할 수 없다.

60) 류형은 당시 해남현감을 역임하였다.

61) 여양진씨 문중에는 칠성검이 전하고 있다.

62) 현재 이 통문은 무열사에 소장되어 있지 않다.

그림33. 『송계공용사일기』(1850)에 수록된 道通章[道通文]



「영남유림급서원통문」은 영남의 유림들이 진무성의 애국충절을 기리기 위해서 돌린 통문이다. 공의 애국충정을 드러내어 제사하고 대대로 이어가자는 뜻, 임진왜란 때 공이 창의하여 의병들을 모아서 왜적들을 크게 물리친 전공, 공이 진주성에서 생사를 무릅쓰고 왜적들과 싸운 일, 진주 충렬사(忠烈祠)에⁶³⁾ 배향하고자 하는 뜻 등을 언급하였다.

「향교답통」은 향양의 사람들이 송계 진무성의 충절을 기려서 천년의 사적으로 삼고 백대의 공의로 드러내고자 하는 뜻 등을 언급하였다.⁶⁴⁾

1826년 설립한 용강사는 1868년(고종 5) 철폐되었다. 1882년 현재의 위치에 복설하여 무열사라 칭하

63) 진주 창렬사(彰烈祠)를 이른 것 같다.

64) 이상 『송계공용사일기』 해제는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편, 『고서해제 12』(연세국학총서 51), 평민사, 2008, 33~37 쪽 참고.

였고 진무성을 단독 배향하였다.

그림34 1868년 류지영 등 上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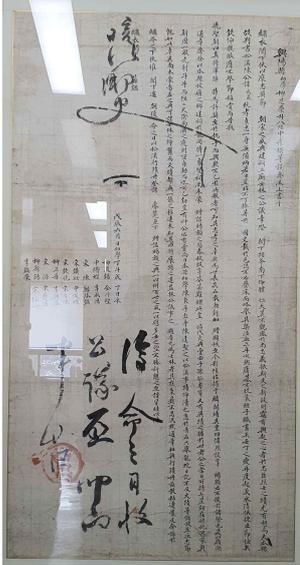


그림35 1884년 송원 등 上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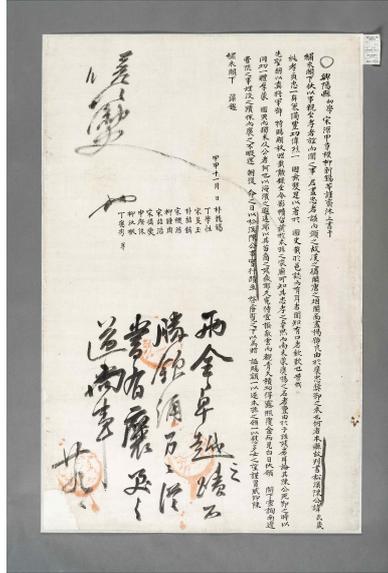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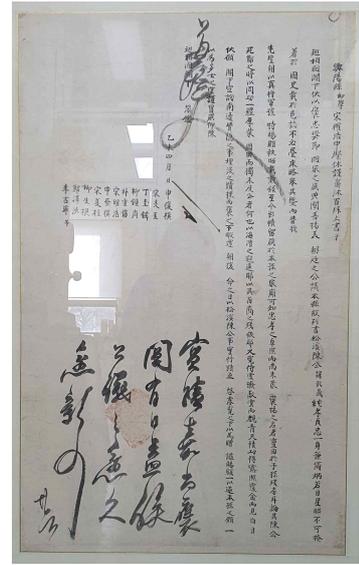


그림36 1895년 송권호 등 上書



위의 상서는 1868년과 1884년에 류지영(柳芝榮)과 송원(宋源) 등이 암행어사에게 진무성의 충절과 효성을 정리한 책을 점련하니 조정에 아뢰어 증시(贈諡)와 사액(賜額)의 은전을 속히 입게 해 달라는 내용이다. 마지막 것은 1895년 송권호(宋權浩) 등이 전라도관찰사에게 증시와 사액의 은전을 올린 상소이다. 전라도 관찰사는 실적은 가상하나 시일이 걸리니 공의(公議)를 기다리라고 판결했다. 30년 동안 고흥의 유림이 진무성에게 시호와 사우 무열사에게 사액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계속되었으나, 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무열사는 1941년 중건하였다.

1956년 『송계공실기(松溪公實記)』가 간행되었다. 『송계공실기』는 모두 15편의 글로 「실기서(實記序)」, 「감흥시(感興詩)」, 「하칠성검(賀七星劍)」, 「용사일기」, 「영당중수기(影堂重修記)」, 「무열사기(武烈祠記)」, 「저존재기(著存齋記)」, 「행적서(行蹟序)」, 「행장」, 「묘갈명(墓碣銘)」, 「통문」, 「도통문」, 「영남유림급서원통문」, 「향교답통」, 「발」로 구성되었다. 내용은 『송계공행적』을 잇고 있으며, 「영당중수기」, 「무열사기」, 「저존재기」, 「묘갈명」이 추가되었다. 송병화(1852~1916)가 묘갈명을 찬하였고,⁶⁵⁾ 1941년 무열사가 중건된 내용을 반영하였다.

1961년 『송계진무성장군사적(松溪陳武晟將軍史蹟)』이 간행되었다. 광주 무광사 충무회전남지부 노석경(魯錫徑) 지었다. 이 문헌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송계 진무성의 영정, 시호를 청한 통문, 1614년 진무성의 부친 인해에게 내린 교지 실물이 사진으로 수록되어 있다. 현재 이 2점의 유물은 전하지 않고 있으나, 1961년 책 발간 당시에는 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영정은 현재 무열사의 영정과 다르다. 진주 충렬서원에서 향교로 보낸 통문을 시호를 청하는 소장(訴狀)이라고 하였다.⁶⁶⁾

65) 송병화, 「호조판서송계진공묘갈명병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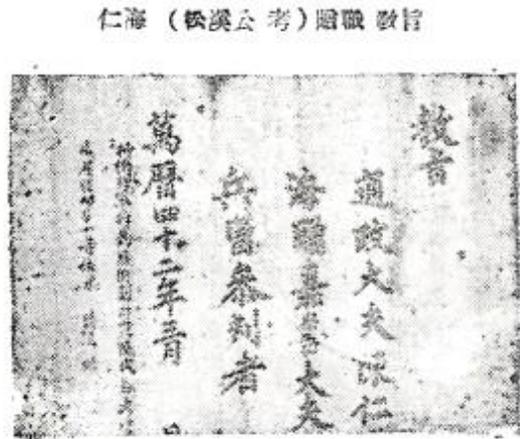
표지



그림 34. 『송계진무성장군사적』(1961)
진무성 영정



1614년 진안해 교지



마지막으로 1974년 『무열사지(武烈祠誌)』가 발간되었다.

지금까지 후손들의 선조 진무성에 대한 현창 과정을 정리하였다. 다수의 통문은 1800년대 중반 진무성의 시호를 청하고 사우의 사액을 청하는 글이다. 여기에는 당시 고흥 유림뿐만아니라 전라도와 경상도의 유림과 후손들이 주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IV. 무열사 소장 고문서의 가치

무열사에 배향된 진무성은 여양진시 시조 진충후의 11세손이다. 진무성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고흥 사도군관으로 1592년 당포해전에서 큰 전공을 올렸다. 진무성은 강화협상기에는 한산도 통제영에서 통제사의 장계를 갖고 조정 임금을 찾아보는 막중한 역할을 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1599년 무과에 급제한 진무성은 1605년 선무원종공신 1등에 녹훈되었다. 진무성은 1626년부터 1628년까지 삼도수군통제영의 우후 직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임진왜란 동안 사도군관으로 쌓은 군공과 경험이 삼도수군통제영 정착과 확대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지금까지 현전하는 여양진씨 5대[진계립[진후평], 진상한, 진만동, 진만주, 진방일]와 관련된 교지, 고신, 분재기, 은사문 등 고문서 41점과 통문(通文) 14점을 포함하여 총 55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양진씨 가문은 진무성을 포함하여 5대가 무반 가문으로 번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진무성을 비롯하여 무과 출신자로 진후평, 진상한, 진만동, 진방일이 배출되어 무관직을 수행하였다. 진무성의 후손들은 어모장군 외 절충장군의 품계로 수군 첨사, 수군 우후 직책 등에 제수되어 임진왜란 당시부터 1795년까지

66) 노석경, 『송계진무성장군사적』, 광주 무광사 충무회전남지부, 1961년, 13쪽.

약 300년 동안 고흥지역의 의향 지역성에 힘을 더하고 있는 가문이다.

한 무반가의 일괄문서라는 점에서 특히 전라좌도 흥양출신의 일가오대(一家五代)가 남긴 무관 사령장들이란 점에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크다.

특히 다수의 통문을 『송계공실기(松溪公實記)』에 수록하여 가문의 영광으로 삼았다. 통문을 통해 당시 고흥 내 유림과 후손들이 주력한 현창 내용을 추적할 수 있고, 고흥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전달하는 자료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자료>

『고려사』 『세종실록』 『선조실록』 『임진장초』 『난중일기』 『승정원일기』 『기해추별시방목』 『상지3년계묘 토역정시별시문무과방목』 『계미대증광별시문무과방목』 『이충무공전서』 『김봉만선무원종공신녹권』(전라남도 문화재자료) 『경상우수영도선생안』(해군사관학교박물관 소장품) 『전고대방』 『송계공행적』 『송계공용사일기』

<단행본>

진일화, 『송계공실기』, 1956.
이은상 국역 주해, 『이충무공전서』(하), 충무공사업회, 1960.
노석경, 『송계진무성장군사적』, 광주 무광사 충무회전남지부, 1961.
진수성, 『무열사지』, 1974.
『여양진씨송계공파족보』, 1988.
전라남도·목포대학박물관, 『전남의 書院·祠宇 II』, 1989.
고흥군·목포대학박물관, 『고흥군의 문화유적』, 1991.
남도영, 『한국마정사』,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1996.
안방준 지음, 안동교 국역 『(국역) 은봉전서(1)』, 보성문화원, 2002.
고흥군, 『임진왜란과 흥양 수군』, 200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편, 『고서해제 12』(연세국학총서 51), 평민사, 2008.
김동수 교감 역주, 「이순신의 참좌 제공의 사실」, 『호남절의록』, 경인문화사, 2010
박종평, 『(국역) 난중일기』, 글항아리, 2018.

<논문>

지두환, 「조선 임진왜란 충신열사에 대한 현창정책」, 『사학연구』 제100호, 한국사학회, 2010.

조선 후기 고흥지역 사우의 운영으로 본 선조 현양

박미선¹⁾

목 차

1. 머리말
2. 자료의 검토
3. 관련 가문과 향사 인물
4. 건립과 선조 현양 활동
5.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시대 서원은 16세기 중엽 양반사족들의 교육 기관이자 향촌기구로 설립되어 17세기 이후 붕당의 사상적 기반으로 곳곳에 설립되었다. 영조 17년(1741)에는 서원에 대한 각종 억제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18세기에도 서원과 사우의 건립이 계속되었다. 고종 8년(1871) 47개의 서원 및 사우를 제외한 모든 서원을 철폐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서원 건립은 일단 막을 내렸다가, 광복 이후 훼손되었던 서원과 사우의 복설이 이어졌다.

조선시대 서원은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일찍부터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²⁾ 그렇지만 고흥 지역의 서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2009년 재동서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그 배향 인물과 서원 건립 활동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³⁾ 이를 통해 재동서원의 출발은 고흥 향반들의 협력으로 건립된 雲谷祠에서 출발하였음이 밝혀졌다. 운곡사는 정조대 서원에 대한 금지 조치가 다소 완화되었던 18세기 후반에 설립된 문중서원이다.⁴⁾ 운곡사는 고흥지역 문중서원의 하나이지만, 건립과 분사 그리고 추배 과정 등에 나타난 재지세력의 동향과 가문 간의 역학 구조는 당시 향촌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조 현양

1)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2) 대표적인 서원 관련 저서는 다음과 같다. 선행 연구는 다음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鄭萬祚,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 丁淳睦, 『韓國書院教育制度研究』, 영남대출판부, 1979. ; 이해준, 『朝鮮後期 門中書院 研究』, 경인문화사, 2008. ;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 李樹煥, 『朝鮮後期 書院研究』, 一潮閣, 2002.

3) 윤희면, 「고흥 礪山 宋門의 충절과 齋洞祠」, 『해양문화연구』 2집, 2009.

4) 서원과 사우는 설립 목적과 기능에 따라 구별된다. 서원이 인재양성과 강학의 기능에 초점이 있다면 사우는 향촌의 공이 있는 인물에 대한 祀賢과 향촌의 교화에 목적이 있다. 또 鄉祀人도 서원은 도덕과 학문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우는 행의, 충절, 효열 등 일향의 존송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조선후기 서원, 사우에 존봉하는 인물에 구별이 없어지고 인재양성보다는 祀賢이 중시되면서 양자 사이에 구별이 점차 없어져 일반적으로 서원으로 칭해졌다. 또 서원과 사우를 합쳐 院宇, 院祠, 祠院이라고 부르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연구자들은 조선후기 사우를 서원의 범주로 묶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운곡사와 관련하여 현재 남아 있는 자료에는 ‘雲谷院’, ‘雲谷祠’, ‘院祠’ 등의 명칭이 확인되는 만큼 본고에서 운곡사를 지칭하는 일반명사로 서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필요에 따라 사우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양상에 드러난 특징을 파악할 수 있어서 주목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雲谷五賢行蹟』, 『雲谷院執綱案』, 『雲谷祠誌』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운곡사의 건립부터 배향 인물의 변화, 그 후손들의 활동 등을 통해 선조 현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⁵⁾ 이에 첫째, 본고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특성을 정리하고자 한다. 둘째, 운곡사에 배향된 인물과 가계의 특징을 검토할 것이다. 셋째, 운곡사의 건립과 배향 인물의 변천을 단계적으로 나누고, 후손들의 先후 활동을 가문 간의 관계망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자료의 검토

운곡사의 건립과 운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운곡오현행적』, 『운곡원집강안』, 『운곡사지』 등이 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는 현지 조사를 통해 운곡사 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한 바 있다. 이 중 ID 224, 225는 복사본으로 『운곡오현행적』과 『운곡원집강안』을 합본한 것이며, ID 244는 5장 분량이므로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雲谷五賢行蹟』(ID223), 『운곡원집강안』(ID226), 『雲谷祠誌』(ID 340) 등을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운곡사 관련 자료 서지사항〉⁶⁾

ID	書名	編著	版種	刊寫事項	형태사항	비고
223	雲谷五賢行蹟	未詳	筆寫本	未詳	不分卷1冊 ; 有界 ; 12行28字 ; 43.1×25.4 ; 線裝	1冊 49張
224	雲谷院五賢行蹟錄	未詳	複寫本	未詳	不分卷1冊 ; 有界 ; 12行28字 ; 39.1×26.3 ; 線裝	行蹟과 執綱案 합본
225	雲谷院五賢行蹟錄	未詳	複寫本	未詳	上同	上同
226	雲谷院執綱案	未詳	筆寫本	未詳	不分卷1冊 ; 有界 ; 4行字數不定 ; 44.5×27.3 ; 假綴	
244	興陽雲谷祠行蹟	未詳	筆寫本	未詳	不分卷1冊 ; 無界 ; 行字數不定 ; 無魚尾 ; 25.2×21.5 ; 假綴	5장
340	雲谷祠誌	-	新鉛活字本	1975 : 高興, 雲谷祠	3卷1冊 ; 有界 ; 12行28字 ; 上向二葉花紋魚尾 ; 28.7×19.4 ; 線裝	李圭憲

첫째, 『운곡오현행적』은 운곡사 건립 직후 배향된 성재 류탁, 서재 송간, 참의 송대립, 고주 정운희,

5) 본고는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조사 수집한 <高興 高興柳氏 忠正公(柳灌) 後孫家 所藏 資料> 중 『雲谷五賢行蹟』(ID 223), 『雲谷院執綱案』(ID 226), 『雲谷祠誌』(ID 340) 이외에도 『同會續錄』(ID 338), 『滄溟集』(ID 664, ID 665) 등을 검토하여 작성하였다. 자료를 제공해주신 한국학호남진흥원 여러 관계자 분들과 1991년 간행된 『雲谷祠誌』 자료를 제공해주신 송호철 선생님께 지면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6) 본 표는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조사 수집한 (2021-04-29) <高興 高興柳氏 忠正公(柳灌) 後孫家 所藏 資料>(2)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승지 송침 등 5인과 관련된 기록이다. 별도의 서문이나 발문이 없고, 편찬 시기도 기술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통문이 乙巳年 곧 1785년에 쓰인 것이므로, 이 기록이 아무리 빨라도 1785년보다 이르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목록은 오현 행적을 한 글자 높여서 쓰고 31개로 나누어 정리하였는데,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行蹟’, ‘祝’, ‘通文’ 등으로 나누어진다.

행적에는 5인의 활동에 대한 문헌 자료를 수록하였다. 류탁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 열전, 권근이 찬술한 비명, 이색의 『목은집』, 정몽주의 『초은집』 등에서 인물 관련 내용을 뽑았다. 송간의 행적은 黃景源(1709~1787), 洪樂命(1722~1784), 洪良浩(1724~1802), 林濟遠(1737~?) 등의 찬술문을 인용하였다. 송대립과 송침의 행장은 박광일의 문하에서 성리학을 깊이 있게 연구한 서산 유씨 柳乘(1677~?)이 찬술한 내용을 수록하였고, 李緯·俞拓基·朴弼周 등 18세기 노론 계열의 인물들에게 받은 묘갈명, 묘지명, 묘표 등이 정리되어 있다.⁷⁾ 이외에도 송침과 관련하여 李瑞夏가 편찬한 『南關誌』의 내용과 南泰著(1709~1774)가 제출한 「安邊南山驛戰亡處賜祭文」, 李義顯과 閔鎮遠 등의 충효전 발문 등을 수록하여 여산송문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정운희와 관련된 행적은 黃胤錫(1729~1791)이 지은 행장과 黃胤錫과 黃景源(1709~1787)이 찬한 「고주집서」 등이 수록되었다.

〈『雲谷五賢行蹟』의 구성과 항목〉

구분	목록	세부 목록
行蹟	誠齋柳先生行蹟	忠臣傳, 碑銘, 仕宦, 誠齋銘, 誠齋詩, 直宗寺記
	西齋宋先生行蹟	行狀, 墓碣銘, 墓誌銘, 狀誌後記
	參議宋先生行蹟	行狀, 墓碣銘, 墓誌銘, 墓表
	孤舟丁先生行蹟	行狀, 孤舟集序
	承旨宋先生行蹟	行狀, 墓碣銘, 墓誌銘, 墓表, 南關誌, 安邊南山驛戰亡處賜祭文, 忠孝傳, 傳後跋
祝	禮成祭祝	-
	兩丁祝	-
通文 및 上書	通文 本邑章甫上書	壬辰(1772) 3월 9일 羅州, 癸巳(1773) 2월 일 능주, 癸卯(1783) 본읍, 答通 癸卯(1783) 幼學, 通文 壬寅(1782) 幼學, 壬寅(1782) 幼學, 壬寅(1782) 羅州, 壬寅(1782) 광주, 癸卯(1783) 보성, 癸卯(1783) 장성, 本邑章甫上書 乙巳(1785) 正月日, 館學通文 壬寅(1782) 태학, 壬寅(1782) 광주, 壬寅(1782) 羅州, 壬寅(1782) 南原, 壬寅(1782) 全州, 壬寅(1782) 본읍, 癸卯(1783) 羅州, 甲辰(1784) 광주, 甲辰(1784) 瑞鳳 疏會時 도내 儒林, 乙巳(1785) 총 21건

축은 제사를 지낼 때의 축문인데 禮成祭祝과 兩丁祝이 수록되어 있다.⁸⁾ 통문은 1772년부터 1785년까지 총 21건이 실려 있다. 수록 순서는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통문을 보낸 지역은 나주, 능주, 광주, 보성, 장성, 남원, 전주, 성균관 등이며, 주로 사우 건립과 배향인물의 당위성에 대한 공론을 활성화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모든 통문에서 5인 모두를 일괄 배향해야 한다고 말하

7) 묘지명, 묘갈명, 묘표를 받기 위한 송지행의 행적에 대해서는 박미선의 「18세기 鄉班家の 묘비 건립 활동과 그 함의-고흥 여산송씨 가문을 중심으로-」(『남도문화연구』 38, 2019)를 참고하기 바란다.

8) 예성제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兩丁祝은 매년 두 차례 정일에 제사 지낼 때의 축으로 짐작된다. 『雲谷祠誌』에 따르면 매년 3월, 9월의 둘째 丁일을 제사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 있지는 않으며, 통문에 따라 각각 지지하는 배향 인물에 차이가 있다.

둘째, 『운곡집강안』은 1785년부터 1809년까지 운곡서원의 원장, 장의, 색장 등 원임직을 수행한 사람들의 명단이다. 원임은 서원을 운영하고 대표하는 직책으로 원장은 서원에 대한 일을 주관하도록 하였으며 실무로 유사를 두었다. 이 명칭은 당색에 따라 다른 용어로도 사용되었는데 서인계 서원의 원임은 원장, 장의, 색장, 별유사 등으로 규정되었다.⁹⁾ 『운곡사지』에는 원임을 원장 1원, 장의 1원, 색장 1원, 별유사 2원으로 규정하여 서인계 서원의 특성을 보였다.¹⁰⁾ 실제 운곡사의 운영에 있어서 별유사 명칭은 확인되지 않는다. 『운곡집강안』에서는 별유사는 없고, 원장 1, 장의 2, 색장 2~3인만 기록되어 있다.

셋째, 『운곡사지』는 1975년 간행되었으며 운곡사의 연혁, 운영, 배향인물 등을 수록하고 있다. 서문에 따르면 고흥류씨와 남양송씨 14인을 배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¹⁾ 『운곡오현행적』과 비교해보면 배향인물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자료이다. 『운곡사지』는 1책 3권이며 1975년 작성된 이규현의 서문과 고흥류씨 후손 류호석의 발문이 있다. 목록에는 23개의 항목이 정리되어 있는데, <별표 1>에서는 본문에서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은 2칸 아래로 들여 쓰는 것과 각 인물의 사적과 관련된 항목을 고려하여 정리하였다.

권1에는 위치, 연혁, 봉안문, 상향축, 복설봉안문, 복설상향축, 운곡사 창건 이후의 사실, 제사물품, 향사 의절, 원임선정, 제관선정 등의 내용이 정리되어 서원 운영과 향사를 파악할 수 있다. 『운곡오현행적』에는 빠져있는 송촌 송인, 어우 류몽인, 송암 류순에 대한 봉안문이 있어서 여산송문의 분사 후 향사 인물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1975년 기준의 운곡사 배향인물을 정리하였기 때문에 영광정씨와 관련된 봉안문을 확인할 수는 없다. 권2는 14인의 배향된 인물에 대한 事蹟이 정리되어 있는데, 『운곡오현행적』보다 성재 류탁에 대한 사적이 추가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영광정씨와 관련된 사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권3은 운곡사 중건기와 통문이 수록되어 있다. 통문은 1782년 운곡사 건립을 촉구하는 통문부터 1974년 전후의 통문이 수록되어 있다. 『운곡사지』의 통문 가운데 일부는 『운곡오현행적』의 통문과 중복되는데 『운곡오현행적』의 통문 중 고흥류씨와 관련된 통문만을 재수록한 것이었다. 이외에 추가로 송인, 류몽인, 류순 배향에 대한 통문이 추가되어 있고, 1961년 11월 고흥 향교의 연명으로 복설할 때의 통문에서부터 1973년까지 통문이 추가되어 있다. 류청신, 류습, 송순손, 류충신, 류충서, 송제, 송덕일, 송선, 송영, 류계 등을 배향하는 통문이었으며, 송선과 송영의 배향에 대한 연도 미상의 통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상 『운곡오현행적』과 『운곡집강안』은 1785년 운곡사 설립을 전후하여 이곳에 배향된 인물과 운곡사 건립 및 운영의 일단을 파악할 수 있다. 또 1975년 『운곡사지』는 그 후 운곡사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다만 1975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운곡사 복설시 빠진 영광정씨에 대한 내용은 파악할 수 없다.

9) 윤희면, 앞의 책, 189~191쪽.

10) 『雲谷祠誌』 卷 1, 院任選定.

11) 1961년 『고흥군지』에서 운곡사 배향 인물은 14인이었고, 1975년 『雲谷祠誌』에서도 14인을 배향하였다. 고흥류씨 柳滌을 추향하여 15인으로 늘어난 것은 그 이후의 일이 된다.

3. 관련 가문과 향사 인물

1785년(정조 9) 여산송문, 고흥류문, 영광정문이 함께 운곡사를 설립하고 이곳에 그들의 선조를 배향하였다. 그렇지만 1796년(정조 20) 여산송문이 서동사로 위패를 모셔갔고, 남양 송문의 인물이 추향되었으며, 광복 후 복설할 때에는 영광정문이 위패를 내어 안동사에 별도로 모시면서 배향인물도 변화되었다. 이에 먼저 배향 인물과 관련된 가문을 살펴보겠다. 이 가문들은 고흥의 대표적 성관 가문 중 4가문과 관련된다.

첫째, 여산송문은 고려 때 進士로 공을 세워 礪山君에 봉해지고 銀靑光錄大夫樞密院副使에 추증된 宋惟翹을 시조로 삼는다. 그 뒤 고려 원종 때 4대손인 宋松禮가 고려 무신정권기 林衍을 제거하는 공을 세워 여산송씨 가문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宋侃(1405~1480)이 고흥에 입향한 후 그 후손들이 고흥에 터를 잡게 되었다. 그 후 송간의 후손들이 무과에 응시하여 무반 가문으로 성장하였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에 연달아 큰 공을 세우고 순절하면서 고흥에서 중요한 성반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둘째, 고흥류문은 고려 개국 후 고흥의 戶長이었던 柳莢을 시조로 하고, 그의 7세손 류청신이 고려 충선왕 때 판밀직사사를 거쳐 삼한삼중대광도첨의정승에 올라 고흥부원군에 봉해졌으므로 貫鄉을 고흥으로 하게 되었다. 이후 그의 자손들은 음보로 관직에 나아가 사신 활동 및 무공을 세워 조선 초 가문을 명문의 위치로 올려놓았으며 임진왜란 때 참전하여 순절하여 고흥의 중요 성반이 되었다.

셋째, 영광정문은 그 시조가 당나라에서 대승상을 지낸 丁德盛으로 무관을 지낸 丁旼과 그의 손자이며 공민왕 때 밀직부사와 서북면 병마사를 지낸 丁贊으로 이어진다. 조선시대에는 상춘곡으로 유명한 丁克仁이 있는데, 세종대에 불사를 자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부당함에 항의하다가 귀양을 가기도 했고 후에 태인으로 낙향하였다. 그의 두 아들 중 둘째 아들 七賢은 進士로 세조 때에 고흥으로 이거하여 고흥에 터를 잡았다. 칠현의 아들 丁性도 進士試에 합격하여 3대가 연속으로 소과에 올랐던 만큼 고흥에 입향할 때에 명문가문으로 입지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¹²⁾

넷째, 남양송문은 시조가 당나라 사람으로 고려에 귀화한 奎라고 하며, 고려 때에 그의 후손 進이 戶長을 지냈다. 진의 후손 公節의 아들 琛이 남양군에 봉해져서 그 후손이 남양으로 본관을 삼았다. 『南陽宋氏世譜』에 의하면 1783년 흩어져 있었던 자료를 모아 草譜를 만들었고 1801년 족보를 발간하였으며, 고흥 지역과 관련해서는 안동파, 서호파 등이 확인된다. 다만 안동파, 서호파 등의 계파가 모두 운곡사 배향 인물들로부터 파가 나누어진 만큼 고흥지역과 관련한 선조의 역사는 자세히 기록하기 어렵다.¹³⁾

이상 운곡사 관련 가문을 살펴보았는데 향사 인물은 1785년에는 운곡사가 건립될 때 함께 배향된 송간, 송대립, 송침, 류탁, 정운희 등 5인이었다. 여산송문의 분사된 1796년 이후에는 류탁, 정운희 2인 이외에 시차를 두고 5인이 추향되었다.¹⁴⁾ 류몽인, 류순, 정걸, 정덕주 등 고흥류씨, 영광정씨와 새롭게

12) 이육, 「정걸장군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그 가문」, 『명장 정걸장군』, 고흥군 국립순천대학교박물관, 2015, 29~31쪽.

13) 『南陽宋氏世譜』.

14)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남양송씨 송인이 추가된 것이었다. 그리고 1960년 복설시 영광정문 3인이 빠지고 이후 고흥류씨 5인과 남양송씨 5인이 추향되었다.

〈운곡사 향사 인물의 변화〉

구분	礪山宋氏	高興柳氏	靈光丁氏	南陽宋氏	합계	비고
1785년 (정조 9)	宋侃1405~1480	柳濯1311~1371	丁運熙1566~1635		5	-
	宋大立 1550~1597					
	宋諶1590~1637					
1796년 (정조 20) 이후		+柳夢寅 1559~1623	+丁傑1516~1597	+宋寅1356~1432	7	*여산송문 3인 빠짐 *추향시기는 차이 있음
		+柳淳	+丁德輔1711~1795			
1960년 이후		+柳淸臣?~1329		+宋順孫?	14	*영광정문 3인 빠짐 *1975년 이후 柳濼 추향
		+柳濕1367~1439		+宋悌?		
		+柳忠信		+宋德駟 1566~1616		
		+柳忠恕		+宋瑄1550~?		
		+柳溪		+宋瑛?		

운곡사의 배향자는 절의, 충절 등이 뛰어난 인물이거나 신원을 통해 복권된 인물이 주를 이루었다. 첫째, 절의의 덕목이 강조되며 향사된 인물로는 여산송씨 송간, 남양송씨 송인, 송순손 등이 있다. 송간은 세종 때부터 벼슬을 하여 문종, 단종 3대에 걸쳐 주요 관직을 역임하고 병조참판에 이른 인물이다. 1455년(단종 3)에는 都鎭撫로 호남지방을 순무하였는데, 당시 단종이 강원도 영월로 유폐되어갔다는 소식을 듣자 벼슬을 버리고 여산으로 가서 은거하였다. 단종이 죽자, 3년 상을 마치고 고흥 마륜촌의 서쪽에 거처하였다. 그의 이러한 행적은 후세에 재평가 되었다. 정조가 사육신에 대한 복권을 허락하자 송간의 행적이 端宗에 대한 節臣으로 재평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宋寅은 운곡사에 고려말 충신이고 두문동 72인의 한사람인 남양송씨의 중시조였다. 고려를 위한 군은 절개가 있었고, 또 정몽주, 이색, 이숭인과 사우의 관계였다고 한다. 宋順孫은 생원으로 한훤당 김굉필에서 글공부를 하였는데, 의를 지키고 뜻을 굽히지 않고자 몸을 피해 숨은 곳이 바로 흥양의 서호였다. 이후 벼슬에 나가지 않고 도를 깨우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였다.

둘째, 충절의 덕목을 강조하여 향촌에 귀감이 되어 향사된 인물을 들 수 있다. 홍건적, 왜구 등을 격퇴하거나 임란, 호란 등의 전쟁에 참전하여 군공을 세운 인물들이다. 운곡사에 배향된 많은 인물들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

여산송문의 인물로는 송대립, 송침이 있다. 송대립은 송간의 6대손으로 정유재란 때에 전공을 세우고 전사한 인물이다. 그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창의하여 이순신 휘하에서 큰 공을 세웠다. 정유재란 때에는 倡義別將으로서 고흥 첨산에서 왜군에 대비하였다. 하지만 고흥 망제도에서 왜선을 수색하고 왜군을

섬멸하며 유인하던 중 왜군의 조총을 맞고 전사하였다. 그 후 송대립의 군공과 충절이 높게 평가되어 선무원종공신 1등에 녹훈되었다. 宋謙은 송간의 7대손이자 송대립의 셋째 아들로 정유재란 때 아버지가 전사하자 그 복수를 위해 어려서부터 무예를 연마하여 하여 1614년(광해군 6) 무과에 급제하고, 인조반정 이후 수군통제사 具宏(1577~1642)의 천거로 선전관이 되었으며, 1635년에는 함경도 홍원현감이 되었다. 그리고 1636년 북병사 李沆(?~1637), 남병사 徐佑申 휘하의 척후장으로서 청군 소속의 몽고병을 추격하여 安邊 南山驛에서 前後營將과 함께 공격하다가 결국 전사하였다(정축의 변). 아버지에 대한 복수로 무예를 연마하여 나라를 위협하는 청군을 공격함으로써 아버지와 국가에 대한 ‘충효’를 실천한 인물로서 평가되었다.

고흥류문의 인물로는 류순, 류습, 류충신, 류충서, 류계 등이 있다. 류순은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에 임금을 호종하고 곡식을 운반한 공으로 宣武原從勳에 策錄되었고 종부시 주부가 되었다. 광해군 때에는 北風詩를 지어 族姪 류몽인에게 전하고 바로 낙향하여 은거했다. 柳濕은 류탁의 아들로 태종 때 原從功臣이 되어 육조의 典書를 역임한 후 전라, 충청, 평안도의 都節制事를 지냈다. 賀正使로 명나라에 다녀오고 1419년(세종 1) 右軍元帥로 對馬島 정벌에 참전하여 공을 세웠다. 柳忠信은 1564년(명종 19) 蔭補로 부사직이 되고, 1570년 무과에 급제하여 군기시 주부로 있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순신의 막하에 들어가 많은 전공을 세웠다. 柳忠愨은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으로 의주로 파천하는 왕을 호종했고, 행주성전투에서 공을 세웠고, 군량미를 조달하여 선무원종공신에 책록되었다. 柳溪는 1592년(선조 25) 季父 류충서를 따라 왕을 의주로 호종했으며 그 후 권율과 이순신의 막하에서 활약하여 宣武原從勳에 올랐다.¹⁵⁾

영광정문에는 정운희, 정결 등이 있다. 丁運熙는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이순신을 도와 군량미를 후원하고 의병을 모집하였으며, 효행과 학행도 뛰어났다. 丁傑은 무과에 급제한 후 을묘왜변, 임진왜란 때에 많은 전공을 세웠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까지 전라우수사를 역임했던 정결은 고흥에 머물면서 전라좌수사 이순신의 요청으로 조방장이 되었고, 전라좌도 수군이 전선 건조와 무기 제작 등의 준비를 할 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 부산포 해전에 직접 출전하여 일본 수군을 격파하고 대승을 거두는 전공을 세웠다.

남양송문의 인물로는 송계, 송덕일, 송선, 송영 등이 있다. 宋悌는 젊은 나이에 벼슬에 올라 발탁되었고, 임진왜란 때 왕을 모셨으며 호서지방에서 의병을 일으켜 싸우며 적을 사로잡아서 포상을 받았다. 宋德駟는 젊은 나이에 훈련참정이 되어 임진왜란 때 왕이 서해로 피난할 때 배행하였다. 또 왜적을 물리치는데 힘써서 병사로 특별히 제수되기도 하였다. 宋璵는 기묘한 전술로 정유재란 때 적을 물리쳤으며, 宋瑛은 6년 동안 양친의 묘 옆에 여막을 치고 지냈다. 또 무과에 급제하여 주부 벼슬을 제수되었으며 왕이 서해로 피난 갈 때 모셨다. 이순신의 막하에서는 적과 싸워 많은 공을 세워서 원종공신으로 표창되었다.

셋째, 신원, 또는 복권된 인물로는 류몽인, 류청신 등이 있다. 류탁은 고려 말 대신으로 흥건적 격되

15) 가장 늦게 추향된 柳溪는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국왕이 파천 소식을 듣고 이순신의 진중에서 방책을 내어 돕던 중 불행히 중도에서 죽었다.

에 공을 세웠으며, 공민왕에게 노국대장공주의 影殿을 크게 신축하는 것을 반대하는 간언을 올렸다. 이후 신돈의 일파로 몰려 죽음을 당하였지만 조선이 건국된 후 이성계가 그를 特進輔國高興伯으로 추증하고 忠靖이라는 시호를 부여받아 복권되었다. 류몽인은 광해군 대에 廢母論에 가담하지 않아 1623년 인조반정 때 화를 면했으나 柳應時的 告變으로 아들 淪과 함께 사형되었다. 이후 정조 때 伸冤되고, 이조판서에 추증되어 제향의 대상이 되었다. 류청신은 여러 번 원나라에 使臣으로 다녀왔고, 外交에 능했다. 충렬왕의 총애를 받았으며 왕의 특명으로 고향인 高伊部曲이 高興縣으로 승격되는데 기여하였다. 1308년 高興君에 封해졌으며, 1321년(충숙왕 8) 正朝使로 元나라에 가서 1329년(충숙왕 16) 73세로 죽었고 『고려사』 간신전에 입전되었지만, 조선 태조 때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조선후기 가문의 복권 작업을 통해 운곡사에 배향되었다.

4. 건립과 선조 현양 활동¹⁶⁾

1) 운곡사의 건립

조선시대 서원은 지방관을 통해 중앙에 보고하여 임금에게 허락을 얻거나, 儒林이 예조에 상소하여 국왕의 허락을 받아서 설립되었다. 고흥 지역에서의 사우 건립은 후자에 해당하였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서원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공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했다. 고흥 지역 사우의 건립에 대한 儒林의 공론은 이미 1770년대부터 형성되고 있었다. 즉, 나주와 능주에서 1772년, 1773년 각각 1차례씩 도합 100명이 송대립과 송침 부자의 충절에 대해서 향사를 해야 한다는 공의가 조성되었다.¹⁷⁾ 그렇지만 당시 사우의 건립까지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그 후 1780년대 접어들어 다시 고흥지역의 서원 건립에 대한 공론이 활발해졌다. 17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송대립, 송침 부자에 대한 충절이 사우 건립의 논리로 작동하였지만, 1782년(정조 6)에는 단종에게 절의를 지킨 생육신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국가적 의제가 되면서 고흥에서도 서원 건립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¹⁸⁾ 특히 성균관 거재 유생 한덕보 등이 5월 송간을 주향으로 하는 사우 건립을 촉구하며 호남지방에서도 공론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당부하면서 전라도 전역에서 공론화 될 수 있었다.¹⁹⁾ 광주, 나주, 남원, 전주 등에서 100명 이상의 유생들이 뜻을 함께 하여 송간의 사우 배향에 동참했다.²⁰⁾

16) 여기에서는 『雲谷五賢行蹟』과 1975년 『雲谷祠誌』를 통해서 고흥 향반들의 선조의 현양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안동사로 분사한 영광정씨와 관련하여 『雲谷五賢行蹟』에 기록된 정운희에 대한 기록만 확인하였으며, 영광정문 후손들의 현양활동은 정리하지 못하였다. 즉 여산송문, 고흥류문, 남양송문 후손들의 선조 현양활동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7) 『雲谷祠誌』 卷 3, 通文 壬辰 3月 9日. ; 癸巳 2月 日.

18) 『정조실록』 권 13, 정조 6년 5월 을유.

19) 『雲谷五賢行蹟』, 通文, 壬寅(1782) 太學 進士 韓德普

20) 『雲谷五賢行蹟』, 通文, 壬寅(1782) 光州 幼學 崔雲之 ; 羅州 進士 金之獐 ; 南原 儒林 李景煥 ; 全州 儒林 蘇洙

이때에는 송간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들의 배향도 함께 논의되었다. 류탁의 절행과 불교 배척 및 관향 등을 근거로 나주, 광주의 유생들이 통문을 올려 공론이 만들어졌다.²¹⁾ 고흥읍에서는 유생들이 류탁, 정운희를 병향하는 것이 적합한지 향교 齋會에서 논의하였으며, 또 금탑사에서 齋會를 할 때 류탁, 정운희, 송대립, 송침 등의 향사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하였다.²²⁾ 송간과 병향할 인물들에 대한 당위성은 통문으로 계속 이어졌다. 1783년에도 류탁의 배향에 대한 보성 유생들의 통문이 이어졌고,²³⁾ 고흥읍의 유학이 정운희 배향을 촉구하였다.²⁴⁾ 송대립, 송침의 제향을 고흥읍 통문에서 발의하였고 나주에서도 송간, 송대립, 송침 등 조손 3대를 한 실에서 제사지내도록 통문을 발의하였다.²⁵⁾

이런 과정을 통해 여산송문의 송간, 고흥류문의 류탁, 영광정문의 정운희가 일단 확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1784년, 1785년 도내 유림 및 광주의 유생이 보낸 통문의 내용을 보면 “류탁, 송간, 정운희의 절의를 드러낼 사우를 영건하는데 송대립, 송침 부자의 쌍절을 함께 제향 할 것”을 촉구하는 공론을 형성하고 있어서,²⁶⁾ 송대립 송침 부자의 향사는 마지막까지 공의를 모으는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원의 건립은 장성, 나주, 광주의 유생의 통문으로 볼 때, 1784년 秋丁 전까지 완성되기를 촉구하였지만,²⁷⁾ 1785년까지도 흥년이 계속되고 물력과 인력이 부족하여 건립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²⁸⁾ 그렇지만 당시 고흥현감이었던 崔守魯 등의 협조로, 두원면 운곡리 운람산 기슭에 운곡사가 건립되기에 이르렀다.²⁹⁾

이상 서원이 건립될 때까지 생산된 21건의 통문이 발의된 시기와 그 대상을 검토하여 운곡사 건립 과정과 향사 인물이 확정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송간→송간, 류탁, 정운희→송간, 류탁, 정운희, 송대립, 송침’ 등으로 배향 인물이 확정된 공론의 움직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송대립, 송침에 대한 통문이 7건으로 1770년대 2건의 통문을 제외하고도 5건이 운곡사 건립 직전까지 작성되어 가장 마지막에 합의에 도달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2) 운곡사의 분사와 추향

운곡사의 건립 후 세 가문이 함께 향사를 지내는 기간이 길지는 않았다. 운곡사 창건 이후의 사실을 살펴보면 “12년 후 병진년 송씨를 재동으로 이향하였다. 송인, 류몽인, 정걸, 류순, 정덕주를 추가로 배향하였다.”라고 하였다.³⁰⁾ 1796년 봄 여산송문은 따로 떨어져 나갈 것을 결정하고 그해 가을 운곡사 講

集：本邑 章甫 申應澤.

21) 『雲谷五賢行蹟』, 通文, 壬寅(1782) 羅州 進士 吳時裕；光州 幼學 柳匡國.

22) 『雲谷五賢行蹟』, 通文, 壬寅(1782) 本邑 幼學 申道活

23) 『雲谷五賢行蹟』, 通文, 癸卯(1783) 寶城 幼學 朴致鳳；長城 幼學 金敬徹；羅州；光州 柳宗坤.

24) 『雲谷五賢行蹟』, 通文, 癸卯(1783) 本邑 幼學 朴挺畝

25) 『雲谷五賢行蹟』, 通文, 癸卯(1783) 幼學 申漢檜；羅州 吳赫源

26) 『雲谷五賢行蹟』, 通文, 甲辰(1784) 道內 儒林 朴寅鎮；乙巳(1785) 光州 進士 朴夏鎮

27) 유생의 통문으로 볼 때 1783년 또는 1784년으로 생각되는데, 1785년 통문에서 이전에 보낸 문서에서 秋丁 전까지 완성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볼 때, 1785년에서 가까운 1784년이 아닐까 생각한다.

28) 『雲谷五賢行蹟』, 通文, 癸卯(1783) 長城 幼學 金敬徹；羅州；광주 柳宗坤；乙巳 正月日；本邑章甫上書

29) 『雲谷祠誌』 권 1, 沿革. 位置. 광복 후 1960년 고흥군 고흥면 호산리 수덕산 남쪽 기슭에 건립하였다.

30) 이 기록으로 보면 분사의 시점이 1797년이 되어야 할 것 같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재동서원지』를 바탕으로 정리

堂을 헐고 門牆을 거두어 갔다.³¹⁾ 여산송문은 송간의 유지인 동강면 마륜리 서재골에 터를 잡아 헐린 강당의 자재로 사우를 건립하고 송간, 송대립, 송침의 위패를 따로 봉안하였다. 이에 고흥류씨와 영광정씨 후손들이 매우 통탄스럽게 여겼다. 특히 강당은 강학을 하는 곳으로 儒風이 넘치는 곳인데 여산송문과 의견이 갈리어 결국 강당과 문장을 훼손해 내어가자 서원의 풍모가 황량해 진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³²⁾ 그 후 윤곡사는 1798년이 되어서야 강당 중수를 착수할 수 있었다.³³⁾

그렇다면 여산송문은 왜 분사하였던 것일까? 이후 송간에 대한 국가적 추송의 과정을 보면 윤곡사에 서의 권위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분사의 이유가 오히려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 까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1791년(정조 15) 성균관 사성 成種仁이 생육신과 같은 인물로 송간 등을 영릉에 배향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상소를 올려 송간의 포장이 거론되었고, 1792년(정조 16) 정조가 영릉으로 행차할 때 송간에게 증직과 시호를 올려달라는 상소가 고흥 생원 박찬민 등에 의해서 올라가서,³⁴⁾ 1793년 이를 예조가 검토한 후 정조가 허락하여 송간의 시호가 忠剛으로 정해지고 의정부좌참찬에 증직되었다.³⁵⁾ 송간에 대한 증직과 시호라는 추송의 일련의 흐름으로 보면 여산송문의 분사는 너무 뜻밖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광해군 때의 문신이었던 류몽인의 신원에 따른 추배의 움직임이 여산송문의 분사 시기와 대체로 일치하여 주목된다. 류몽인은 1623년(인조 1)에 무고로 억울하게 처형되었다가 170여 년이 지난 1794년(정조 18) 그의 7대 방계 후손 西部 幼學 류화의 상언으로 신원 가능성이 열렸다. 그리고 류몽인의 관작 회복은 국왕 정조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겠다.

1794년 정조는 류몽인 후손 류화의 상언으로 류몽인의 관작을 회복시켜 주도록 분부하였지만 의금부는 류몽인의 관작 회복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정조는 다시 대신들과 의논하도록 하였다. 판중추부사 박종악은 류몽인의 활동이 광해군과 입장을 달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을 위해 절의를 다한 것을 가지고 역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므로 신원해 줄 것을 아뢰었다. 반면 판중추부사 김희는 류몽인이 대북파와 입장이 달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인조반정에 적극 동조하여 참여하지 않고 은거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신원을 반대하였다. 이에 대해 정조는 류몽인의 신원이 공론이며, 그가 광해군 때에는 은거하여 正道를 지켰고, 반정 후에는 절의를 지켰다고 하여 높이 평가하며 신원할 것을 명령하였다.³⁶⁾ 이러한 류몽인의 신원에 대해서 정조는 여론을 살피면서도 류몽인의 죽음은 불사이군의 의리 때문이라며 死六臣과 같다고 평가하였다.³⁷⁾ 또 정조는 그의 충절과 절개가 生六臣 김시습과 같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류몽인에게는 판서의 벼슬을 추증하고 시호를 내리도록 하고, 아들 류약은 복관하고, 조카 유찬에게는 당상관 3품의 벼슬을 추증도록 하였다. 또 몰수한 류몽인의 재산을 돌려주도록 분

한 연구에서 1796년을 분사시기로 보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우선 1796년으로 정리하였다. 향후 『재동서원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31) 『滄溟集』 卷5, 「書雲谷祠尋院錄後」.

32) 『滄溟集』 卷7, 「雲谷院講堂重建開基祝(戊午)」.

33) 『滄溟集』 卷5, 「雲谷書院講堂重修上樑文(戊午)」.

34) 윤희면, 앞의 논문, 28쪽.

35) 『정조실록』 권 38, 정조 17년 12월 경진.

36) 『정조실록』 권40, 정조 18년 5월 무술. ; 『일성록』, 정조 18년 5월 12일.

37) 『일성록』, 정조 18년 5월 12일 ; 『정조실록』 권40, 정조 18년 5월 무신. ; 『일성록』, 정조 18년 5월 22일.

부하고 방계의 친족 중에서 嗣孫을 정하여 제사를 받들도록 지시하였다. 그 결과 류몽인에게는 이조판서가 추증되고 조카에게는 이조참의가 추증되었으며, 아들 류약은 修撰의 관직이 회복되었다.³⁸⁾ 1796년(정조 20) 4월에는 류몽인에게 義貞이라는 시호가 내려짐으로써 류몽인은 완전한 신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³⁹⁾

불과 1년 전 송간에게 생육신과 같은 절의를 이유로 시호와 증직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뒤이어 류몽인의 정치적 복권이 이루어진 것이다. 류몽인은 정조에 의해서 사육신, 생육신과 같은 인물로 호명되었고 신원이 되어 추증까지 되자 고흥지역의 유생들이 먼저 통문을 통해 류몽인을 추향하자는 공론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볼 때 류몽인을 운곡사에 추향하는 문제에서 비롯된 불만이 여산송문의 분사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류몽인의 추향과 관련해서 당시 공론은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었는지 궁금하다. 먼저 1795년 류몽인이 고흥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그가 은거하던 때에 지은 정자 감로정이 호산에 위치에 있으므로 그의 위패를 모셔야 하는 곳이라는 여론이 만들어졌다.⁴⁰⁾ 류몽인과 그의 아들이 죽어 그의 제사를 지내주는 사손을 찾아야만 했던 상황에서 그의 흔적이 남은 곳은 고흥뿐이었으므로 이곳에 사당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다.⁴¹⁾ 그 해 9월에는 향교의 장의와 유사도 같은 논리로 추향을 촉구하였다.⁴²⁾

이러한 공론이 고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지만 논의가 제기된 1795년 바로 그 해에 류몽인의 위패가 운곡사에 배향하였는지는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1797년에도 류몽인의 위패를 추배해야한다는 공의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全州에서는 성균관에서 이미 사당을 세우라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류몽인의 영정을 다른 곳이 아닌 고흥에 모시는 것이 당연하며 위패를 봉안하는 도리로서 영정을 배향하는 의례를 상고하도록 하였다.⁴³⁾ 南原의 통문에서도 영정이 고흥에 있고, 성재 류탁의 사당이 고흥에 있으므로 그의 위패를 그 선조의 사당에 추배하는 일이 조금도 늦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며 아직까지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다.⁴⁴⁾ 광주에서도 특이한 충절이 있으면 사당을 세워 제사를 모시며 추모하는 마음을 새기는 것이 선비들의 공의라는 의견을 내었고,⁴⁵⁾ 羅州에서도 류몽인을 수양산 백이와 매월당 김시습에 비유하며 공의에 따라 선생의 영혼을 운곡사에 모시는 것이 매우 다행한 일이 될 것이라는 통문을 보냈다.⁴⁶⁾ 이러한 통문의 내용과 류몽인의 진영봉안문, 위패봉안문 등을 통해 볼 때, 진영은 1795년 봉안되었고, 위패는 그보다 늦는 1799년에 봉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⁴⁷⁾

한편 남양송씨 송인의 추향도 이루어졌다. 송인이 추향된 이유는 고려말 태조가 조선을 건국할 때 은거하여 손수 은행나무를 심고 자신의 호를 행정이라고 하고 지조를 지켰기 때문이다. 두문동의 제현들

38) 『정조실록』 권40, 정조 18년 9월 갑인. ; 『일성록』, 정조 18년 9월 30일.

39) 『정조실록』 권44, 정조 20년 4월 계미

40) 『雲谷祠誌』, 通文, 乙卯 2월 17일 宋基守

41) 『雲谷祠誌』, 通文, 乙卯 윤 2월 10일 정효삼

42) 『雲谷祠誌』, 通文, 乙卯 9월 장의 李

43) 『雲谷祠誌』 卷3, 通文, 丁巳(1797) 11월 10일 全州 金之元

44) 『雲谷祠誌』 卷3, 通文, 丁巳(1797) 11월 15일 南原 李奎煥

45) 『雲谷祠誌』 卷3, 通文, 丁巳(1797) 12월 20일 광주 柳在淵

46) 『雲谷祠誌』 卷3, 通文, 丁巳(1797) 12월 羅州 崔翊東

47) 『雲谷祠誌』 卷1, 奉安文, 於于柳先生眞影奉安文 ; 於于柳先生位牌奉安文.

은 영조 때 모두 포양되었지만 송인만이 문혀서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영남 지역의 고령 문연서원의 도회소에서 통문을 발송하였다.⁴⁸⁾ 광주에서도 두문동 72인에 해당하는 송인을 포양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⁴⁹⁾ 남원에서도 송인 추향 논의를 다행스럽게 여겼다.⁵⁰⁾ 이러한 전라도 고을에서의 공론이 계속되고, 고흥지역에 송인의 후손이 대대로 살아가므로 제향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고흥 유생 임택의 발의도 이어졌다.⁵¹⁾ 송기일도 다른 두문동 제현들과 달리 제향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석해 하면서 송인이 생장한 곳이며, 그 자손들이 대대로 벼슬하며 살아온 땅이므로 제향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를 향교에서 모여 빨리 논의가고 제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⁵²⁾ 이러한 통문들이 작성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송인을 모시는 봉안문을 1803년부터 1805년 재임하였던 현감 崔時淳이 찬술하였고, 송인을 합향하는 고유축이 계해년 1803년 작성되어 이 시기에 운곡사에 배향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⁵³⁾

류순의 배향에 대한 통문은 1832년이 되어서야 등장하였다. 모두 고흥 유생이 발의한 것이었다. 류순은 대대로 고흥에 살며 성품이 효자이고 시문을 잘 지었고 1592년 임진왜란 때 임금이 피난갈 때 모시고 따라갔으며 선천에서 군량을 운송하여 행주대첩을 이룩하는 일이 있었다. 국가의 위태로움을 보면 죽기를 맹세하는 등 충의정신을 갖추었다. 1597년 정유재란에 이충무공을 찾아가 전략을 계획하여 전공을 세웠고, 권율의 추천으로 선무원종공신으로 기록되었다. 광해군대가 되어서는 고향산천으로 돌아와 낚시하여 은거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통문이 발의되었다. 특히 그를 운곡사에 배향하는 예절이 늦어져 당시 선비들이 한탄하였는데, 1832년이 바로 임진주갑이 되므로 도내의 선비들이 통문을 발의 한 것이었다.⁵⁴⁾ 따라서 이러한 통문이 발의된 이후 류순의 배향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1796년 여산송문이 운곡사의 강당과 문장을 헐어 분사한 후 추향된 인물들은 일시에 추향된 것이 아니라 향촌 사회에서 인정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공론을 통해 각각 개별적으로 합향되었던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봤던 1803년 작성된 송인의 봉안문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즉 “이제 운곡사에 네 분 선생님을 蕉黃禮로써 함께 모시게 되어 좋은 날을 받아 이 사당에 모시나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으로 볼 때, 1803년까지는 4인을 합향하였으며, 각 추향 시기에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인물 배향을 위한 경합과 연합

이러한 운곡사의 건립과 인물의 향사는 어떤 한 주체 단독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국가적으로 인물에 대한 신원이나 추송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서 전국 유림의 합의된 공론이 형성되어야 하며, 지방관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었다.⁵⁵⁾ 자연스런 공론이 형성되었을 때 향촌 사람들이 자발적

48) 『雲谷祠誌』 卷3, 通文, 嶺南 高靈 文淵書院 都會所

49) 『雲谷祠誌』 卷3, 通文, 光州 高廷胤

50) 『雲谷祠誌』 卷3, 通文, 南原 進士 金聖求

51) 『雲谷祠誌』 卷3, 通文, 本縣 林垞

52) 『雲谷祠誌』 卷3, 通文, 本縣 宋基一

53) 『雲谷祠誌』 卷1, 奉安文, 松村宋先生生畝告由祝 ; 松村宋先生奉安文

54) 『雲谷祠誌』 卷3, 通文, 壬辰(1832) 윤 9월 19일 本縣 宋振玉; 윤 9월 22일 本縣 宋夏相

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 그렇지만 향촌의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운곡사에 류탁을 배향할 때에도 봉안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포함되어 동의를 얻기 쉽지만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의 동의를 얻지 못하다가 여러 곳에 글을 보냈더니 일제히 일어나 성의를 표시해왔고 어진 선비가 있어 그 한마디 말에 많은 동조자가 있어 묘우를 세우고”⁵⁶⁾

서원에 인물을 배향하기 위해서는 그 인물의 ‘行蹟’, ‘事蹟’이 公議에 합당하여 公論을 얻어야 하는 것이었다. 인물에 대한 공인된 행적과 사적은 국가의 공식적인 기록이나 명망가가 찬술한 인물의 업적에 대한 평가였다. 향반은 자신들의 능력과 수완을 통해 선조의 행적에 대한 기록물을 확보해야 했다. 조선후기 중앙 관료의 진출이 더욱 좁아진 상황에서 향촌 양반의 家格을 놓고 여러 가문들의 경합할 때 이러한 기록물의 확보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운곡사 건립 이전에 고흥에서 이러한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였던 가문이 바로 여산송문이었다. 『운곡사지』에 수록된 선조들의 行蹟과 事蹟에 대한 기록물은 송정악, 송지행, 송석년 3대에 걸친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송대립, 송침의 직계 후손들은 선조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기 전부터 그들을 추모하는 행위를 하였다. 송침의 손자인 송협은 쌍충정려를 세웠고, 송정악의 조부인 송문상은 자신의 호를 이우당이라고 하여 송대립과 송침을 죽게 만든 원수 왜와 청을 일상생활에서 잊지 않고 기억했다. 이러한 가풍은 송정악, 송지행, 송석년으로 이어졌고, 당대의 명사이자 스승이었던 이재를 비롯한 노론 명문가들에게 선조들의 행적에 대한 글을 받을 수 있었다. 송정악의 이러한 실천은 18세기 중반의 사회 속에서 구조화된 행위였지만, 동시에 향촌사회에 권위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었다.⁵⁷⁾

고흥류문과 남양송문에서도 선조의 현양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힘을 쏟았던 단서들이 포착된다. 먼저 고흥류문에서는 류탁의 행적을 『고려사』, 권근, 이색, 정몽주 등의 문집에서 뽑아냈다. 류몽인의 사적은 그의 신원을 위한 류화의 상언, 류영도의 상언과 그에 대한 답변서로 정리하였다. 류순의 사적은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여 遺事를 남기고, 또 최몽암에게 찬술을 요청한 遺事를 수록하였다. 또 류순의 후손인 柳重益, 柳敬根이 힘을 쏟아 吳震泳이 묘갈명을 찬술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흥류문 후손들 가운데에서 19세기 초반 류일영의 활동이 주목된다. 1785년 당시에는 운곡사에 추향되지 못하였지만 고이부곡을 고흥현으로 승격시킨 류청신의 행적을 행장으로 정리하였고,⁵⁸⁾ 1804년

55) 지방관의 협조와 관련하여 고흥지역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지방관의 봉안문 찬술이다. 崔守魯는 1785년 4월 20일 誠齋 류탁의 봉안문을 찬술하였고, 송촌 송인의 봉안문은 崔時淳이 찬술하였다. 최시순이 1803년에서 1805년에 고흥에서 재임하였고, 松村 송인의 舍享告由祝이 계해 12월 15일 찬술되었던 것으로 볼 때 1803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於于 류몽인의 진영봉안문은 1793년에서 1795년 재임한 朴宗正이 1795년 2월 진영화상 봉안문을 찬술하였다. 류몽인의 위패 봉안문은 1799년 8월에 작성되었다. 松庵 류순의 봉안문은 고흥현감 朴載寬이 1832년 10월 찬술하였다. 『雲谷祠誌』 卷1, 奉安文, 松村宋先生舍享告由祝 ; 松村宋先生奉安文 ; 於于柳先生眞影奉安文 ; 於于柳先生位牌奉安文 ; 松庵柳先生奉安文.

56) 『雲谷祠誌』 卷1, 奉安文, 誠齋柳先生奉安文.

57) 박미선, 앞의 논문 참고 181~204쪽. ; 박미선, 「조선 후기 기행일기(紀行日記) 『서행록(西行錄)』의 편찬 배경과 구성」, 『역사학연구』 75, 2019, 2장 서행록의 편찬 배경 참조.

58) 『雲谷祠誌』 卷2, 信菴柳先生事蹟, 行狀.

고흥류씨 족보가 편찬될 때에는 류일영이 류금, 류성진 등과 함께 송시열의 후손인 宋煥箕에게 족보의 서문을 지어줄 것을 청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기 때문이다.⁵⁹⁾ 선조의 행적에 대한 조사와 기록을 통해 고흥지역 향반으로서의 고흥류문의 뿌리에 대한 역사성을 재정립해 간 것이었다.

한편 남양송문에서는 송인의 묘소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비석도 부서져서 고증할 문헌이 없어 행적을 정리하기 어려웠지만 수집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송인의 생졸과 관직을 참고할 수 있는 비석을 찾아냈고,⁶⁰⁾ 호남과 영남 지역의 후손들이 힘을 모아 묘표를 작성하였다. 묘표는 15대손 啓彌과 陽彩 등이 宋煥箕에게 부탁하여 작성하였다.⁶¹⁾ 그들은 또 이를 수정 보완하여 李得秀에게 행장 찬술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비록 믿을만한 자료를 찾지는 못하였지만 후손 光龍, 奎眞 등이 역사책을 뒤져 선조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였다.⁶²⁾ 金甯漢에게는 神道碑銘을 받고, 그의 유고를 모으고 『대동시화』에서 용담에서 고기잡이 노래, 『동현보감』에서 이색, 정몽주, 이승인과 도의적 교류가 있었다는 내용의 野史抄 등을 정리하고, 송인을 제사 지내는 장성군 경현사, 개성 두문사 등의 봉안문까지 수록하였다.

이와 같이 고흥 내에서 각 문종의 개별적인 노력을 통한 선조 현양의 경합 양상이 운곡사 건립과 운영의 추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경합만으로 서원 건립과 운영이 가능했던 것은 아니며 고흥 향반들의 관계망 속에서 맺어진 가문간 연합이 서원 건립의 중요한 요소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살펴본 자료가 바로 운곡사 원임을 정리한 『운곡원집강안』과 동회 기록인 『(금답사)동회속록』이다. 『운곡원집강안』이 운곡사의 건립과 운영에 관여한 공식적인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라면 『(금답사)동회속록』은 금답사에서 시를 지으며 좀 더 친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한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다. 따라서 이 두 자료를 비교한다면 사적 친밀 관계망이 좀 더 공적인 관계와 어떤 연결을 맺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금답사동회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금답사 동회는 영조 11년(1735년) 고흥의 儒紳 다섯 가문 13명이 금답사에 모여 시를 지으며 도의를 함께 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지난 영조 11년(을묘, 1735) 지역의 유신 다섯 가문의 13명이 금답사에서 약속을 하고 모임이 있었는데, 서로 더 붙어 그윽한 정의 마음을 화창하게 펴고 도와 의를 강구하고 연마하여 말의 뜻인 시를 써서 여러 사람이 이름을 열기하고 표제 명칭을 「동회록(同會錄)」이라고 하였다. (중략) 이로부터 60여 년이 지난 정조 17년(계축, 1793) 다섯 가문의 후손들이 다시 계속 모이기로 하여 시 읊기를 잇고 그 뜻을 서술하였다.⁶³⁾

고흥 지역 儒臣, 搢紳의 후손인 다섯가문은 부안임씨, 영광정씨, 여산송씨, 고흥류씨, 진원박씨로 林彙, 丁世霖, 宋日復, 宋廷岳, 丁德有, 宋廷熹, 柳希綻, 林大樹, 林達樹, 朴禧錫, 丁德輞, 朴祐錫, 丁克明 등 13명이 주축이었다. 당시 모임은 영광정씨 4명(30.7%), 부안임씨 3명(23.1%), 여산송씨 3명

59) 『高興柳氏世譜』, 甲子重修譜序(宋煥箕, 1804) 류일영의 활동은 그의 문집인 『창명집』의 번역과 함께 좀 더 자세히 밝혀야 할 것이다.

60) 『雲谷祠誌』 卷2, 松村宋先生事蹟, 墓碣文.

61) 『雲谷祠誌』 卷2, 松村宋先生事蹟, 墓表

62) 『雲谷祠誌』 卷2, 松村宋先生事蹟, 行狀

63) 『金塔寺同會續錄』

(23.1%), 진원박씨 2명(15.4%), 고흥류씨 1명(7.7%) 등의 비율이었다. 부안임씨와 영광정씨는 임휘·임대수 부자, 정세림·정대유 부자 등 부자가 함께 참여하였다. 또 세대별로는 70대 1명(7.7%), 60대 1명(7.7%), 40대 1명(7.7%), 30대 4명(30.8%), 20대 6명(46.1%)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였다.

그 후 60여 년이 지나서 1793년 이 다섯 가문의 후손들이 다시 모였고 이를 속회록으로 기록하였다. 「속회록」 등재 인물은 총 38명이었는데, 첫 번째 「동회록」에 기록된 13명 인물의 아들은 16명이었고, 손자는 7명이었으며, 종질, 당질, 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3명이었다. 즉, 첫 번째 「동회록」 기록된 13명의 아들, 손자, 종질, 당질, 족 등에 해당하는 인물이 26명으로 속회록 등재 인물 중 절반 이상인 68%에 해당하였다. 등재 인물 38명 가운데, ‘父子 동참’은 12사례, ‘祖父子 동참’은 하나의 사례가 있어 ‘父子 동참’, ‘祖父子 동참’은 13사례로 34%에 해당하였다. 가문별로 비중을 살펴보면 영광정씨 13명(34.2%), 여산송씨 8명(21.1%), 부안임씨 7명(18.4%), 진원박씨 7명(18.4%), 고흥류씨 3명(7.9%) 등이었고 80대 1명(2.6%), 60대 4명(10.5%), 50대 8명(21.1%), 40대 6명(15.8%), 30대 6명(15.8%), 20대 11명(28.9%), 10대 2명(5.3%) 등이었다. 특히 10대로 참석하였던 인물들은 모두 여산송씨로 ‘13동회원’ 日復의 죽인인 宋斗應(당시 17세)과, 송지행의 아들 일명 錫年인 宋錫泰(당시 15세)가 동참하였다.

그 후 1841년 再續會에는 39명이 참여하는데 영광정씨 17명(43.6%), 부안임씨 6명(15.4%), 고흥류씨 6명(15.4%), 여산송씨 6명(15.4%), 진원박씨 4명(10.2%) 등이 참여하였고, 그 가운데 부자 동참이 9건(23.1%)이었다. 연령별로 70대 2명(5.3%), 60대 7명(17.9%), 50대 7명(17.9%), 40대 8명(20.5%), 30대 10명(25.6%), 20대 4명(10.3%), 10대 1명(2.5%)의 비중이었다. 10대는 당시 18세였던 林益河의 아들 일명 伯이라고 하는 林樞가 동참하였다.⁶⁴⁾

고흥 儒紳 5가문은 부자간에 대를 이어서 동회에 참석하기도 하면서 1735년부터 1976년까지 금탑사에서 동회를 열어 시를 읊으며 교유 관계를 지속하였다. 이러한 인물들이 운곡사 원임 명단에서도 다음 표와 같이 확인된다.

〈『雲谷院執綱案』과 『金塔寺同會續錄』 명단 비교〉

『雲谷院執綱案』의 院任				『金塔寺同會續錄』의 명단
시기	원임	성명	본관/연령	비교 내용
을사(1785) 4월	掌議	林壇	부안(丁巳)1737년생	속회록/ 동회록 林廷樹(達樹) 아들

64) 이후 3차례 동회의 기록도 확인된다. 1902년에는 38명이 모여 三續會를 열었다. 영광정씨: 20명(52.6%), 부안임씨: 6명(15.8%), 여산송씨: 6명(15.8%), 고흥류씨: 4명(10.5%), 진원박씨: 2명(5.3%) 부자 동참이 6건(15.8%). 세대별로 70대 3명(7.9%), 60대 4명(10.5%), 50대 8명(21.0%), 40대 11명(29.9%), 30대 6명(15.8%), 20대 6명(15.8%) 1932년 4월 12일에 열린 四續會는 36명이 참여하였다. 영광정씨: 12명(33.3%), 여산송씨: 9명(25.0%), 부안임씨: 6명(16.7%), 진원박씨: 5명(13.9%), 고흥류씨: 4명(11.1%)가 참여. 부자동참은 6명(16.7%). 세대별로 70대 3명(8.3%), 60대 7명(19.5%), 50대 7명(19.5%), 40대 7명(19.5%), 30대 5명(13.9%), 20대 3명(8.3%), 10대 4명(11.1%). 여산송씨 宋敏鍾(당시 18세)과 부안 임씨 林明錫(당시 18세), 임인석(林仁錫, 당시 15세), 林采圭(당시 13세)로 10대 부안임씨 참가자들은 아버지와 동참함. 1976년에는 五續會가 열려 모두 215명이 참석하였다. 진원박씨: 84명(39.1%), 영광정씨: 65명(30.2%), 여산송씨: 31명(14.4%), 고흥류씨: 19명(8.8%), 부안임씨: 16명(7.5%) 등으로 조부자 동참: 4명(1.8%). 80대 4명(1.9%), 70대 10명(4.7%), 60대 37명(17.2%), 50대 36명(16.7%), 40대 41명(19.1%), 30대 37명(17.2%), 20대 39명(18.1%), 10대 이하 11명(5.1%).

을사(1785) 4월	色掌	朴燦玟	진원 (壬戌)1742~1814	속회록/ 동회록 朴禧錫의 아들
을사(1785) 6월 초3일	色掌	柳壇	고흥(辛未)1751년생	속회록
을사(1785) 12월 초1일	色掌	朴燦玟	진원 (壬戌)1742~1814	속회록/ 동회록 朴禧錫의 아들
병오(1786) 정월 20일	院長	丁德輞	영광(辛卯)1711년생	동회록/ 속회록
정미(1787) 8월 11일	掌議	林埰	부안(辛亥)1731년생	속회록
정미(1787) 8월 11일	色掌	宋志行	여산(辛酉)1741년생	속회록/ 동회록 宋廷岳의 아들
기유(1789) 11월 일	色掌	丁光宇	영광(丁卯)1747년생	동회록 丁克明의 아들
신해(1791) 8월 일	掌議	宋志行	여산(辛酉)1741년생	속회록/ 동회록 宋廷岳의 아들
신해(1791) 11월 일	色掌	丁孝達	영광(己卯)1759년생	정덕주의 아들/ 속회록
임자(1792) 8월 일	色掌	丁孝達	영광(己卯)1759년생	정덕주의 아들/ 속회록 회원
임자(1792) 8월 20일	院長	丁孝參		丁孝三은 속회록에 있음
계축(1793) 3월 28일	色掌	朴燦珣	진원(甲戌)1754년생	속회록/ 동회록 朴禧錫의 아들/ 色掌 朴燦玟의 동생
계축(1793) 4월 15일	掌議	宋志行	여산(辛酉)1741년생	속회록
정사(1797) 8월 18일	色掌	柳泰榮	고흥(壬午)1762년생	속회록/ 동회록 柳希綻의 손자
정사(1797) 8월 18일	掌議	林埰	부안(戊辰)1748년생	속회록
기미(1799) 6월 일	院長	林埰	부안(辛亥)1731년생	속회록
기미(1799) 6월 일	掌議	柳壇	고흥(辛未)1751년생	속회록/ 동회록 柳希綻의 손자
경신(1800) 12월 14일	掌議	丁翊祚	영광(己巳)1749년생	속회록/ 동회록 丁德有의 손자
임술(1802) 12월 25일	掌議	林埰	진원(壬戌)1742년생	속회록/ 동회록 林埰의 손자
갑자(1804) 2월 초10일	掌議	丁光宇	영광(丁卯)1747년생	동회록 丁克明의 아들
갑자(1804) 2월 27일	色掌	林龍河	부안(丙戌)1766년생	속회록/ 속회록 林壇의 아들
을축(1805) 3월 11일	色掌	林龍河	부안(丙戌)1766년생	속회록/ 속회록 林壇의 아들
무진(1808) 2월 일	掌議	柳壇	고흥(辛未)1751년생	속회록/ 동회록 柳希綻의 아들
경오(1810) 정월 일	色掌	宋斗煥	여산(己亥)1779년생	재속회록(1841)/ 속회록 宋壽權 아들/ 송수권 1795년 掌議 역임

〈표〉와 같이 금탑사동회 5가문의 인물들은 원임으로 운곡사 운영에 관여하였다. 운곡사의 운영은 영광 정씨, 여산송씨, 고흥류씨 등 배향인물이 모여져 있는 가문만의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또 건립 당시의 이 세 가문의 일시적인 연합에 의한 단순 합동서원도 아니었다. 이미 18세기 전반기 금탑사 동회를 통해 고흥지역 儒紳 가문이라는 관계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문네트워크 속에서 서원 건립이라는 연합전선의 구축도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고흥지역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세 가문의 인물을 배향하는 합동서원이었기 때문에 인물을 추향할 때 갈등이 분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도 내재해 있었다. 따라서 사우를 건립하기 위해서 각 가문이 경합하였던 것만큼 사우를 건립한 이후에도 추향 인물의 선정과 추향을 위한 논리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각 가문은 경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고, 결국 운곡사에 있어서 여산송문의 분사와 남양송문의 합사 가능성이 수반되어 있는 것이었다.

5. 맺음말

<별첨 1. 『雲谷祠誌』의 구성>

구분	목록/세부항목	비고	
序	-	이규현 서	
卷1	位置		
	沿革		
	奉安文/誠齋柳先生奉安文, 松村宋先生合享告由祝, 松村宋先生奉安文, 於于柳先生眞影奉安文, 於于柳先生位牌奉安文, 松庵柳先生奉安文	3인(6문서)	
	常享祝		
	*復設時奉安文/英密公信菴柳先生奉安文, 忠正公誠齋柳先生奉安文, 松村宋先生奉安文, 襄靖公柳先生奉安文, 西湖宋先生奉安文, 主簿柳先生奉安文, 贈參判柳先生奉安文, 義貞公於于柳先生奉安文, 梅窩宋先生奉安文, 鈞隱宋先生奉安文, 松庵柳先生奉安文, 栢庵宋先生奉安文, 判官柳先生奉安文, 龜隱宋先生奉安文	목록 추가 14인 봉안문	
	*復設常享祝	목록 추가	
	*雲谷祠創建以後事實	上同	
	祭品目錄	목록 享祀目錄	
	享祀儀節		
	享祀笏記		
	*院任選定	목록 추가	
	*祭官選定	목록 추가	
	*院中備置書類目錄	목록 추가	
	卷2	信菴柳先生事蹟/上忠宣請還國箋, 輿地勝覺, 行狀, 廟庭碑陰記, 年譜, 遺墟碑, 實記序(1, 2)	
誠齋柳先生事蹟/ 遺事, 誠齋銘, 誠齋詩, 麗史列傳, 神道碑銘, 年譜, 輿地勝覺, 合浦名宦誌, 長生浦曲序, 眞宗寺記, 癸卯扈從功臣錄, 興王討賊功臣錄, 建議執兵出謀定難功臣錄, 辛丑扈從功臣錄, 僉兵輔佐功臣錄, 碧山祠奉安文			
松村宋先生事蹟/ 遺稿, 杏亭吟, 龍潭漁謳, 行狀, 墓表, 墓碣文, 野史抄, 神道碑銘, 杜門祠奉安文(并事蹟), 景賢祠奉安文		遺稿(내용 없음)	
襄靖公柳先生事蹟/ 柳濕/ 遺事, 吏曹典書柳襄靖公神道碑銘, 墓表*太宗大王御製甲稷原韻*太宗大王傳教*太宗大王御製甲稷功臣贊			
西湖宋先生事蹟/ 墓表, 景慕齋記			
主簿柳先生事蹟/ 行狀, 墓碣銘			
參判柳先生事蹟/ 行狀, 墓碣銘			
於于柳先生事蹟/ 柳 王禾 上言, 義禁府回, 柳榮道上言, 回啓			
梅窩宋先生事蹟/ 詩文, 梅窩吟, 晉州東門樓聯句, 倡義湖西檄, 圍中上家兄書, 唐津遺愛碑, 墓碣銘(序並)		詩文(내용 없음)	
鈞隱宋先生事蹟/ 詩文, 呈徐寶城(鞠), 釵銘, 上統制使論船制書, 上咸鏡監營牒, 陞慶尙左兵使 教書, 富寧南門小碣, 墓碣銘(並序), 雙忠神道碑銘(並序), 傳教, 旌閣記文			
松庵柳先生事蹟/ 遺事(1, 2, 3), 墓碣銘(並序)			
栢庵宋先生事蹟/ 行狀, 墓碣銘(並序), 遺事(1)			
判官柳先生事蹟/ 遺事, 行狀, 神壇碑, 金谷祠誌			
龜隱宋先生事蹟/ 遺稿, 行狀, 墓表, 墓碣銘, 遺事			
卷3		雲谷祠重建記(1, 2)	목록에 重建記文
		雲谷祠記	
	通文/ 壬寅(1782) 儒學, 壬寅 儒學, 壬寅 羅州, 壬寅 光州, 계묘 보성, 장성 김경철 羅州	34건	

	<p>홍수윤 광주 류중곤 등, 本邑章甫上書, 嶺南 고령 문연서원 도회소, 광주, 南原, 本縣, 本縣, 乙卯(1795) 2월 17일, 乙卯 윤 2월 10일, 정사(1797) 11월 10일 全州, 정사 11월 15일 南原, 정사 12월 20일 광주, 정사 12월 羅州, 壬辰(1832) 윤 9월 19일 本縣, 임진 윤 9월 22일 本縣, 復設時通文 신축(1961) 11월 고흥향교, 本祠通文(1973) 4월 운곡사, 成均館通文(1974) 음력 정월, 癸丑(1973) 4월 광주향교, 癸丑 4월 全州향교, 癸丑 4월 羅州향교, 계축 4월 南原향교, 本鄉 유생, 광주 유생, 羅州 유생, 南原 유생, 장성 필암서원 유생, 광주향교 청금안에 기록된 열읍유생, 本鄉 유생.</p>	
<p>跋</p>		<p>류호석</p>

<별첨 2. 운곡사 인물 배향을 위한 통문>

시점	단위	발송대표	수	대상	출처
壬辰(1772)	羅州	進士 羅瓘奎, 金礪	30	송대립, 송침	오현
癸巳(1773)	능주	幼學 梁居仁, 閔昌龜, 文世萬	70	송대립, 송침	오현
癸卯(1783)	본읍	幼學 朴挺取, 柳景起, 申命涉, 宋萬禎, 林彙	12	정운희	오현
癸卯(1783)	본읍	幼學 申漢楡, 李沆, 宋增, 申命泓, 宋日明	35	송대립, 송침	오현
壬寅(1782)	본읍	幼學 申道活, 金長五, 進士 丁孝穆	11	류탁, 송대립, 송침, 정운희	오현
壬寅(1782)	幼學	宋昌, 宋昌彦, 宋道再	41	류탁, 정운희	오현
壬寅(1782)	羅州	進士 吳時裕, 奇繼商, 幼學 洪在淵	36	류탁	오현
壬寅(1782)	광주	幼學 柳匡國, 奇學淳, 進士 朴燦燦, 李宗	미상	류탁	오현
癸卯(1783)	보성	幼學 朴致鳳, 朴守緯, 任桂發	22	류탁	오현
癸卯(1783)	장성	幼學 金敬徹, 羅州, 광주	미상	류탁	오현
乙巳正月日	本邑	章甫上書	미상	공동	오현
壬寅(1782)	대학	進士 韓德普	30	송간	오현
壬寅(1782)	광주	幼學 崔雲之, 高廷鳳, 朴燾, 李燁	미상	송간	오현
壬寅(1782)	羅州	進士 金之麟, 林忿遠	30	송간	오현
壬寅(1782)	南原	儒林 李景煥, 許楫, 張燾, 崔淑, 盧穉	미상	송간	오현
壬寅(1782)	全州	儒林 蘇洙集, 林震燁, 趙廷亮	20	송간	오현
壬寅(1782)	본읍	章甫 申應澤, 宋道宰	20	송간	오현
癸卯(1783)	羅州	吳燾源, 梁載五, 林達遠	40	송간	오현
甲辰(1784)	광주	進士 朴麒祥, 李曄	40	송간	오현
甲辰(1784)	도내	儒林 朴寅鎭, 金會鳴	20	류성재, 송간, 정운희+ 송대립, 송침	오현
乙巳(1785)	광주	進士 朴夏鎭, 奇東勳, 朴亮東	50	송대립, 송침	오현
미상	嶺南 高靈	文淵書院 都會所에서 상주進士 이지권, 성주 이지년, 진주 조사우	50	송인	사지
미상	광주	高廷胤 등	25	송인	사지
미상	南原	進士 金聖求	25	송인	사지
미상	本縣	林垞	25	송인	사지
미상	本縣,	宋基一	46	송인	사지
을묘(1795) 2월 17일	本縣	宋基守	20	류몽인	사지
정사(1797) 11월 10일	全州	金之元	20	류몽인	사지
정사(1797) 11월 15일	南原	李奎煥	20	류몽인	사지
정사(1797) 12월 20일	광주	柳在淵	21	류몽인	사지
정사(1797) 12월	羅州	崔翊東	33	류몽인	사지
임진(1832) 윤9월 19일	본고을	宋振玉	47	류순	사지
임진(1832) 윤9월 22일	본고을	宋夏相	21	류순	사지

근대 유림의 네트워크와 시사(詩社)

박명희¹⁾

차 례

1. 머리말
2. 고흥 유림 朴炯得의 詩社 결성
3. 詩社 결성을 통한 활동 양상과 지향
 - 1) 시사 개최와 시 벗과의 결속 다짐
 - 2) 백일장 대회 개최와 문예 부흥 추진
4. 詩社 결성의 의의와 전망
5. 맺음말

1. 머리말

문자로 기록하는 것은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거시적인 기록이란 가령, 국가가 중심이 된 기록을 말하고, 미시적인 기록이란 개인이 중심이 된 기록을 말한다 할 수 있다. 전통 시대 국가가 중심이 된 기록이라 하면 『조선왕조실록』을 그 대표로 들 수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기록물을 통해 궁궐 중심으로 흘러갔던 조선의 역사를 대략 알 수 있다. 반면, 개인이 중심이 된 기록이라 하면 그 대표로 문집을 들 수 있을 것인데, 그 속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多岐한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한편, 개인이 중심이 된 기록물은 문집만 한정하지 않는다. 비록 책으로 엮여져 있지 않으나 낱장으로 된 간찰과 거래 문서, 행사 기록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낱장으로 전승되고 있는 기록 자료는 자칫 후손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逸失되어 사라지거나 전승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아 역시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 또한 국가가 중심이 된 기록물은 국가라는 거대한 기구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라질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개인이 중심이 된 기록물은 상대적으로 특정한 기구의 보호 아래에 있지 않아 사라질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물론 현재 개인이 중심이 된 기록물은 세상에 공개되어 사라질 상황을 벗어난 것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사라질 상황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전남 고흥군 두원리 용산면 와룡부락 입구에 소재한 何求亭 소장 자료를 조사하여 수집, 정리한 작업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자칫 사라질 위기에 놓인 개인이 중심이 된 기록물을 정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는 하구정의 소장 자료를 총 2차에 걸쳐 조사하여 수집, 정리하였다. 1차 조사와 자료 수집 시기는 2019년 8월 30일로, 고문서

1) 전남대학교

188점과 고서 4점 등 총 192점을 정리하였다.²⁾ 또한 2차 조사와 자료 수집 시기는 2020년 4월 14일로, 고문서 81점과 고서 4점 등 총 85점을 정리하였다.³⁾ 이렇듯 자료들은 현장에 직접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完整하지 않아 肉眼으로도 식별할 수 없는 것도 있다.

그런데 이 하구정에서 수집한 자료 중에 1920~30년대 詩社 결성과 관련한 것이 있어 주목을 필요로 한다. 시사는 시인들이 모여 만든 詩同人 그룹을 말한다.⁴⁾ 시사는 역사적으로 조선 초기 시회, 계회 등의 모임에서 시를 짓는 데에서 비롯되어 조선 중기 사대부 계층에서 본격 시작이 되었고, 이러한 모임이 중인층까지 확산되어 급속하게 발전하였다.⁵⁾ 다시 말해 시사는 요즘의 시 창작 동호인 모임이라 할 수 있는데, 처음 생긴 이래 시대가 점점 내려갈수록 같은 계층끼리 결속을 다지는 역할까지 담당하였다.⁶⁾ 또한 시사 결성을 줄여 ‘結社’라고도 하며, 또 다른 이름으로 ‘吟社’가 있다. 즉, 음사의 ‘吟’ 자가 시를 읊조린다는 뜻을 지니고 있기에 시사와 같은 의미로 봐도 무방하다 생각한다.

본 논문은 하구정 소장 자료를 기반으로, 1920~30년대 전남 고흥 지역 유림의 시사 결성과 그 의의를 구명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 전남 고흥군은 동남쪽 끝에 위치한 반도로 행정구역상 북부의 보성군과 접해 있다. 또한 해안을 경계로 동쪽은 汝自灣을 건너 여수와 접하였고, 남쪽은 沿海를 거쳐 태평양에 이르고, 서쪽은 得糧灣을 건너 보성, 장흥군과 접해 있다.⁷⁾ 이러한 지리적 여건만 보더라도 고흥군은 한반도 거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형적 위치를 점한 고흥 지역에서 1920~30년대에 시사가 결성되었다는 점도 특이하나 그 활동 양상이 한 가지뿐만이 아니었다는 점도 살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시사 연구는 시간적으로는 20세기 이전,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서울을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시사 연구의 시공간의 폭을 넓혔다는 측면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격적인 논의 내용인 시사 결성을 통한 활동 양상과 지향을 구명하기 이전에 우선 고흥의 작은 마을에서 시사를 어떻게 해서 결성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려 한다.

2. 고흥 유림 朴炯得의 詩社 결성

1920~30년대 전남 고흥 지역에서 시사를 결성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던 사람으로, 朴炯得(1876~1947)을 주목해야 한다. 박형득의 자는 德哉요, 호는 南坡이며, 본관은 密陽이다. 文行으로 알려진 부친 農隱 朴永根과 宋柱軒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고흥군 두원면 용산리 와룡부락에서 출생

2) 소장자 요청에 의해 정리 후 1권(남파유고)반납(정리자 주)

3) 본 논문은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제공한 하구정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지면을 통해 한국학호남진흥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4) 千柄植, 「委巷詩社의 結成 原因에 대하여」, 『국어교육』 63권, 한국어교육학회, 1988, 27쪽 참조.

5) 尹浩鎭, 「詩社 研究의 回顧와 展望」, 『한문학보』 권25, 우리한문학회, 2011, 5쪽 참조.

6) 박명희, 「나주 남평향교의 시사 결성과 창작시의 양상」, 『인문과 예술』, 인문예술학회, 2021, 92쪽.

7) 『高興郡誌』, 고흥군지편찬위원회, 1984, 41쪽 참조.

했으며, 같은 곳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현재 그의 문집 『남파유고』가 전하고 있는데, 권1에 300여 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 수준이 높아 시인으로서의 기질이 다분했다고 판단된다. 小波 宋明會(1872~1953)는 박형득의 행장과 『남파유고』의 발문을 작성한 바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유의미한 자료가 있어 인용한다.

①

일찍이 謙山 李公의 문하에서 노닐었는데, 칭찬을 많이 받았다. 社稷이 무너지는 변고를 보고 하늘 보기 부끄러워하며, 여러 친족과 함께 臥龍山 아래에 누정을 얹어 ‘何求’라 편액하고, 두문불출하였다. 간혹 통곡하며 술을 마시면서 탄식하였고, 간혹 길이 휘파람을 불며 생각을 풀어 말하였다. 당시 고을의 동지들과 함께 수창하면서 날을 보내며 세상일을 묻지 않았다. 梅泉 시 읽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 목숨을 마치면서까지 지켰던 절개를 흠모하여 시문을 중간, 세상에 널리 배포하였다. 시를 사랑하고 의리를 흠모하는 대략이 모두 이와 같았다.⁸⁾

②

아, 남파자는 태어나면서 질실하여 부화함을 싫어하고 실학에 힘을 쏟았다. 겨우 약관이 되어 경전·자서를 두루 보고, 더욱이 성리학·『심경』·『근사록』 등의 책을 좋아하여 일찍이 손에서 놓지 않았다. 일찍이 겸산 李 선생의 문하에서 노닐었다. 선생은 늘 칭찬을 아끼지 않아 원대함으로 기대했는데, 불행히도 상전벽해의 세상을 만나 어찌 할 바를 몰랐다. 그로 인해 작은 누정을 와룡산 아래에 지어 ‘하구’라 편액 하였다. 날마다 원근의 동지들과 함께 시를 읊고 술을 마시며 날을 보내면서 늙음이 장차 이를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 고상한 취미를 미루어 알 만하다.⁹⁾

같은 사람이 작성한 글인데, 내용을 보면 서로 겹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우선 ① 글에서 주목해 봐야할 부분은 총 네 곳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겸산 이공 문하에서 노닐었다는 점, 둘째 와룡산 아래에 하구정이라는 누정을 지었다는 점, 셋째 당시 고을의 동지들과 함께 수창을 했다는 점, 넷째 梅泉 黃玆(1855~1910)을 존경하여 그의 시를 읽고 시문 책을 중간하여 세상에 널리 배포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어 ② 글에서 주목해 봐야할 부분은 총 다섯 곳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태어나면서 질실하여 부화함을 싫어하고 실학에 힘을 쏟았다는 점, 둘째 약관이 되었을 때 여러 책을 두루 읽고, 특히 성리학 등의 책을 좋아했다는 점, 셋째 겸산 李 선생의 문하에서 노닐었다는 점, 넷째 와룡산 아래에 하구정 누정을 지었다는 점, 다섯째 날마다 원근의 동지들과 함께 시를 읊고 술을 마시며 날을 보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8) 朴炯得, 『南坡遺稿』卷3, 「南坡行狀」, 嘗遊謙山李公之門 多被獎誦 值屋社之變 羞見天日 與諸族 構亭於臥龍山下 扁以何求 杜門不出或痛飲而發歎 或長嘯而舒懷 時與鄉里同志 唱酬度日 不問世事 好讀梅泉詩 欽其終節 重刊詩文 廣布于世 愛詩慕義類 皆如是.

9) 朴炯得, 『南坡遺稿』卷3, 「跋」, 噫 南坡子生而質實 厭浮華 務實學 甫弱冠 遍觀經傳子書 尤好性理學心經近思錄等書 未嘗釋手 嘗遊謙山李先生之門 先生每加獎誦 以遠大期之 不幸世值滄桑 至末如之何 則因作小亭於臥龍山下 扁以何求 日與遠邇同志 吟觴遣日 不知老之將至 其高尚之趣 推可知也.

이러한 두 글의 내용을 시간적인 순서를 지켜 총체적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박형득은 태어나면서 질실하여 부화함을 싫어하고 실학에 힘을 쏟았다. 약관이 되었을 때 벌써 여러 책을 두루 읽었는데, 특히 성리학 등의 책을 좋아했다. 겸산 이 선생의 문하에서 학문을 연마했는데, 선생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다. 또한 와룡산 아래에 하구정이라는 누정을 짓고, 원근의 동지들과 만나 술을 마시거나 시를 읊으면서도 세상일을 묻지 않았다. 평소 매천 황현을 존경하여 그의 시문 책을 중간하여 세상에 널리 배포하는 일을 하였다.¹⁰⁾

우선 두 글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 살피겠다. 두 글에서 말한 겸산 이 선생은 바로 전남 나주 노안면 출신 李炳壽(1855~1941)를 말한다. 자는 石田이요, 본관은 陽城이며, 겸산은 그의 호이다. 이병수는 특별한 스승이 없이 독학으로 학문을 연마하여 대성했던 인물로, 당시 호남사람들의 추앙을 받았다. 나주 목사 閔鍾烈·진사 羅東綸과 함께 藍田呂氏鄉約을 모방하여 錦城鄉約을 조직한 바 있다. 또한 구한말과 근대기 나라가 위험에 처한 것을 한탄하고 호남의병의 실태를 파악하여 『錦城正義錄』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문집에 『謙山遺稿』가 있다.¹¹⁾ 또한 황현은 주지하다시피 자는 雲卿이요, 본관은 長水이며, 매천은 그의 호이다. 전남 광양 출신으로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목격한 뒤 과거시험 보는 것을 그만두고 귀향한다. 구례로 삶의 터전을 옮긴 황현은 그곳에서 독서와 시문 짓기·역사 연구 등에 매진하였다. 구한말 동학농민운동 등 굵직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자 후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梅泉野錄』·『梧下記聞』 등을 저술하였다. 1905년 11월 일제가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자 울분을 감추지 않았으며, 1910년 국권을 완전히 빼앗기자 「絕命詩」 4를 남기고 자결하였다. 위의 ①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목숨을 마치면서까지 지켰던 절개”라는 말을 했는데, 이는 황현이 「절명시」 4수를 짓고 목숨을 끊었던 사실을 말한 것이라 생각한다. 곧, 이러한 내용을 통해 박형득이 평소 어떤 인물을 존경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위 두 글에서 박형득은 와룡산 아래에 하구정이라는 누정을 지었다고 하였다. 尹甯求가 지은 「何求亭記」에 따르면, 하구정은 1921년 가을에 처음 짓기 시작하여 1923년 늦봄에 완성하였다. 1921년은 박형득이 46세가 된 해인데, 곧 하구정은 짓기 시작하여 거의 3년 만에 완성한 누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하구정의 ‘何求’라는 말은 남송의 학자 朱熹가 지은 「武夷精舍雜詠」 12수의 세 번째 작품의 전주 “은거해 다시 무엇을 구할까?(隱去復何求)”에서 유래했다. 주희는 그의 나이 54세 때 武夷山에 무이정사를 지어 강학하는 장소로 삼았는데, 이때 지은 연작시가 「무이정사잡영」이다. 주희는 무이정사의 건물에 각각의 이름을 정했는데, ‘隱求齋’ 당호를 대상으로 지은 시가 바로 「무이정사잡영」 세 번째 작품이었던 것이다. 박형득은 이러한 주희의 시 구절을 따서 자신의 누정 이름으로 정했는데, 주희처럼 은거의 삶을 살고자하는 의미가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글 ①에서 하구정을 짓고 두 문불출했다 했는데, 이는 바로 ‘하구’의 의미를 그대로 실천해 옮겼다 말할 수 있다.

10) 박형득은 평소 황현을 존경했는데, 그 실천적인 측면에서 1932년에 『매천시집』 중간본을 간행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시와 문장을 남겼다. 시 작품으로는 「壬申四月重刊梅泉先生集於筏橋印刷所感先生之節義仍成追挽」(권1), 「梅泉刊役時同蕙田拈韻」(권1), 「梅泉集印了志感與雨田西堂离松紋懷」(권1) 등이 있고, 문장으로는 「梅泉詩文重刊跋」(권2), 「梅泉詩集購覽敬告」(권2) 등이 있다. 박형득은 『매천시집』을 중간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여 배포하려고 애를 썼다. 현재까지 『매천시집』을 판매할 때 맺은 계약서가 하구정에 보관되어 있었다.

11) 박형득은 스승 이병수와 관련하여 「謁李謙山先生於松山精舍」(권1)와 「謙山李先生挽」(권1) 등의 시를 남겼다.

박형득은 하구정을 완성한 뒤에 서문과 아울러 원운시를 지었는데, 그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아, 누정이어. 누정이 사람을 얻었는가? 사람이 누정을 얻었는가? 누정이 사람을 얻었다면 아름답고, 사람이 누정을 얻었다면 추하다. 누정이어. 누정시도 그러하다. 시를 누정의 의미로 짓지 않는다면, 시라 할 수 있겠는가. 누정에 시의 실상이 없다면, 누정이라 할 수 있겠는가. 내 재능은 보잘 것 없어서 누정에 그 사람이 적합하지 않고, 시에서도 그 누정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 그러나 누정을 짓고 시를 짓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아니면 그 뜻을 찾았으나 얻지 못하여 감히 기록해 도리어 찾고자 결단한 것인가? 역시 뭐라 명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하구’라 하니, 찾고자 한 뜻을 시에서 얻었다 할 수 있는가? 시에 이르기를 “신선 고을은 둥근 하늘을 나누고, 용산 물가에서 땅 울림 일어나네. 좇아서 동정 기미 살피니, 우리 도가 그 속에 유장하여라.(仙洞分天圓 龍汀發地響 從看動靜機 吾道此中長)”라고 하였다.¹²⁾

박형득은 누정을 짓고 나서 뭐라 명명할 수가 없어서 ‘하구’라는 이름을 끌어다 지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오언절구를 지었는데, 사실 이 시의 압운은 주희의 시 압운과 같다. 뭐라 명명할 수 없어서 ‘하구’라 한다 했으나 박형득은 주희의 『무이정사잡영』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고, 그 이면에 주희를 닮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박형득이 하구정 원운시를 짓자 그 뒤를 이어 차운시를 여러 사람이 지었다. 『남과유고』 권 3 처음에 차운시와 함께 차운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는데, 梅村 宋衡燮, 復菴 宋敬浩, 靜軒 宋現燮, 三乎 宋柱憲, 梅亭 朴彩柱, 南竹 朴環鎭, 晚悟 任泰奭, 惠田 白樂脩, 小波 宋明會, 止齋 金永淳, 雪舟 宋運會, 龍波 朴在彬 등이 그들이다. 또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차운시를 지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春汀 柳晟, 竹岡 朴準鐸, 柏山 申太休, 箕城 丁炳教, 박형득의 아들 奉圭 등이 그들이다. 박형득이 하구정을 지은 뒤 원운시를 짓자 당시 원근에 살던 유력한 유림들이 차운시를 지었으니, 당시 박형득이 쌓은 덕망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위의 글 ①과 ②를 통해 볼 때 박형득은 시 창작 활동도 활발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에서 “당시 고을의 동지들과 함께 수창하면서”라고 하였고, ②에서 “날마다 원근의 동지들과 함께 시를 읊고”라고 말한 내용에서 그 실상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①과 ② 글 모두 ‘동지’라는 말을 했는데, 이는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들과 어울렸다는 의미이다. 박형득이 지은 시의 제목에 ‘詩伴’, ‘詩會’, ‘結社’ 등의 어휘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곧 혼자가 아닌 뜻이 맞는 동지들과 어울렸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시반’은 우리말로 풀이하면 ‘시 벗’이라는 뜻이고, ‘시회’는 ‘시 모임’이라는 의미로 ‘詩社’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으며, ‘결사’는 1장 머리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시사 결성’을 줄인 것이다. 이러한 용어를 시 제목에 자주 사용했다는 것은 곧,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분위기에서 시를 창작했다는 것을

12) 朴炯得, 『南坡遺稿』 卷2, 「何求亭原韻」, 噫 亭乎 亭得人歟 人得亭歟 亭得於人則美 人得於亭則陋 亭乎 亭於詩亦然 詩不以亭之義 則詩乎哉 亭無乎詩之實 則亭也哉 余材之樗櫟也 於亭 非其人也 於詩 亦非其亭也 然而亭而詩也者何也 抑非其求志不得 而勇於敢記反欲求之者歟 亦無得而名焉 故曰何求 求得之志 可得乎詩哉 詩曰 仙洞分天圓 龍汀發地響 從看動靜機 吾道此中長

의미한다. 다시 말해 박형득은 시사를 결성하여 시 창작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3장에서는 그 구체적인 활동 양상과 그 지향점을 논의할 것이다.

3. 詩社 결성을 통한 활동 양상과 지향

1) 시사 개최와 시 벗과의 결속 다짐

사실 박형득은 시회, 시사, 음사 등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다고 생각한다. 뜻이 맞는 사람들과 만나 시를 창작하는 상황이라면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했기 때문이다. 박형득이 남긴 시사 관련 시로는 「與蕙田晦山省軒南竹雪竹竹岡」, 「亭上結社」, 「次本坊詩社韻」, 「和風泉齋詩會」, 「大西豆原兩坊詩會泛舟松湖」, 「癸亥吟社拈韻」, 「和海隣社諸伴」, 「閏三月和癸亥吟社諸伴」, 「和本坊詩社員會于敬慕齋」 등이 있다. 이들 시제를 보면, 어떤 상황에서 지었다는 것을 대략 알 수 있다. 여러 사람들과 결사를 맺으면서 지은 시도 있고, 시사에서 다른 사람의 시에 차운한 것도 있으며, 齋室의 시회에서 화답한 것도 있고, 시회 나들이에서 지은 것도 있다. 이들 작품 중에서 우선 지은 시기를 분명히 밝힌 시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금년의 윤달은 늦봄에 자리하니	閏月今年置季春
역가들 봄을 아쉬워하는 듯하다	曆家似爲惜春人
짙은 버들과 꽃 핀 곳을 지나고	經過柳暗花明處
산남과 수북을 이웃하여 만났네	邂逅山南水北隣
남전 향약법을 많이 모방하였고	約法藍田多倣古
금란계 모임을 또한 새로 보탬네	契規蘭社又增新
취중의 미친 짓을 비웃지 말지니	醉中狂態休相笑
우리는 원래 진심 좇음 귀히 여긴다	吾輩元來貴率真 ¹³⁾

이 작품의 시제를 풀이하면 ‘윤3월 계해음사의 여러 친구들에게 화답하다’이다. 계해년은 1923년을 말하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해에 박형득은 하구정 누정을 완성하였다. 시제에 따르면 1923년에 3월은 윤달도 있었다. 이때 박형득은 여러 친구들과 함께 시사를 열었고, 가지고 있던 생각을 시로 화답한 것이다.

수련에서 윤달이 늦봄에 자리한 것을 말하였고, 함련에서는 여러 사람이 만난 과정을 말하였다. 특히, 2구에서 ‘山南’과 ‘水北’을 언급하여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경련에서 모임의 목적을 말

13) 朴炯得, 『南坡遺稿』 卷1, 「閏三月和癸亥吟社諸伴」

하였는데, 1구에서 말한 ‘남전향약법’에 눈길이 간다. 남전향약은 복송 말 도학으로 명성을 떨친 呂大忠·大防·大鈞·大臨 등 4형제가 일가친척뿐만 아니라 향리 전체를 교화 선도하기 위해 만든 향약으로, 일명 ‘呂氏鄉約’이라고도 한다. 남전향약은 앞 2장 이병수를 언급한 자리에서 이미 나왔는데, 박형득이 시에서 직접 거론했으니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스승 이병수가 남전향약을 모방하여 금성향약을 만들었던 것처럼 제자 박형득도 그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박형득은 2구에서 ‘금란계’를 말하였다. 금란계는 고사성어 金蘭之契로도 알려져 있는데, 흔히 뜻을 함께하는 벗과의 우정을 말한다. 박형득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1923년 윤3월 늦봄에 산남과 수북을 이웃한 곳에서 만났는데, 그 모임은 향약과 관련되며 아울러 우정을 돈독히 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미련에서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술에 취한 사실을 말하는 한편, 2구를 통해 “진심 좇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언급하여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겼다.

또한 박형득의 시사 관련 시를 통해 당시 마을마다 시모임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 제목에 ‘本坊’, ‘兩坊’ 등이 나오는데, 여기서 ‘坊’은 마을을 뜻한다. 즉, ‘본방’은 박형득이 살고 있는 마을을 뜻하며, ‘양방’은 두 마을을 의미한다. ‘본방’과 ‘양방’이 들어간 각각의 작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①

샘과 돌 그윽하고 고을은 깊숙한데	泉石幽幽洞府深
늦음 봄 시 친구들이 나를 찾아왔네	暮春詩伴此相尋
따뜻한 꽃들 수증기 폼자 벌들 날아들고	蜂潮暖沸花蒸氣
날이 갠 나무 그늘에서 새는 구멍 뚫네	鳥漏晴暄樹結陰
담백한 호수 빛은 지붕 모서리를 밝히고	淡泊湖光明屋角
아물아물 산 아지랑이는 창가를 적신다	涇濛山翠滴窓心
그대들은 피꼬리 늦었다 말하지 마라	諸君莫道黃鸝晚
번갈아 부르는 새로운 시도 좋은 음악이니	迭唱新詩亦好音 ¹⁴⁾

②

여름밤 구름 없고 달빛은 가을 같은데	夏夜無雲月似秋
두 동네가 연합하여 함께 놀음을 했네	兩坊聯合一船遊
멀리 땅 벗어나니 산은 다 물에 떠있고	迴離於地山皆泛
위로 하늘에 접해 바다로 흐르지 않네	上接于天海不流
우주는 다 비어 자유자재 한가로운데	宇宙都空閑自在
신선들 어디로 가서 찾기가 힘드는지	神仙何去渺難求
술 깨어 시 지으려니 사람들 다 흩어져	酒醒詩就人俱散
잠깐 동안의 풍치 정회도 신기루 같다	頃刻風情亦蜃樓 ¹⁵⁾

14) 朴炯得, 『南坡遺稿』 卷1, 「和本坊詩社員會于敬慕齋」

작품 ①의 시제를 풀이하면, ‘경모재에서 우리 마을 시사 회원들에게 화답하다’이다. ‘경모재’가 누구 소유의 재실인지 알 수 없으나 수련 2구에서 “늦음 봄 시 친구들이 나를 찾아왔네”라고 했으니, 당시 박형득이 머물고 있던 곳이 아닌가 추측한다. 어느 늦은 봄날 시 친구들이 박형득을 찾아와 모임은 성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함련과 경련에서 따뜻한 봄날의 풍경을 여러 각도에서 읊었고, 미련에서 사람들에게 시를 창작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작품 ②의 시제를 풀이하면, ‘대서·두원 두 동네 시회의 송호 뱃놀이에서’이다. 시 제목에 나온 ‘두원’은 박형득이 살고 있는 면 이름이고, ‘대서’는 고흥의 또 다른 면 이름이다. 곧, ② 시는 어느 여름밤에 대서면과 두원면에서 활동하고 있던 시사 회원들이 송호라는 곳에서 뱃놀이를 하다가 그 감회를 적은 것이다. 수련에서 여름밤의 날씨를 언급하는 한편, 두 동네 시사 회원들이 연합하여 놀음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함련에서 뱃놀이를 하면서 본 풍경을 읊었고, 경련에서 작자 개인의 정감을 나타내었다. 호수에서 뱃놀이를 하고 있기에 마치 우주가 다 비어있는 듯이 느껴졌고, 신선이 곧 나올 듯하여 찾아보았으나 찾기 힘들다고 하였다. 호수에서 즐긴 뱃놀이 시 모임이기에 술이 없을 수가 없었는데, 미련에서 이를 말하였다.

박형득은 그가 지은 누정 하구정에서도 시사를 결성하였다. 이와 관련한 작품으로 「여혜전회산성헌남죽설죽죽강」과 「정상결사」가 있는데, 둘은 모두 연작시로 전자는 13수, 후자는 10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여혜전회산성헌남죽설죽죽강」 시 여덟 번째 작품과 「정상결사」 첫 번째 작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①

수십 일 동안 나무 지팡이 세웠으니	數旬間立一枝筇
만년 시 읊는 버릇 그 뉘 나 같을까	晚癖吟哦孰似儂
결사는 이미 원진·백거이와 같거늘	結社已同元與白
지음이 어찌 백아·종자기뿐이겠는가	知音豈獨伯之鍾
잔글씨에서 가끔 노련한 필력을 보고	見疎筆老蠅頭禿
게 눈처럼 진한 맑은 차에 익숙해졌네	向熟茶明蟹眼濃
높이 오르코자 하면 되레 절로 그치니	正欲登高還自止
내가 그대들 따르지 못할까 두렵구나	恐教我客不能從 ¹⁶⁾

②

점입가경 시경도 마침내 어려워하며	詩境終難漸入佳
몇 년 동안 부질없이 생애를 보냈네	幾年謾自作生涯

15) 朴炯得, 『南坡遺稿』 卷1, 「大西豆原兩坊詩會泛舟松湖」
 16) 朴炯得, 『南坡遺稿』 卷1, 「與蕙田晦山省軒南竹雪竹竹岡」

빠름과 느림 한계 있으나 다 뜻 말하고	速遲有限皆言志
교묘와 서투름 관계없이 각자 뜻 펼치네	工拙無關各敘懷
솔방울 거두어다 부엌에서 약을 달이고	松子收來燃藥竈
땃가지 길러서 섬돌에 난 이끼 없앤다	竹孫養得破苔階
상평의 혼사는 어느 때나 다 마칠는지	尙平婚嫁何時畢
오악명산을 그대들과 함께 하리라	五嶽名山與子偕 ¹⁷⁾

작품 ①의 시제를 풀이하면, ‘혜전·회산·성헌·남죽·설죽·죽강과 함께’이다. 시 제목에서 총 여섯 사람이 등장하는데, 모두 호를 적은 것이 특징이다. ‘혜전’은 白樂脩이고, ‘회산’은 宋憲燮이며, ‘성헌’은 宋濶燮이고, ‘남죽’은 朴璟鎭이며, ‘설죽’과 ‘죽강’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 이 작품은 하구정에서 결사한 뒤 그것을 기념해 지은 시라고 생각한다. 수련에서 작자는 만년까지 시를 읊는다는 것을 말하여 시 창작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함련에서 하구정의 결사를 元稹·白居易가 했던 것과 대비하였고, 지음은 伯牙와 鍾子期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원진과 백거이는 당나라 때의 시인으로, 이들은 젊을 때부터 재주가 비등한 데다 서로 唱和한 시가 매우 많아서 이들의 시체를 ‘元白體’라 부르기도 한다. 또한 춘추 시대 초나라 사람 백아가 거문고 연주를 잘했는데, 그 친구 종자기가 그 거문고 연주 소리를 듣고 속마음까지 알았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다. 즉, 작자는 함련에서 결사의 성격과 함께 서로 어느 정도로 친한지 그 친분 정도를 말하였다. 경련 1구는 아마도 시를 지은 글씨를 말하는 듯하다. 글씨가 작아 마치 파리머리처럼 보이나 그 속에서 노련한 필체를 볼 수 있다 하였다. 칭찬을 아끼지 않은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미련에서 작자는 너무 지나친 욕심을 내지 말 것을 말하는 한편, 겸손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작품 ②의 시제를 풀이하면, ‘하구정에서의 결사’이다. 수련에서 작자는 점입가경의 아름다운 경치를 접했으나 시 짓는 것을 어려워했다고 하였다. 평소 시를 짓고 싶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함련에서 시 창작의 방법을 말하였다. 비록 사람에 따라 빠르고 느림의 한계는 지니고 있으나 모두 뜻을 말하고, 교묘함과 서투름 관계없이 각자의 뜻을 펼친다고 하였다. 바로 시 창작 방법의 조언을 말한 것이다. 아마도 하구정 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시 창작 능력은 동일하지 않았을 것이다. 작자 박형득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느리고 서투른 사람도 뒤처지지 않도록 독려한 것이다. 경련에서 시 창작 외에 하는 일을 말하였고, 마지막 미련에서 집안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심정과 아울러 결사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여러 곳을 유람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였다. 미련 1구에 나온 ‘尙平’은 후한 때의 隱士로 자가 子平인 尙長을 말한다. 상장은 벼슬하지 않고 은거했는데, 늙어서 자녀들의 혼인을 다 마치고 나서 집안일에 관여하지 않고 여러 명산들을 유람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작자는 자신을 상평에 대비하여 현실적인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송명회는 『남천유고』 발문에서 박형득이 “불행히도 상전벽해의 세상을 만나 어찌 할 바를 몰랐다.”라고 하였다. 박형득은 고흥의 유림 중 한 사람으로서 세상이 급속히 변해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어

17) 朴炯得, 『南坡遺稿』 卷1, 「亭上結社」

떻게 하면 사람과 사람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것이다. 그 방법으로 생각해낸 것이 시 모임이었고, 그러한 모임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결속을 다짐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백일장 대회 개최와 문예 부흥 추진

1934년 8월 어느 날 하구정에서 ‘매화’를 소재로 한 시 창작 백일장 대회 개최가 열렸다. 그 경진대회의 한자 이름은 ‘瀛洲吟社律詩賦’로, 하구정의 주인 박형득이 주최한 것이다. 대회의 이름 속에 ‘영주음사’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도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새로 지은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대회를 끝내고 나서 ‘영주음사울시부입선록’을 작성하였다. 이 입선록을 통해 대회의 규모와 분위기 및 심사한 사람은 누구이며, 1등부터 4등까지는 누가 차지했고, 마지막 選外佳作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인가 등등 여러 사항을 알 수 있다. 우선 대회의 규모와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적었다.

본 시사에서 본래 기획하기를 3000수로 한정했는데, 들어온 원고는 단연 1540수에 불과했으니 어쩔 수 없는 형세였다. 본 경찰서와 협의하여 상 주는 것을 절반으로 줄였고, 4등 150명에게 『매천집』을 대신 상으로 주었으니 또한 별이 없겠는가.¹⁸⁾

위 내용에 따르면, 본래 영주음사울시부 대회에서 기획 한정했던 작품 수는 3000수였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들어온 원고는 1540수에 지나지 않았다. 처음 기획했던 작품 수의 절반을 약간 넘는 편수만 들어온 것이다. 입선록 말미의 결산 내용 중에 광고비 105圓이 적힌 것으로 보아 여기저기 알린 듯한데, 그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본 경찰서와 협의하여 상 주는 것을 절반으로 줄였고”라고 하였다. 대회를 열었던 1934년은 일제치하에 있었던 시기이고, 공식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삼엄한 검열을 받아야만 했다. 심지어 상 주는 것까지 경찰서와 협의했다는 것을 통해 당시 어디까지 검열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다. 박형득은 백일장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전반 내용을 고흥 경찰서장에게 보고했는데, 그 초안이 현재까지 하구정에 보관되어 있어서 그 실상을 엿볼 수 있다. 또한 “4등 150명에게 『매천집』을 대신 상으로 주었으니”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매천집』은 박형득이 1932년에 중간했던 『매천시집』을 말한 듯하다. 2장에서 이미 살핀 바와 같이 박형득은 황현을 존경하여 『매천시집』을 중간·배포하였는데, 4등 150명에게 이 책을 상으로 준 것이다.

이어 본격적인 등수를 나열하기 이전에 심사한 사람이 이병수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병수는 박형득의 스승으로 그의 간략한 이력을 2장에서 이미 말하였다. 박형득은 아마도 백일장 대회의 심사자로 스승 이병수를 모시기 위해 편지를 띄웠을 것이나 그 기록물은 남아있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박형득이 이병수에게 심사 의뢰를 하기 위해 편지를 띄웠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이병수의 문집 『검산유고』 권2에 심사를 고사하는 내용을 담은 답장 편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병수는 결국 심사를

18) 何求亭 所藏, 「瀛洲吟社律詩賦入選錄」(1934년), 本社本計劃 以三千首爲限 而入稿 斷不過一千五百四十首 則勢不得已 與本警署協議 減半行賞 而四等一百五十人 以梅泉集代賞 抑亦無罰乎.

맡았고, 작품을 읽고 난 뒤의 소감을 다음과 같이 적어 박형득에게 편지를 보냈다.

지난 달 24일에 우편 소포가 갑자기 도착했는데, 놀라움이 아직 채 가시기 전이라 소포를 완전히 풀지 않고 되돌려주려고 했었네. 나의 벗 止齋 李敏璿이 그때 마침 와서 들어 알고 보기를 탐하여 여러 사람들이 지은 좋은 작품을 곁에 펴고 열람하니 도리어 매화 향기가 사람에게 스미는 것을 깨달았네. 그로 인하여 차례로 음미하여 연구하니 이 몸이 마치 페르샤의 큰 시장에 들어간 것처럼 괴이한 보물과 감춰진 구슬이 가득히 눈에 넘쳐 진정 높고 낮은 품평을 감히 하지 못하였네. (중략) 부득이하게 내 소신을 깨트려 10여 일 동안 정력을 소비하여 비로소 붓에 먹물을 묻혀 1등에 점을 찍었으나 부처님 머리에 찌꺼기를 붙이는 것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또한 빠진 사람이 있을까 두렵네.¹⁹⁾

편지 내용은 이병수가 영주읍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작품을 입수한 때로부터 시작하였다. 박형득은 심사자 이병수에게 우편 소포로 백일장에 참가한 사람들의 시 작품을 부쳤고, 이병수는 이제 그 소포를 입수한 것이다. 이병수는 처음에 소포를 되돌려주려고 했다는 말부터 하였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민선이 찾아와 함께 시 작품을 열람했다고 하였다. 이민선은 이병수의 제자로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다. 이병수는 시에서 느낀 첫 인상을 “매화 향기가 사람에게 스미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적었는데, 이는 영주읍사 백일장의 소재가 바로 ‘매화’였기 때문에 한 말이다. 그리고 그 시가 “마치 페르샤의 큰 시장에 들어간 것처럼 괴이한 보물과 감춰진 구슬이 가득히 눈에 넘쳤다.”라고 하였다. 이는 백일장에 참가한 시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이병수가 아낌없이 칭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병수는 모든 작품을 10여 일에 걸쳐 살폈으며, 마침내 1등을 뽑았다고 하였다.

이병수는 아마도 등위를 결정해 위 편지와 함께 박형득에게 부쳤을 것이다. 그리고 박형득은 이병수가 부친 편지 내용을 보고, 등위를 공개했을 것이다. 당시 영주읍사 백일장 대회에서 발표한 등위와 각 등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거주지와 함께 정리해보이면 다음과 같다.

- 1등 - 보성군 복내면 용전리 小坡 宋明會
- 2등 - 순천군 송광면 이읍리 靑坡 李奎祥 / 보성군 득량면 송곡리 松崖 金南洙
- 3등 - 고흥군 대서면 화산리 申必雨 / 보성군 문덕면 한천리 姜永珉
- 4등

연번	지역명	이름	인원수
1	江西	金輔鍵, 李信豊	2
2	康津	趙炳柱	1
3	江華	李漢範	1
4	慶山	朴錫圭	1

19) 李炳壽, 『謙山遺稿』 卷2, 「答朴德哉」, 前月廿四日 郵包忽墜 驚疑未定 全不解包 意欲還璧矣 吾朋止齋李君敏璿甫適來 聞知貪看 諸家之盛作 從旁披閱 旋覺梅香襲人 因次第玩繹 則此身如入波斯巨市 寶怪珍藏 充然溢目 固不敢評品高下 (中略) 不獲已 一破拙戒 費了精力旬餘日 始染毫點頭 不其近於佛頭着穢乎 亦恐見漏之人.

5	京城	朴昌漢, 鄭在鳳	2
6	高敞	金容惠	1
7	高興	孔允珠, 奇湖隱, 金德文, 金聖集, 金允模, 金在基, 金振鐸, 朴炯贊, 宋基百, 宋基襄, 宋箕浩, 宋秉龜, 宋仁錫, 宋璘淑, 宋子京, 宋柱義, 宋柱然, 宋徽柱, 申工雨, 申極, 申良植, 申藝雨, 申贊雨, 申哲休, 柳敬根, 柳永燮, 柳永毅, 李桂瑞, 李元俊, 李鐘南, 田子恩, 鄭得鉉, 丁龍秀, 趙明濟, 趙義濟, 崔起東	36
8	谷山	崔廷弼	1
9	谷城	趙晶濟	1
10	光陽	金季瑞, 李垆模, 李鶴洙	3
11	光州	朴東柱, 崔泳喜	2
12	求禮	高炳榮, 李鍾弼, 張埴	3
13	軍威	蔣濟來	1
14	錦山	張炳祿	1
15	金堤	宋昌浩	1
16	金泉	朴洪哲	1
17	金化	廉現東	1
18	羅州	姜文局, 朴洪順, 許聲	3
19	南原	姜秉憲, 朴海龍, 朴煥兌	3
20	達城	郭鍾淳	1
21	大同	趙炳善	1
22	大阪	金濟億, 朴琪東, 張在術	3
23	東萊	韓容鎬	1
24	滿洲	崔小竹	1
25	茂朱	李用雨	1
26	寶城	姜仲秀, 姜泰秀, 金演聲, 金永輔, 宣炳祿, 宣承來, 宣在球, 宣昶鎬, 宋運會, 尹得洙, 任奇鉉, 任亨彩, 朴受容	13
27	富寧	張洛俊	1
28	扶餘	申鴻燮	1
29	北間道	朴文璟	1
30	泗川	趙匡濟	1
31	山淸	李昌雨	1
32	尙州	曹成敦	1
33	瑞山	崔炳夏	1
34	善山	陸炳憲	1
35	順天	姜大晟, 姜益秀, 金丁柱, 金東植, 金榮弼, 金容熙, 金布堂, 朴和瑞, 徐丙奎, 沈宜玆, 李滿根, 李鍾斗, 趙秉國, 姜炯一	14
36	安邊	安載泰	1

37	楊口	朴殷夫	1
38	麗水	朴永兒	1
39	靈光	李康夏	1
40	英陽	金東胤	1
41	迎日	梁祐鎔	1
42	榮州	全河鐘	1
43	禮泉	李圭鳳	1
44	龍潭	陸海觀	1
45	蔚珍	黃秉贊	1
46	義州	張德景	1
47	利川	宋成鎭	1
48	全州	郭漢永, 金炳植, 金鎭泰, 吳世淵, 柳升圭, 柳翼煥, 尹回炳, 李壽榮, 李承柱, 鄭錫模, 崔命錫, 河慶烈	12
49	井邑	申玄甲, 李興錫	2
50	定平	魏海源	1
51	堤川	趙龍教	1
52	中和	李春植	1
53	珍島	金五宗	1
54	忠州	李起高	1
55	平壤	洪錫佑	1
56	咸陽	李圭鏞	1
57	咸州	李圭默	1
58	陝川	柳璣年	1
59	海南	金宗協, 朴元培	2
60	洪原	朴周赫	2
61	和順	房采奎, 林鳳洛, 林俊泳, 丁仁燮	4
총인원수			151

選外佳作

閔甲鎬 외 76명

처음에 언급했듯이 영주음사 백일장 대회에 참가한 작품 수는 총 1540편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1등부터 선외가작까지 정리해보니, 233편만 뽑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등은 1명, 2등과 3등은 각각 2명씩, 4등은 151명, 선외가작은 77명이 뽑혔다. 주목되는 부분은 4등을 차지한 사람들의 거주지가 대판, 북간도 등 국내가 아닌 지역도 있다는 점이다. 당시 영주음사가 열린다는 것을 해외까지 알렸던 것으로 추측하는데, 창작한 작품은 물론 우편으로 부쳐왔을 것이다. 그리고 1등부터 3등까지는 작품도 공

표했으며, 특히 1~2등 시에는 평가까지 덧붙인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우선 1등에 선정된 송명회의 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수선화와 월계화는 집안끼리 통하는데	水仙月桂是通家
여윈 것도 기이하고 담박함도 가상하다	瘦亦爲奇淡亦嘉
얼음 머금은 찬 꽃술엔 구슬이 엉겨 붙고	冷蕊含冰珠點綴
눈 쌓인 성긴 가지엔 구슬이 가로 비졌네	疎枝擎雪玉橫斜
나는 너에 맞게 불에 익힌 음식 끊으리니	我將斷火稱渠矣
그 누가 너를 다시 염매에 사용하리오	誰復和鹽用汝耶
같은 날 꽃피는 못 꽃들과 겨누지 않으니	不與衆芳同日發
사람들이 일반 꽃처럼 간주할까 두려워서라	恐人看作一般花 ²⁰⁾

송명회(1872~1953)는 자가 南一이고, 호는 소파이며, 본관은 여산이다. 전남 보성에서 태어났다.²¹⁾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송명회는 박형득의 행장과 문집의 발문을 썼고, 하구정 원운 시에 차운하기도 하였다. 또한 박형득의 문집 『남파유고』 권1에 송명회를 만나 지은 시가 여러 편 있고, 반대로 송명회의 문집 『小波詩文選稿』에 박형득과 관련한 시가 여러 편 있다. 특히, 어떤 사람의 행장을 썼다는 것은 그 행장의 주인공을 잘 알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이로써 두 사람이 특별히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형득은 고흥, 송명회는 보성에서 살아 지리적 여건 때문에 가깝게 지낼 수도 있으나 두 사람은 모두 시 창작하는 것을 즐겼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상기하자면, 영주음사 백일장의 소재는 ‘매화’이다. 매화를 생각하면서 송명회의 시를 읽어 보자. 작자는 수련 2구에서 매화의 생태적인 모습을 우선 말하기를 “여윈 것도 기이하고 담박함도 가상하다”라고 하였다. 이어 함련에서 눈 속에 있는 매화의 모습을 형상화하였으며, 경련에서 매화와 관련한 전거를 들어 표현하였다. 경련 1구는 남송의 시인 陸游가 지은 매화시의 전구 내용 “지금부터 불에 익힌 음식 끊고(從今斷火食)”를 들어 쓴 것이고, 2구는 은나라 高宗이 신하 傅說에게 “내가 국을 끓일 때에 너를 소금이나 매실로 쓰리라.(若作和羹 爾惟鹽梅)” 했던 말을 끌어다 활용한 것이다. 그리고 미련에서 다른 꽃들과 매화는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시 내용을 마쳤다. 이병수는 이 작품에 대한 평을 “구법이 원숙하고 칭고하며 사물을 살핀 감회가 갈수록 더욱 기묘하다.(句法 圓熟淸高 覽物 感懷 愈出愈奇)”라고 했는데, 작자의 노련한 창작 솜씨를 말한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2등에 뽑힌 두 작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 何求亭 所藏, 『瀛洲吟社律詩賦入選錄』(1934년), 1등 宋明會 작품. 이 작품은 현재 송명회의 문집 『小波詩文選稿』에 전하고 있지 않다.

21) 송명회의 생애에 대한 내용은 金大鉉의 논문(『小波와 雪舟의 생애와 시문학 연구』, 『한국시가문화연구』 17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06)을 참조할 것.

①

임금 보필에 그 뉘 국 맛 고르는 솜씨 있을까	補袞誰是和羹手
오래전 은나라 고종 끌어들이 다스리려 한다	千載欲挽殷宗治
미천한 신하 옛날 문하성 두 습유로 있었는데	微臣昔在拾遺省
두 서울에서 일찍이 매화꽃 피는 것 보았네	兩京曾看梅發時
고향 떠날 때의 백발은 더욱더 헝클어졌는데	離鄉白髮轉風蓬
나라 근심하는 일편단심은 해바라기와 같다	憂國丹沈傾日葵
파산의 선달 눈은 매화꽃보다 희니	巴山臘雪白於梅
새벽까지 촛불 밝히고 입춘 시 새로 쓰고	曉燭新題立春詩
백엽주 앞 술잔 기울여 뜬눈으로 지새우며	樽前柏葉守歲傾
대롱 속 갈대 재 불어서 세월을 재촉한다	管中葭灰催候吹 ²²⁾

②

꽃 필 때 참새 울고 학 그림자 기우나니	雀啁開時鶴影斜
빙설 같은 혼백 지닌 첫 번째 꽃이로다	冰魂雪骨首番花
현생 신선 동산의 달은 축축이 젖었고	現生瓊圃涓涓月
그림 속 구름 병풍 노을은 깨끗하여라	畫入雲屏淡淡霞
물그릇 신선 책 보며 우정을 생각하고	水鉢仙書懷友道
황제 도성의 입춘첩에서 세월을 느낀다	帝京春帖感年華
추위 속 풍미가 모름지기 이와 같아서	一寒風味須如此
천 년 전 범성대도 화훼 책에 실었지	卉譜千秋亦范家 ²³⁾

작품 ①은 형식을 따져보면, 칠언배율이다. 우선 기런 두 구에서 앞 시에도 보았던 은나라 고종이 부 열에게 했던 말을 인용하였다. 이어 함련과 경련에서는 당나라의 시인 杜甫와 관련한 내용을 적었다. 함련 1구에서 말한 ‘두 습유’는 바로 두보를 가리키는데, 두 서울에서 매화를 보았던 것을 말하였다. 또한 경련 1구에서 두보가 고향을 떠날 때의 모습을 적었고, 2구에서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말하였다. 복련과 미련에서는 매화를 통해 봄을 재촉하는 마음을 적었다. 복련 1구에서 말한 ‘파산’은 중국 湖北省 巴東縣 서쪽에 있는 협곡의 이름인데, 그곳의 눈 색과 매화꽃 색을 서로 대비한 것이 특이하다.

작품 ②의 수련에서 우선 매화가 봄의 전령사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하였다. 이어 함련에서 현실에 있는 매화와 그림 속 매화를 서로 대비시켰는데, 매화와 가장 가까운 것으로 각각 ‘달’과 ‘노을’을 등장시켰다. 경련에서는 “우정을 생각하고”, “세월을 느낀다”라고 하여 매화를 통해 떠오르는 인상을 적었

22) 何求亭 所藏, 「瀛洲吟社律詩賦入選錄」(1934년), 2등 李奎祥 작품.

23) 何求亭 所藏, 「瀛洲吟社律詩賦入選錄」(1934년), 2등 金南洙 작품.

다. 그리고 미련에서 추위를 잘 견디는 매화의 생태가 곧, 그의 품미라고 하며 范成大를 언급하였다. 범성대는 남송의 시인으로, 호는 石湖이다. 그는 일찍이 매화를 사랑하여 『石湖梅譜』와 『范村梅菊譜』를 낸 바 있는데, 작자는 이를 언급한 것이다. 이병수는 이 작품을 평가하기를 “시구마다 회고의 마음이 있고, 상심함이 꽤 간절하다. 범석호는 『매화보』를 지어 3분의 1을 매화에 할애하였다.(句句有懷古 傷心頗切 范石湖梅花譜 以致其三分之一與梅)”라고 했는데, 특히 경련과 미련을 두고 한 말이라 생각한다.

영주음사 백일장이 열렸던 1934년은 근대와 현대의 경계에 있던 시대였다. 따라서 전통의 가치가 그 빛을 점차 잃어가면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박형득은 향촌의 유림으로서 이렇듯 급속하게 전통의 가치가 그 빛을 점차 상실해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시사를 결성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한시 백일장 대회를 열어 문예 부흥을 추진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예부흥 추진은 표면적인 목적이고, 이면적인 목적은 따로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박형득은 1932년에 『매천시집』을 중간하였다. 그리고 2년 뒤에 영주음사 백일장을 개최하여 4등 150여 명에게 상금으로 『매천시집』을 주었다. ‘영주음사울시부 입선록’ 말미에 적힌 결산서를 보면, ‘何求亭主人補助金’이라 하고, 그 금액을 ‘賞品物梅泉詩集一百五拾秩代金百五拾圓’이라 적었다. 이를 통해 박형득이 『매천시집』을 상금으로 주기 위해 얼마큼의 돈을 출현했는지 알 수가 있다. 곧, 4등 150명에게 상금을 주기 위해 『매천시집』 150질 150원의 돈을 박형득 개인이 출현했던 것이다. 박형득은 평소 황현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지킨 절의를 흠모하였고, 그 정신을 널리 알릴 생각으로 『매천시집』을 중간하여 널리 배포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형득은 명분도 세우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영주음사 백일장 대회였다고 생각한다. 겉으로 나타나는 명분은 문예 부흥이고, 실질적으로는 『매천시집』을 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황현의 정신을 본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다.

4. 詩社 결성의 의의와 전망

지금까지 1920~30년대 전남 고흥 지역 유림의 시사 결성과 활동양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시사를 결성하기 위해서는 시를 사랑하고 시 짓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1920~30년대 고흥 지역에도 시를 사랑하고 시 짓는 것을 즐겼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 박형득이 있었다. 그는 당시 시대 상황이 변해가는 것을 상심하여 한때 두문불출하기도 했으나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시사를 결성하는 등 사람들과 소통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의 문집 『남파유고』 권1에 시 300여 수가 실려 있는데, 그 작품의 다수가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중에 지었다는 점이다. 이는 박형득이 얼마나 사람들과 어울려 소통하는 것을 좋아했는지 알려주는 것으로, 그의 나이 40대부터 다양한 종류의 시사를 결성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생각한다. 원근의 사람들을 모아 시사를 결성해 결속력을 다졌는데, 이때 하구정은 중요한 공

간이 되었다. 하구정에 모여 시를 짓기도 하고 차를 끓여 마시면서 뜻을 함께한 동지애를 간직했던 것이다.

한편, 박형득은 1932년 『매천시집』을 중간한 2년 뒤에 하구정에서 영주음사 백일장 대회를 개최한다. 1934년은 일제치하에 들어간 지 24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이고, 황현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 지 또한 24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일제치하에 들어간 뒤로 일본은 사상 통제를 위해 사소한 것까지 검열을 했는데, 영주음사 백일장 대회도 물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영주음사울시부입선록’ 처음 부분에서 “본 경찰서와 협의하여 상 주는 것을 절반으로 줄였고”라고 말했는데, 이 내용을 통해 일제치하 검열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 현재 하구정에 박형득이 영주음사 백일장을 개최하면서 고흥 경찰서장에게 보고한 명세 신고서가 있고, 백일장이 끝난 뒤 『영주음사입선시집』 1책을 출판해도 좋다는 허가증도 있다. 특히, 출판 허가증은 1934년 조선총독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가 박형득에게 보낸 것으로 당시의 출판 허가 과정을 알려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박형득은 만일 영주음사 백일장을 개최한다면, 일제가 여러 가지를 간섭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주음사 백일장을 개최했던 이유는 한시 창작을 통해 문예 부흥을 하고, 『매천시집』을 널리 배포해 많은 사람들이 황현의 시를 읽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박형득이 여러 방면으로 펼친 시사 결성은 그 의의가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 원근의 유림들을 결속시키는 한편, 황현의 시집을 읽고 그의 절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교육적 효과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할 연구 방향을 전망할 수 있다. 첫째, 박형득이 『매천시집』을 중간하고 배포한 과정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박형득은 『매천시집』을 중간한 뒤에 3편의 시와 2편의 문장을 지었다. 이러한 시와 문장을 살펴본다면, 『매천시집』을 왜 중간했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배포 과정에 대한 내용도 주목을 해야 한다. 박형득은 『매천시집』을 배포하기 위해 먼 제주도까지 사람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매천시집』을 배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하구정이 당시 어떤 의미가 있는 누정이었는가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하구정이 비록 1920년대에 세워진 누정이기는 하지만 당시 박형득이 원근의 유림들을 결속시키는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셋째, 영주음사 백일장 대회가 열리던 거의 비슷한 시기에 보성 별교를 중심으로 ‘湖南海隣詩社’가 결성되었는데, 고흥의 시사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도 살펴야 할 내용이다. 고흥과 보성은 거리가 가까워서 당시 이 두 지역의 유림들은 잦은 소통을 하였다. 당시 고흥과 보성을 중심으로 어떤 시사가 결성이 되어 어떤 활동이 있었는가를 살피는 일은 지역을 광역화한 것으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생각한다.

5. 맺음말

본 논문은 하구정 소장 자료를 기반으로, 1920~30년대 전남 고흥 지역 유림의 시사 결성과 그 의의를 구명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 지금까지 시사 연구는 시간적으로는 20세기 이전,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서울을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시사 연구의 시공간의 폭을 넓혔다는 측면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1920~30년대 전남 고흥 지역에서 시사를 결성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던 사람으로, 박형득을 주목하였다. 박형득은 태어나면서 질실하여 부화함을 싫어하고 실학에 힘을 쏟았다. 약관이 되었을 때 벌써 여러 책을 두루 읽었는데, 특히 성리학 등의 책을 좋아했다. 겸산 이 선생의 문하에서 학문을 연마했는데, 선생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다. 또한 외룡산 아래에 하구정이라는 누정을 짓고, 원근의 동지들과 만나 술을 마시거나 시를 읊으면서도 세상일을 묻지 않았다. 평소 매천 황현을 존경하여 그의 시문 책을 중간하여 세상에 널리 배포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형득이 시사를 결성해 활동한 양상은 두 방면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첫째, 박형득은 다양한 시사를 개최해 시 벗과의 결속을 다졌다. 이를 알려주는 시 작품으로 「여혜전회산성헌남죽설죽죽강」, 「정상결사」, 「차본방시사운」, 「화풍천재시회」, 「대서두원양방시회범주송호」, 「계해음사념운」, 「화해린사제반」, 「윤삼월화계해음사제반」, 「화본방시사원회우경모재」 등을 들 수 있었다. 이러한 작품을 통해 박형득이 시사를 어떻게 결성했으며,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알 수 있었다. 박형득은 고흥의 유림 중 한 사람으로서 세상이 급속히 변해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과 사람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였다. 그 방법으로 생각해낸 것이 시 모임이었고, 그러한 모임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결속을 다짐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1934년에 하구정에서 개최한 영주음사 백일장 대회에 주목하고, 그 대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바를 구명하였다. 당시 일제치하에서 열린 백일장 대회였기 때문에 검열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무사히 치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백일장 대회는 박형득이 1932년에 『매천시집』을 중간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대회의 이면적인 것으로 논의하였다.

박형득이 여러 방면으로 펼친 시사 결성은 그 의의가 작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박형득이 중심이 된 1920~30년대 시사는 결국 원근의 유림들을 결속시키는 한편, 황현의 시집을 읽고 그의 절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교육적 효과도 있었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아울러 앞으로 연구의 전망을 세 가지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朴炯得, 『南坡遺稿』

李炳壽, 『謙山遺稿』

何求亭 所藏, 『瀛洲吟社律詩賦入選錄』(1934년)

『高興郡誌』, 고흥군지편찬위원회, 1984.

金大鉉, 「小波와 雪舟의 생애와 시문학 연구」, 『한국시가문화연구』 17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06.

박명희, 「나주 남평향교의 시사 결성과 창작시의 양상」, 『인문과 예술』, 인문예술학회, 2021.

尹浩鎭, 「詩社 研究의 回顧와 展望」, 『한문학보』 권25, 우리한문학회, 2011.

千柄植, 「委巷詩社의 結成 原因에 대하여」, 『국어교육』 63권, 한국어교육학회, 1988.

토론문

「조선후기 고흥지역 무반가문 형성과 활동」에 대한 토론문

송은일¹⁾

이 글은 현 고흥군 두원면 신송리 소재 무열사에 소장되었던 驪陽陳氏 관련 고문서의 문화재적 가치 등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다. 이 사우에 배향되었고 임진왜란 전후에 크게 활동하였던 진무성과 관련된 사료를 추적하여 그의 충절과 위상을 밝혀내는 것을 디딤돌로 삼아, 무열사에 소장되었던 고문서의 현황과 그곳에 나타난 一家 인물들의 행적을 비롯하여 그중 활동상이 도두라졌던 진무성의 현창사업의 과정을 살펴본 다음 그 고문서의 문화재적 가치 등을 도출해 낸 것이 그것이다.

조선시대 한 무반가에 전해 내려온 고문서의 현황과 내용을 분석하여 그들의 활동상과 더불어 당시 사회상 등을 알아보고 그것의 문화재적 가치를 밝혀낸다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어내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다만 이 글을 읽어가면서 의심난 점이나 향후 논지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필자의 소견을 몇 가지 摘記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이 글의 제목에 관련된 것이다. 이 글의 제목은 “고흥 무열사 소장 고문서의 가치”로 하였는데 조금 더 생각하여 제목을 수정·보완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2. 이 글의 내용에 의하면 진무성이 최초 무과에 합격한 것은 1596년 윤 8월에 한산도에서 치른 別試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그는 그 이전(1592년 6월 2일) 무과에 합격한 인물들이 처음으로 받았다고 생각되는 군관의 직책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헤아려보면 전후 상황이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 『난중일기』 1596년 2월 4일 기록에 의하면 이순신이 진무성을 호칭할 때 직책을 부여하지 않고 “사도 사람”이라고 하였다는 것도 그러한 저간의 사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요컨대 진무성과 관련된 기록들이 전후 착종현상이 보인다는 것으로 그의 공시적 활동상을 언급할 때에는 이러한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 그 외 논지를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별다른 단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논문의 완성도를 위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1) 전남대학교

MEMO

MEMO

MEMO

MEMO

2021년 기초자료 조사수집 공동학술대회
민간기록유산을 통해 본
고흥의 역사와 문화

발행일 2021년 10월 29일

발행처  (재)한국학호남진흥원

62383 광주광역시 소촌로 152번길 53-27, 4층

Tel. 062-603-9600

FAX 062-941-6705

<http://www.hiks.or.kr>

본 책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2021 호남국학 진흥지원 사업(기초자료 수집·보존)”의 일환으로 추진한 결과물이며, 여기에 실린 글과 도판은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